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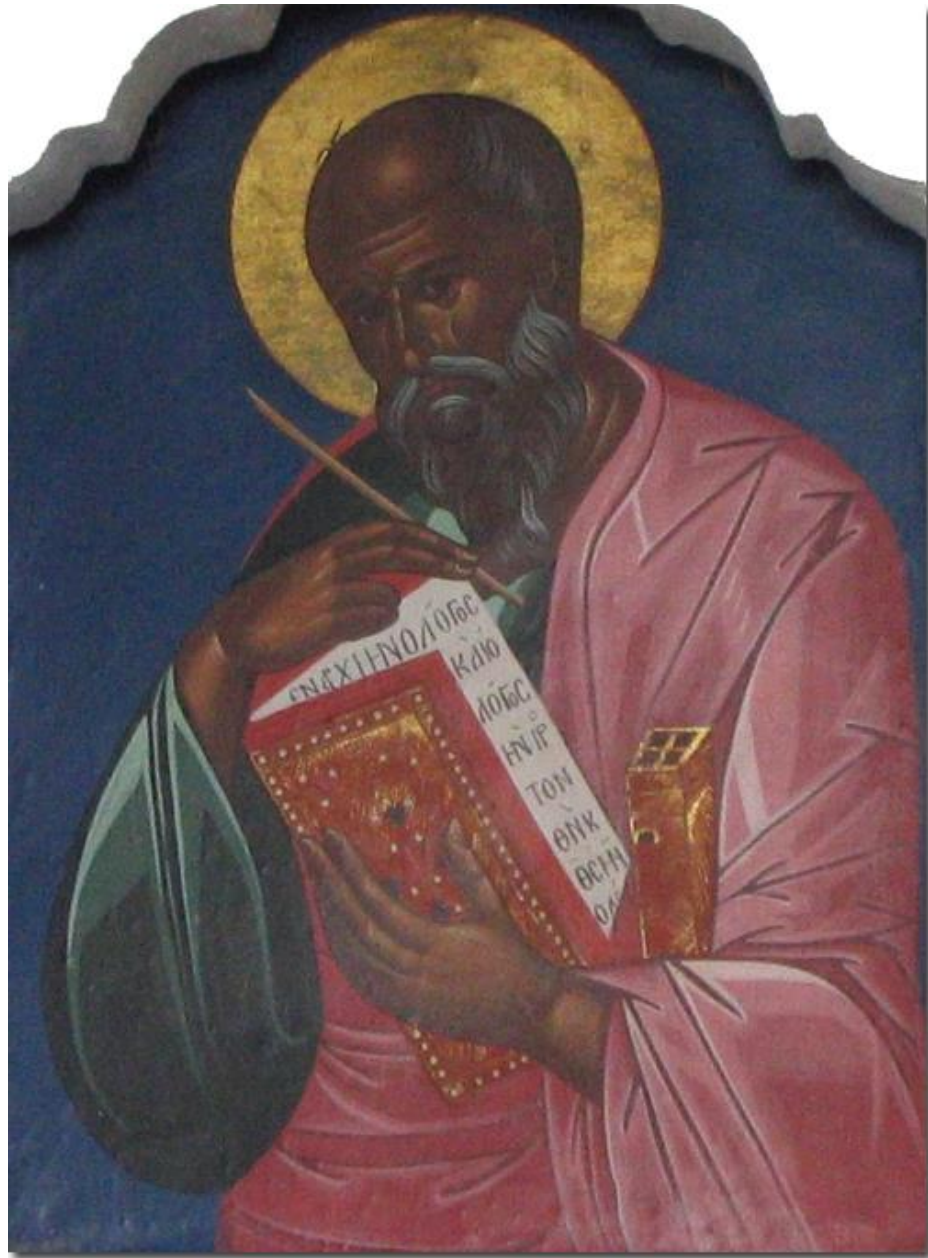
#001

## 요한계시록 1장 1-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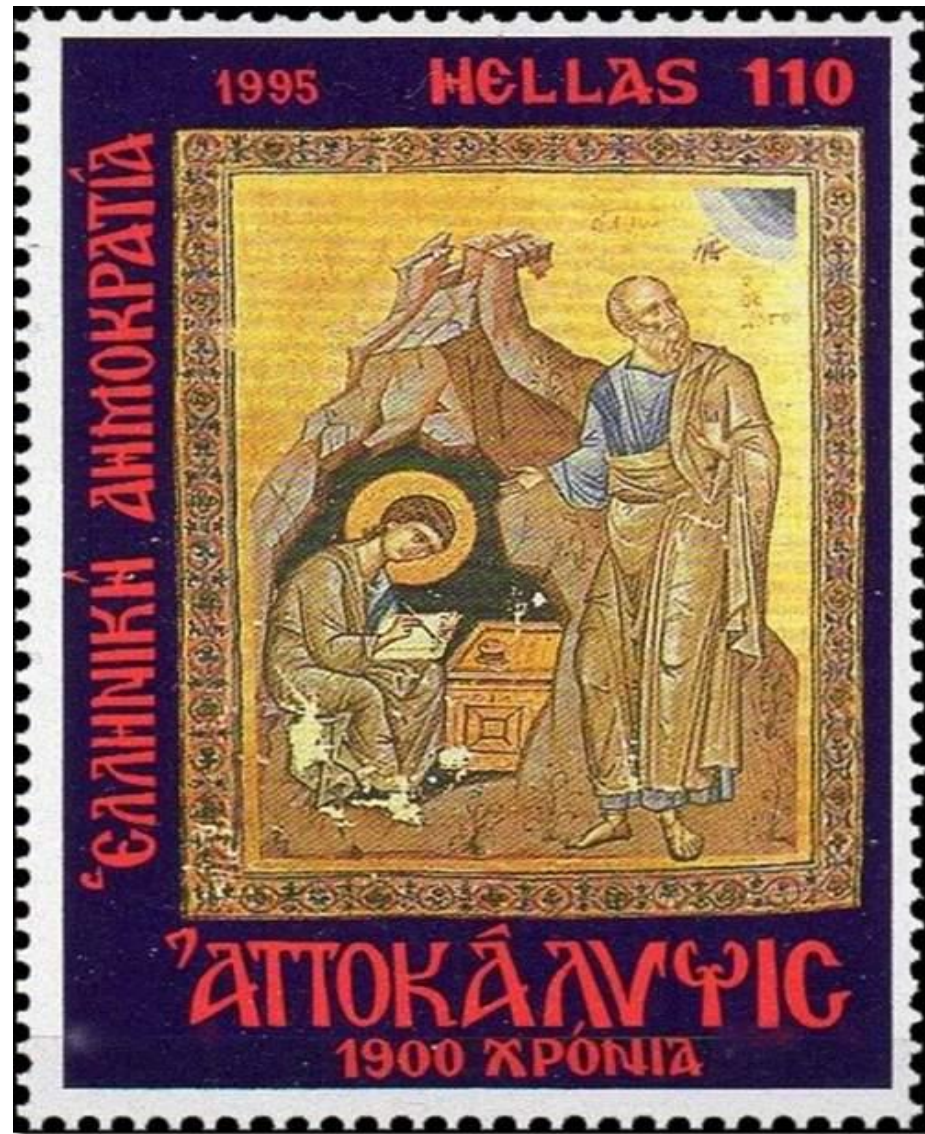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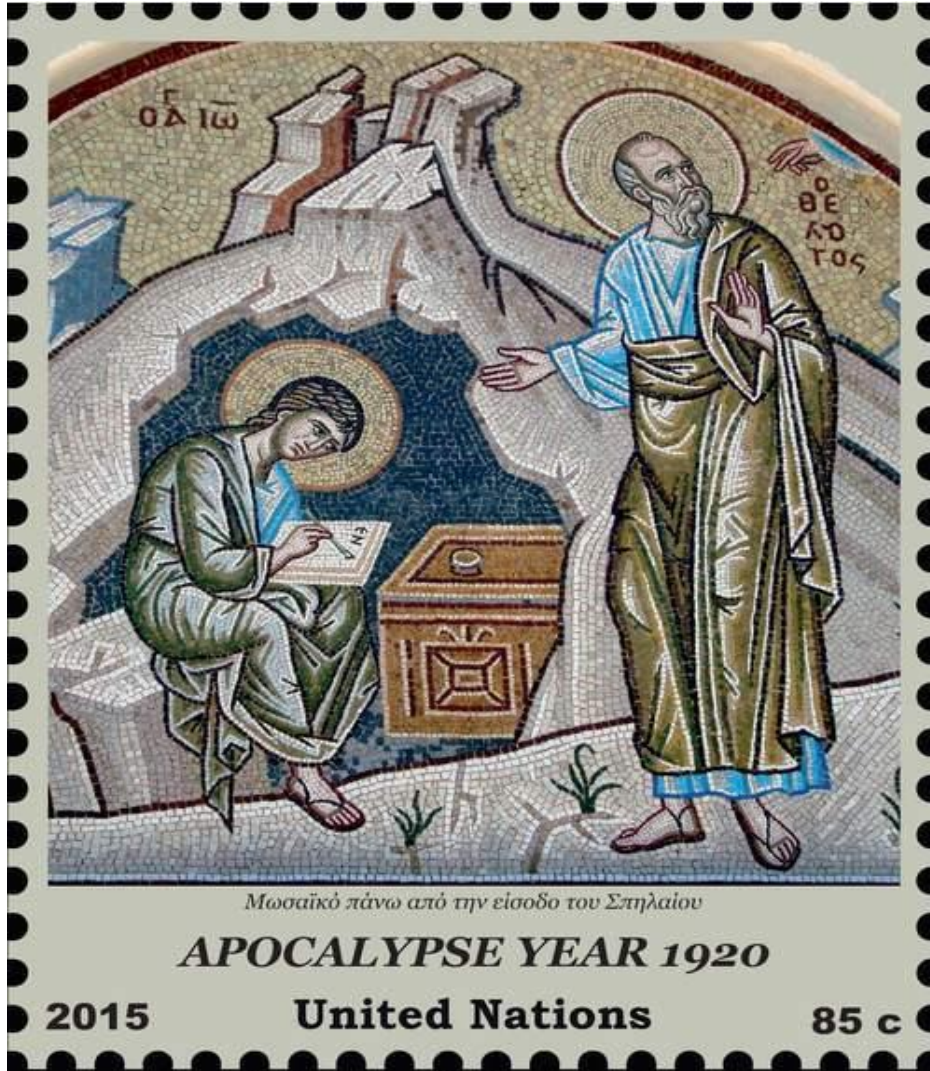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보좌석의 변화)



계시록 그리스 우표(1995년)  
 헬라스, 헬레니케 공화국, 1900년 전 아포카립시스(묵시).  
 바닷모섬의 토클에서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과 이것을 받아  
 적고 있는 브로고르(Procorus, 행 6:5)를 묘사하였다.



하나님의 손  
Manus Dei

‘성 요한 신학자’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ο Θεολόγος

1920년 전 아포카립시스(묵시) 기념 국제연합 우표(2015)  
 바사모섬의 톨굴에서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과 이것을 받아 적고  
 있는 프로코르(Procorus, 행 6:5)를 묘사하였다. 모자이크  
 상단에 쓰인 글은 ‘성 요한 신학자’란 뜻이고, 아래의 작은 글은  
 바사모섬의 ‘돌굴 입구의 모자이크’란 뜻이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계시록의 주제: ‘고난으로부터의 승리’.

● 계시록의 믿음: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 계시록의 말씀: 복음서나 율기서와 동일.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믿음과 인내와 희망을, 박해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무서움을 경고.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계시록의 약속: 큰 기쁨과 축복. 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

○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1:3).

● 계시록을 기피하는 이유: 어려운 책, 부적합한 책이라는 생각 때문. 반면에 계시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 계시록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기 때문.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계시록에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다.
- 계시록에는 기이한 형상들과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 용, 많은 머리와 뿔을 가진 짐승, 말(馬) 같기도 하고, 금관(金冠)을 쓴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머리털은 여자 같기도 하고, 이빨은 사자 같기도 하고, 갑옷으로 무장하였고, 웅장한 소리를 내는 날개들이 있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는 황충이 등장한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내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는 말과 같은 **기괴하고 해괴한 형상들**이 등장한다.
- 2억 명의 군인들이 싸우는 거대한 전쟁과 하늘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며, 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기이한 사건들**이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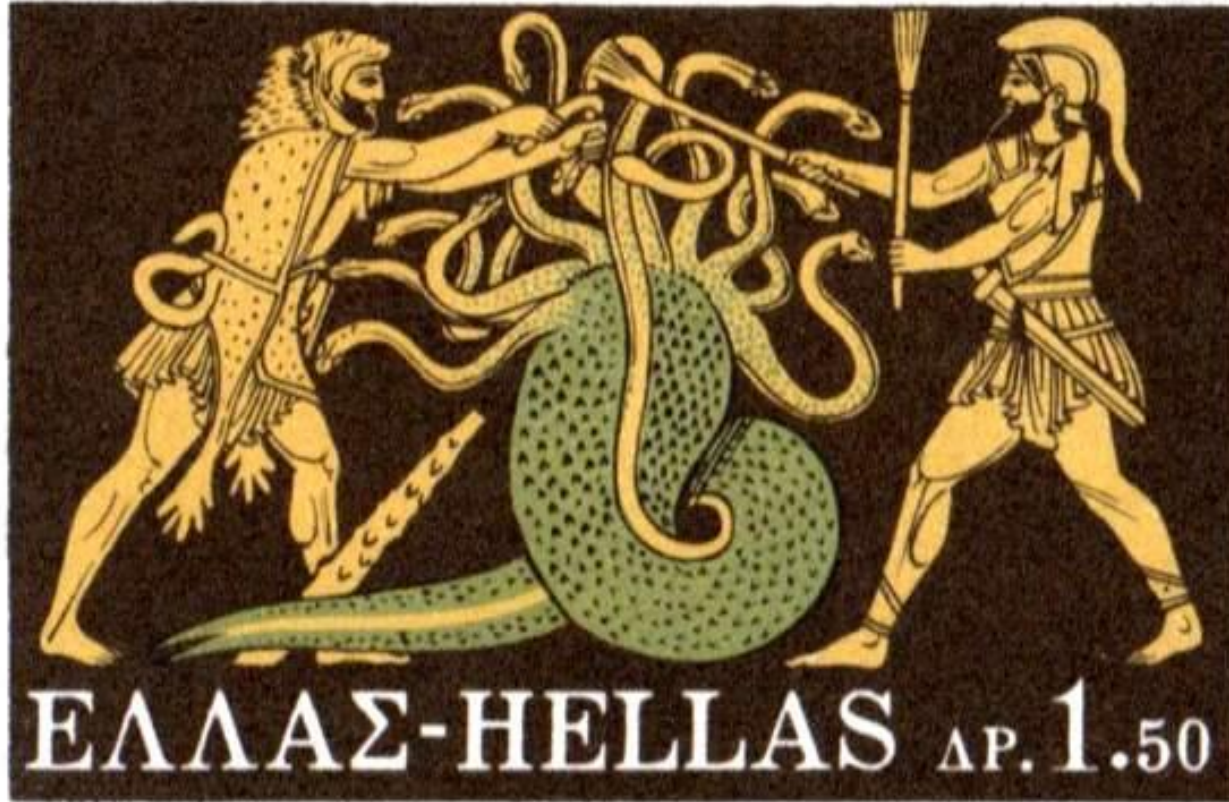


게시록 13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를 클로즈업한 것이다.



게시록 12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발 아래에 달을,  
 머리에 열두 뿔의 관을 쓴 해를 입은 여인과 일곱 머리  
 열 뿔과 일곱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을 묘사하였다.

Ο ΗΡΑΚΛΗΣ ΚΑΙ Η ΛΕΡΝΑΙΑ ΥΔΡΑ 1970



헤라클레스와 레르나이아 후드라(그리스 우표, 1970)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운명에 부과된 두 번째 과업인 레르나이아 후드라를 퇴치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첫 번째 과업 때 죽인 네메아의 사자 가죽을 쓴 헤라클레스가 후드라의 목을 베는 모습과 투구를 쓴 사촌 이올라오스가 잘려나간 목을 화살로 지지 후드라의 목이 재생되는 것을 차단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후드라의 9개의 머리 가운데 한 개는 불사의 머리였는데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거대한 바위로 눌러 봉인해버렸다.



계시록 16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일곱 대접재앙을 묘사하였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사람들 중에는 이런 기괴한 형상들이 장차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으로 믿는다.
- 사람들 중에는 계시록의 사건들도 기록된 그대로 발생될 것이라고 믿는다.
-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계시록에 기술된 모든 형상과 사건들이 문자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요한은 1장 1절에서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아포카립시스’(Αποκάλυψις)라고 말함으로써 계시록이 많은 상징들로 기록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 아포카립시스는 고대문학의 한 장르를 일컫는 용어로서 우리말로 ‘묵시’로 불린다.
- 묵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과 동터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승리, 즉 장차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구원과 축복들에 대해서 말해준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묵시록은 희망의 메시지가 일련의 **드라마의 형태로** 제시된다.

● 묵시록은 독자들에게 **상징들을 통해서** 암시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 백색은 **선(善)**, 적색은 **악(惡)**.
- 숫자 7은 크고 온전하게 채워진 것 즉 **완전**을 상징,
- 숫자 6은 사람이나 마귀가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함을 즉 **죄, 허물, 부족 및 타락**을 상징한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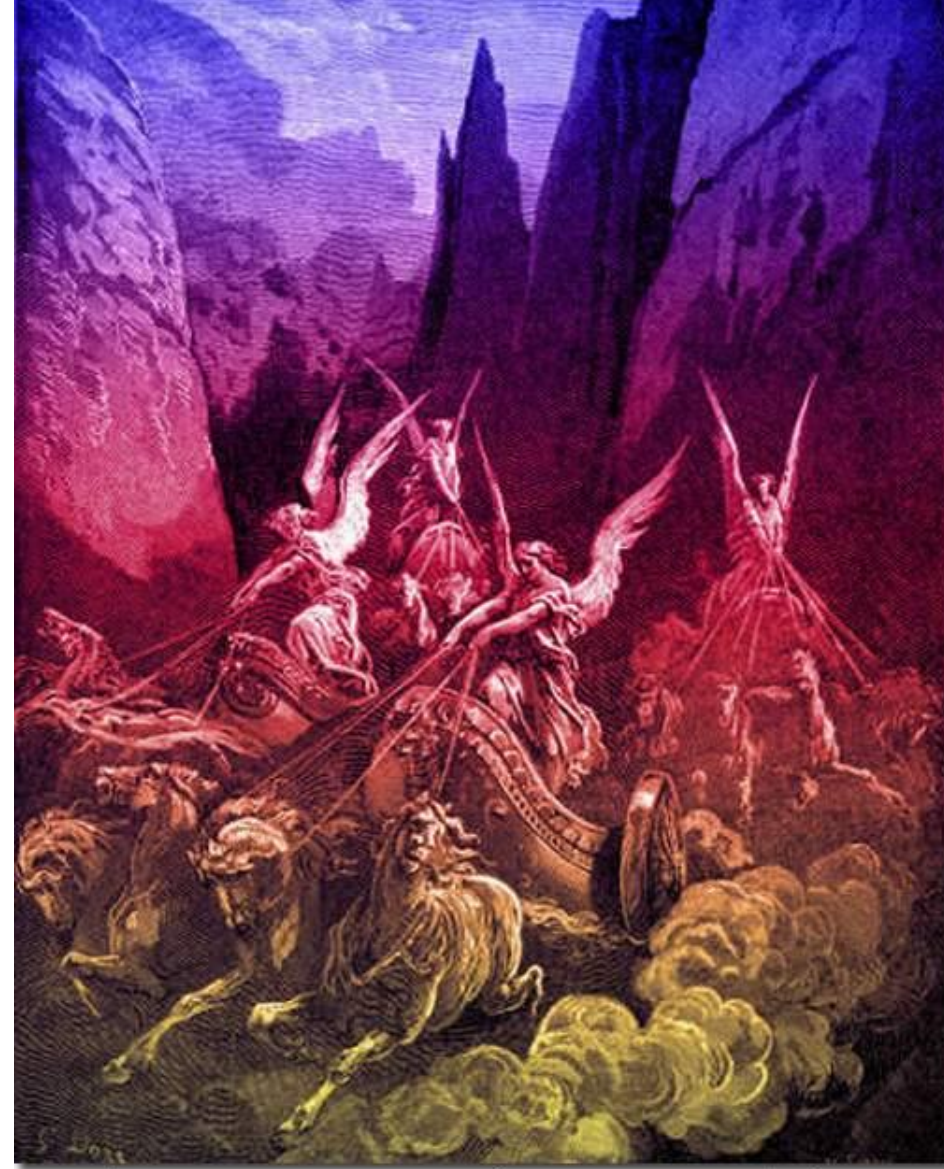
- 다니엘서는 제국과 제왕들을 짐승들로 묘사한다.
- 다니엘서는 여러 짐승의 몸을 한 몸에 가진 이상한 짐승도 소개하고 있다.
- 에스겔과 스가랴도 그들 책의 일부분을 묵시적 형태로 쓰고 있고, 계시록에 언급된 상징들과 형상들이 이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계시록(‘아포카립시스’)을 미래에 발생할 일에 관한 문자적인 예언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 즉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권면의 말씀(설교)**으로 읽어야 한다.
-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의 해괴한 형상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 위한 상징들로 보는 것이 좋다.**

# 네 짐승 환상(단 7장)

순서	짐승이름	모습	짐승 그림
첫째	사자	독수리 날개가 달렸음	
둘째	곰	몸 한편을 들었고 잇 사이에 세 갈빗대를 물었음	
셋째	표범	새의 날개 넷이 달리고 머리가 넷임	
넷째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	철 이를 가졌음 열 뿔이 달렸음	



두 뿔소로 된 산 사이에서 나온 네 대의 병거(슥 6:1-8)  
이 병거들은 하늘의 영(바람)들로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라는  
천사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번갈아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에스겔이 본 환상: 네 생물과 수레바퀴(에스겔 1, 10장)



에스겔이 본 네 생물 (by Sweet Media)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곧은 다리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변 구리 같이 빛나며...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날개는 늘어져서 각기 들썩 서로 연하였고, 또 들은 몸을 가렸더라” (겔 1:6-11).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우리가 계시록의 형상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계시록 1장 12-16절과 5장 6절에 기술된 예수님의 모습을 문자적으로 받아 들릴 수 없는 것과 같다.
- 계시록 1장 12-1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록 1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를 묘사하였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빛과 일곱 눈으로 표현된 어린양과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  
일곱 빛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양은 약함이 강함이라는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는  
완전한 능력이고, 완전한 지혜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계시록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다.
- 예수님께서 실제로 입에서 나오는 양날 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나 이 형상은 예수님께서서 죄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실 자이심을 또 그 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상기시킨다.
- 예수님께서서 실제로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눈과 용광로에 단련된 주석처럼 빛나는 발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그러나 예수님의 이 형상은 두아디라 교회와 관련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릴 자이심을 상기시킨다.
- 문자적인 해석은 여기서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과도 잘 맞지 않는다.
- 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많은 형상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 형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의 확신과 희망 있는 장래**에 관해서 권면한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에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은 점을 인정하고
- 문자적인 해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002

## 요한계시록 1장 4-8절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  
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  
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  
하노라 아멘.

## 요한계시록 1장 4-8절

[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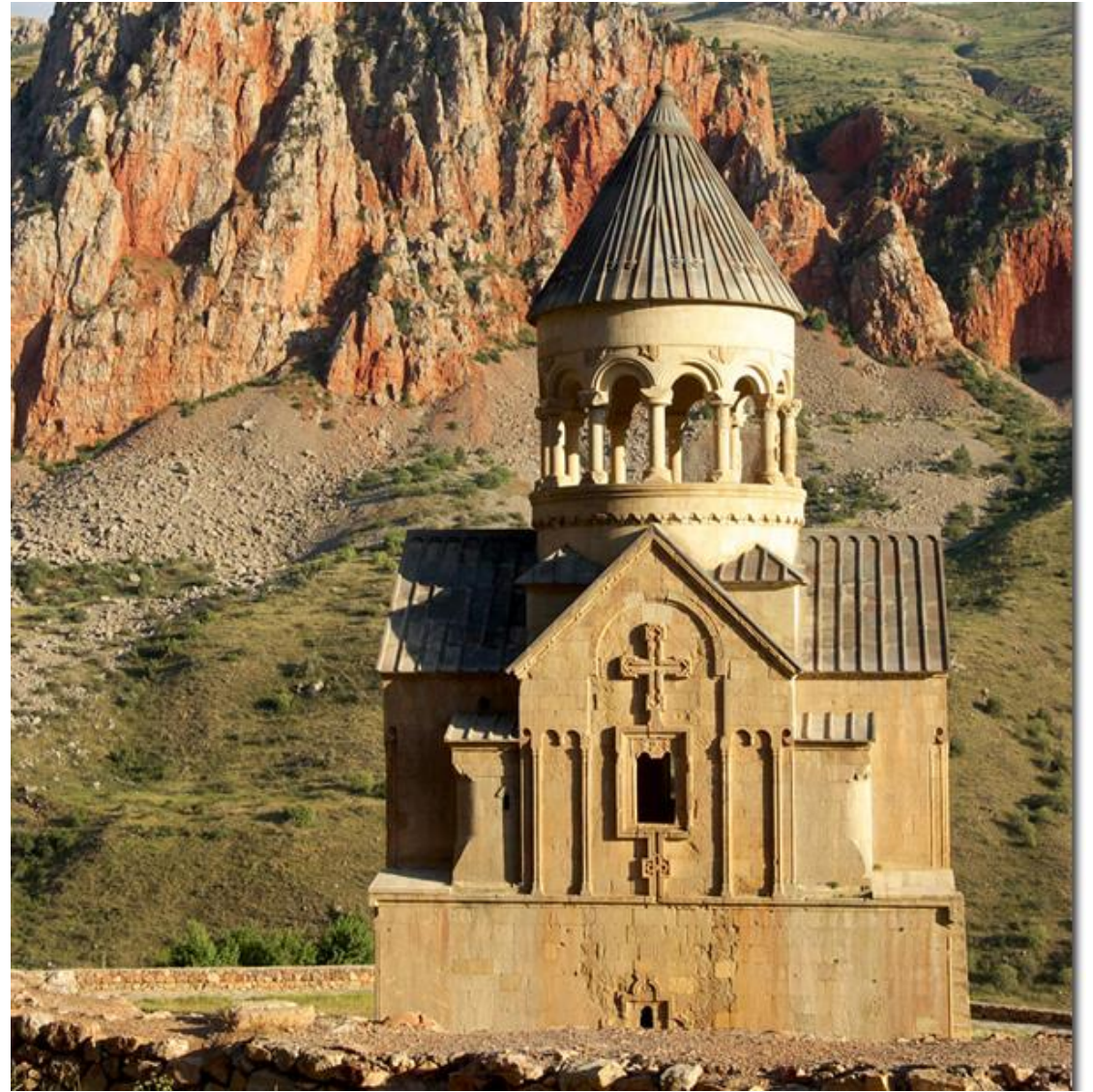
[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의 하치카르(Khachkars, 십자가석들)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의 십자가 문양 노라벵크 수도원





터키 땅인 눈 덮인 아라랏산과  
아르메니아 코르비랍(Khor Virap)에 소재한 사도교회 수도원 전경



터키 땅인 눈 덮인 아라랏산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코르비랍(Khor Virap)에 소재한 사도교회 수도원의 벽 십자가 문양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과정(1:1)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첫째,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되다.
- 둘째,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으로 된 다른 모든 성경들과 조화를 이룬다. 따라서 계시록의 형상들과 상징들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셋째, 계시록의 내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과 실천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되다(1:3).
-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을 읽는 방법

- 매일의 삶에 필요한 실천적 교훈을 찾는다. 계시록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한다. 계시록을 재림시기에 발생할 사건 즉 칠년대환난 시기 발생할 사건으로만 이해하려해서 안 된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초점은 교회

- 다수가 계시록을 미래에 관한 예언서로 믿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이 세상 끝 마지막 몇 년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로 설명하고자 한다.
- 다수가 계시록을 유대인들과 관련 있는 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스라엘 영토와 성전예배의 문자적 회복과 관련해서 계시록을 이해하고 있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초점은 교회

- 다수가 유대인들은 마지막 시기에 칠년대환난을 겪을 것이고, 결국은 천년왕국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읽으면 계시록의 교회와의 관련성이 희박해지고 만다. 오히려 계시록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

- 계시록은 마지막 시기의 교회 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담고 있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계시록은 **요한의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차적으로 보내어진 서신이다.**
- 계시록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과 입장에서 읽혀져야 한다.
-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은 **이 책의 메시지가 일세기 말경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일곱 교회에 보내진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 따라서 계시록에 언급된 형상들과 사건들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삶의 정황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1세기 성도들은 이 천년 후에 발생할 사건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 더욱이 박해 상황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먼 장래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축복들에 관한 예언을 읽는 것에 흥미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은 1세기 교회 신앙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훼방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정황을 볼 때에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만의 하나 계시록이 유대인들의 축복을 예언한 책이라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고 더 더욱 관심을 갖고 읽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초점은 그리스도인들

- 계시록의 초점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이 있음을 계시록의 각 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1장 5-6절**의 말씀에 의하면,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해방된 자들과 나라와 제사장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보내어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4장과 5장의 환상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7장에 나오는 대 환난을 이기고 구원받은 큰 무리도 어린양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 11장의 두 증인도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한다.
- 12장의 붉은 용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14장의 144,000명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다.
- 17장의 음녀 바빌론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고 있다.
-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의 영원한 나라에 데려 갈 것이다.
- 20장에서 보좌에 앉아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초점은 하나님

- 다수가 계시록을 종말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계시록은 **하나님의 본질**이나 **기독론**과 같은 다른 교리들을 설명하는데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많은 성구들을 가지고 있다.**
-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1:8).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22:13).
- 계시록은 하나님을 각종 보석과 무지개로 묘사하는 성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영화롭고 찬란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 계시록은 악한 자들에게 각종 재앙들을 선포하는 많은 성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계시록은 악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많은 성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설명할 수 있다.
- 계시록은 **기독론**을 설명하는 많은 성구들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성구들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많다. 계시록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호칭들을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서도 하신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언급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언급**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징은 희생된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사건들을 말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가르치고 있다.

## 계시록이 주는 가장 확실한 교훈

- 광야(교회, 세상)생활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에게
- 승리, 영광, 구원, 위로, 보상, 월계관, 보좌, 하늘 가나안(새 하늘과 새 땅) 및 영원한 지복(至福: 더 없는 행복)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003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 [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점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17]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델포이 트라이포드  
(삼각대, 운명을 상징)를 두고 다투는  
헤라클레스와 아폴론.

왼쪽에 아테나가  
헤라클레스를 응원  
하고 오른쪽의 아  
르테미스는 아폴론  
을 성원하고 있다.  
BC 510~500년 경  
작품으로 추정, 르  
부르 박물관 소장.



www.theoi.com



**\*\*\* 영웅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히고, 격려하  
고 위로하며, 승리의 관을  
씌우는 자들은 대부분 여  
신들이다.**



모든 수고를 끝낸 헤라클레스가 여신 '헤메' (명예)로부터 월계관을 받아쓰는 그림 (Sebastiano Conca, 1680-1764, 이탈리아 화가).

네메아의 사자 가죽, 크레타의 황소, 케리네이아의 암사슴, 헤스페리데스의 황금사과, 에리만토스의 멧돼지, 머리가 세 개인 하데스의 수문장 케르베로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운명으로 부과됐던 고난들을 묘사한 것이다.



헤라의 '진노의 자식'인 헤라클레스(알키데스)가 자기 십자가를 진 후에 신들의 대전大殿에 올라 헤라로부터 월계관을 받아 쓰는 모습(Martin Desjardins, 1671, 루브르 박물관).

헤라클레스가 오른손에 헤라의 과수원인 헤스페리데스에서 라돈(용)을 무찌르고 쟁취한 불멸을 주는 황금 사과를 쥐고 있고, 왼손에 올리브 몽둥이를 쥐고 있으며, 죽은 라돈이 바닥에, 네메아의 사자 가죽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헤라클레스가 육신의 짐을  
벗고 신들의 대전(大殿)에  
올라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  
던 여신 헤라의 딸이자 신  
들에게 술을 따르는 청춘의  
여신 헤베와 결혼하는 인간  
승리의 극적인 장면이다  
(Jens Adolph Jerichau,  
1816-1883).

● 영웅이 되는 조건은 영웅들이 숱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체험들을, 그 체험들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비록 영웅이 될 만큼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그 체험들을 기억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드리고 그 삶에 온 몸으로 참여하면서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과 인내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며 현재화 하는 것이다.

● 영웅들의 체험을 기억하고 공감하며 온 몸으로 참여하면서 현재화 하는 것이다. 만일 그 기억을 집단이 공유한다면, 그 집단은 공동체가 된다. 그런 집단이 이스라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004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첫째,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다.
-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다(그 내용이 진실되고, 다른 모든 성경들과 조화를 이룬다).
- 셋째,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과 실천이 가능하다.
- 넷째, 계시록이 교회와 관련이 있다.
- 다섯째,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여섯째, 계시록이 **예배와 찬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 계시록은 천국에서의 예배와 찬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 주고 있다. 심지어 요한이 1장 4-8절에서 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인사말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송**이 발견되고 있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1:5-6).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계시록이 제시하는 모델들을 따라서 **참 예배의 내용과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계시록에 설명된 환상들은,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두 개씩의 **예배의 모형을 제시**해 주고 있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일곱째, 계시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 1장 9절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계시록의 메시지를 요약해 주고 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요한은 계시록에서 **‘고난’**을 말하고 있다.
- 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 등에 관해서 **상징적인 형태로 극화(劇化/드라마화)**하고 있다.



로마를 헤라클레스와 동일시한 데나리온(주조: C. Ppublicius Q.f., 80 BC).  
전면: 로마를 의인화한 여신. 그리핀(독수리+사자)이 장식된 투구를 쓰고 있다. 뒷면: 헤라클레스가 네메아의 사자를 목 졸라 죽이는 모습. 주조자의 이름과 헤라클레스의 곤봉과 활과 화살통이 새겨져 있다.

● 승리자가 되는 조건은 영웅들이 숯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체험들을, 그 체험들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비록 영웅이 될 만큼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그 체험들을 기억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드리고 그 삶에 온 몸으로 참여하면서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과 인내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며 현재화 하는 것이다.

● 영웅들의 체험을 기억하고 공감하며 온 몸으로 참여하면서 현재화 하는 것이다. 만일 그 기억을 집단이 공유한다면, 그 집단은 공동체가 된다. 그런 집단이 이스라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요한은 계시록에서 **‘왕국’(나라)**을 말하고 있다.
- 계시록은 우리가 장차 현세의 고통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희망**을 전하고 있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요한은 계시록에서 **‘인내’**을 말하고 있다.
-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믿음과 인내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권면하려는 것이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2-3장에서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 “이기는 그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고 있다.
- 생명의 월계관을 쓸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 즉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 그러므로 계시록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권면하려는 것이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여덟째, 계시록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1:19-20).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요한은 그가 본 두 가지 비밀 또는 상징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1장을 종결하고 있다.
- **일곱 금 촛대**는 이 서신을 받게 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고,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使者/천사/메신저/지도자)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계시록에서 상징의 의미를 설명해 준 것은 **대략 13개 정도이다**. 나머지는 설명없이 남겨져 있다.
- 이들 설명이 되지 않은 형상이나 상징들은 계시록의 연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계 13:18)는 말씀은 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 **비밀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장려**하는 말씀이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계시록에서 사용된 상징들, 형상들, 색깔들, 또는 숫자는 **고대 근동세계의 문화와 구약 예언자들의 묵시적 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밖에도 출애굽 사건, 엘리야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바벨론 유배와 귀환과 같은 사건들과 그 밖 에 시편,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다니엘서 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성경을 새롭게 해석한 글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고 모르는 비밀이 있다면 비밀 그대로 덮어두어야 한다.
- 모르는 것을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계시록 10장 4절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것은 기록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일곱 우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일부분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그러므로 계시록의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 계시록을 연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사도 요한처럼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계 7:14)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

### ● 계시록의 성격

- 당장 깨우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도 서서히 깨달어질 날이 올 것이다.

- 중요한 것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다.

- 우리 모두 복 있는 자들이 됩시다.

# 계시록의 저자, 기록연대, 목적,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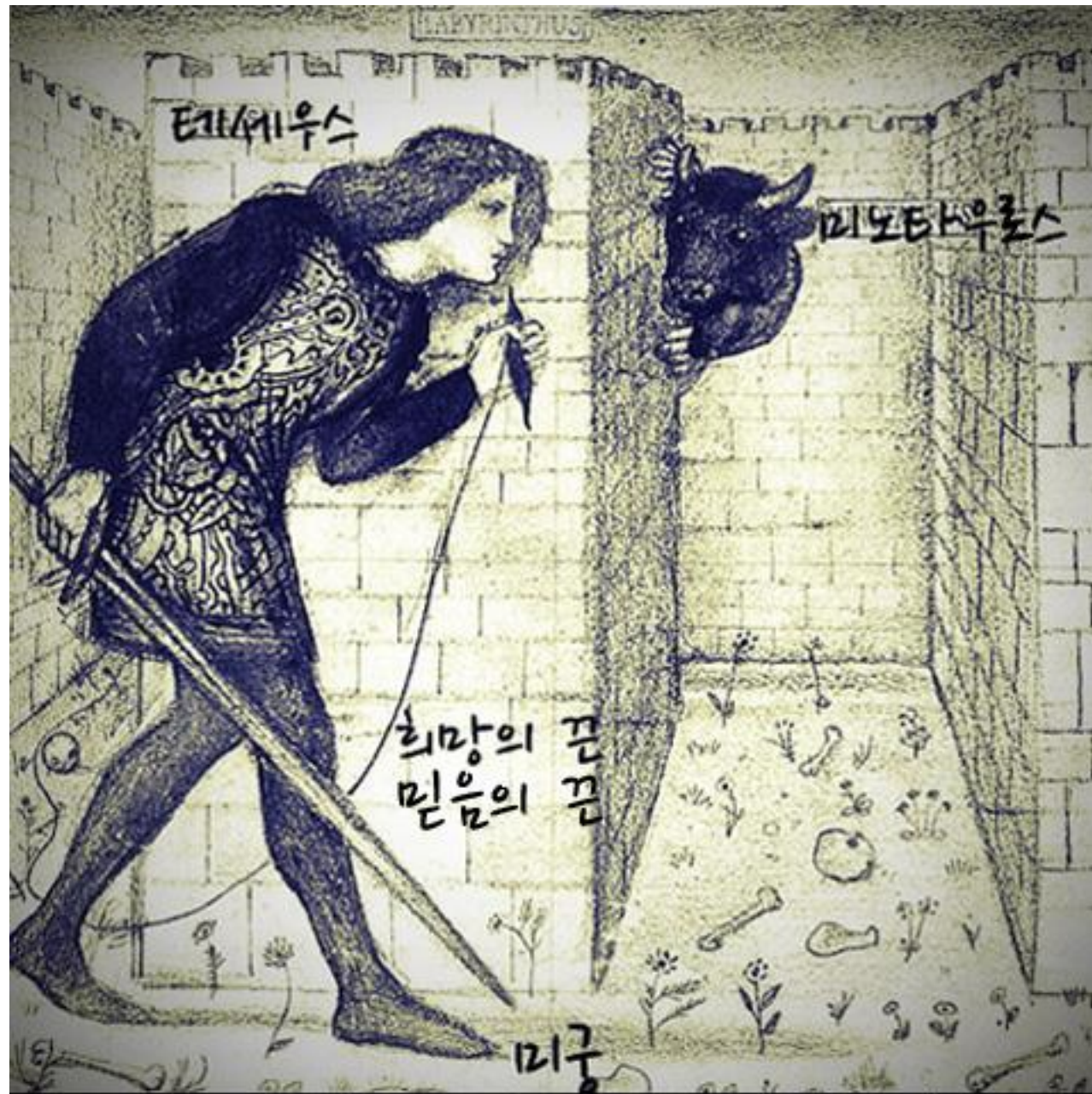
## ● 계시록의 저자

- 황제숭배를 강요했던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난 AD 96년에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 이 요한은 첫째, 창조신앙의 소유자였고; 둘째, 구약성경의 해석자였으며; 셋째, 환상을 보는 묵시묵학자였고; 넷째, 역사의식이 뚜렷한 신학자였으며; 다섯째, 소명의식을 가진 목회자였다.

# 계시록의 저자, 기록연대, 목적, 주제

## ● 계시록의 목적

- 계시록은 예수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였다.
- 박해와 시련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되고, 모든 눈물이 씻기며, 기도가 응답되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고, 생명의 월계관을 쓰는 영광을 누린다고 말한다.



살리는(gives life) 일을 하는 영웅은 희망(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자이다.

# 계시록의 저자, 기록연대, 목적,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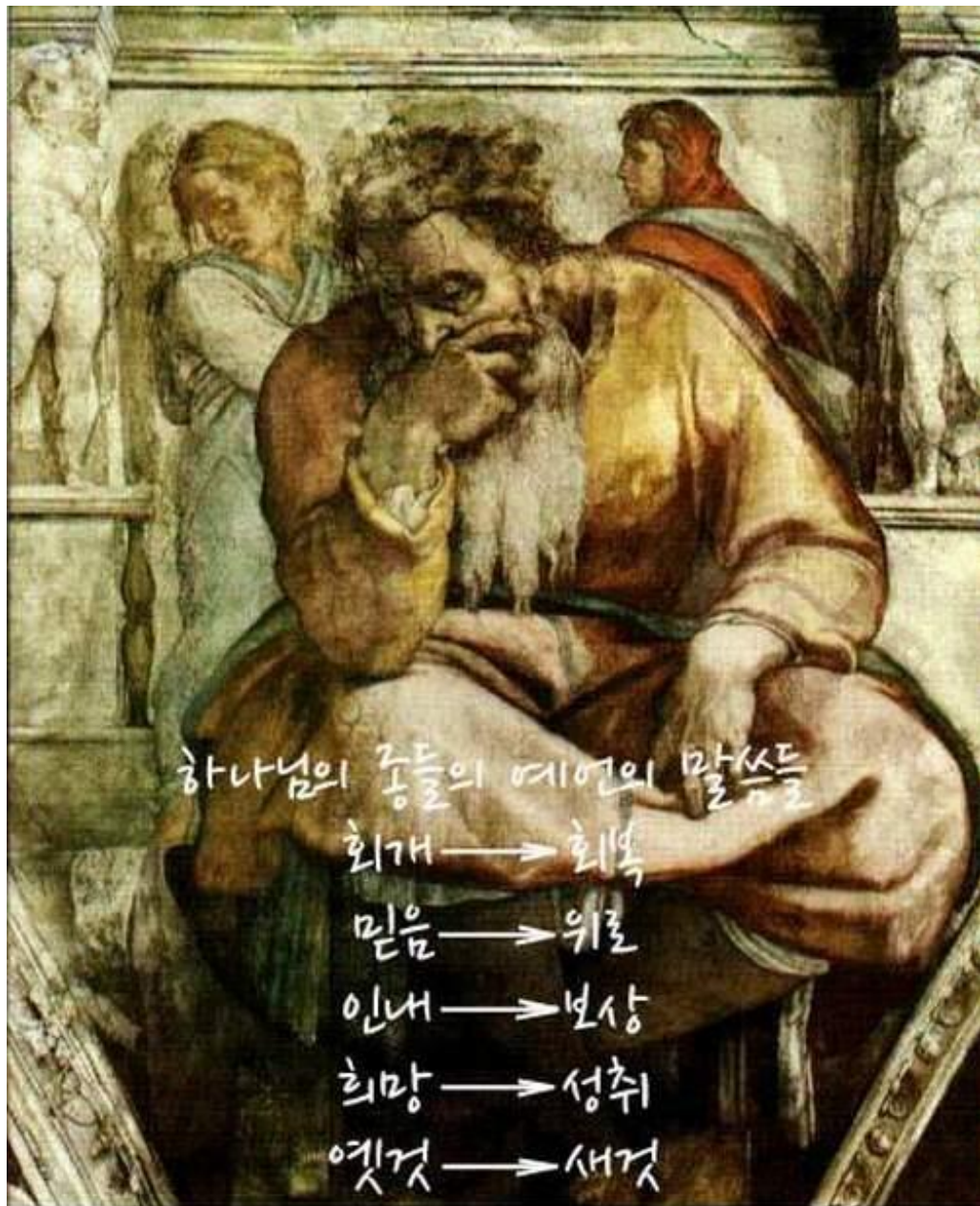
## ● 계시록의 주제

-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둘째는 거짓선지자의 이단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
-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언제나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칼의 박해(적그리스도)와 내부적으로 이단의 거짓 교리(666)에 맞서야 했었다.

# 계시록의 저자, 기록연대, 목적, 주제

## ● 계시록의 주제

-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칼의 박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거짓선지자의 도전과 관련해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박해자들에게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의 말씀

회개 → 회복

믿음 → 위로

인내 → 보상

희망 → 성취

옛것 → 새것

예언자 예레미야 (미켈란젤로, 1511년)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005

##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 승리자 하나님: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 요한계시록의 구조적인 틀: 반복과 분리

- 그리스도인: 하나님(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구원의 대상, 최후 승리(영광, 월계관)
- 박해자, 냉담자: 적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심판과 재앙의 대상, 최후 패배(불 못)

# 요한계시록의 구조적인 틀: 반복과 분리

- 계시록은 7이란 숫자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 네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개의 환상은 총 일곱 장의 압축된 그림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1화 (畫)	제2화 (畫)	제3화 (畫)	제4화 (畫)	제5화 (畫)	제6화 (畫)	제7화 (畫)		
머리말	천상	인자 1:19-20	보좌방 4-5장	큰무리 7장	큰무리 14-15장	중간 계시 10-13장	주의재림 19장	새하늘 과 새땅 21-22 장	맺는말	
	지상	일곱교회 2-3장	일곱인 6장	나팔 재앙 8-9장	대접 재앙 16장	중간 계시 17-18장	천년왕국 2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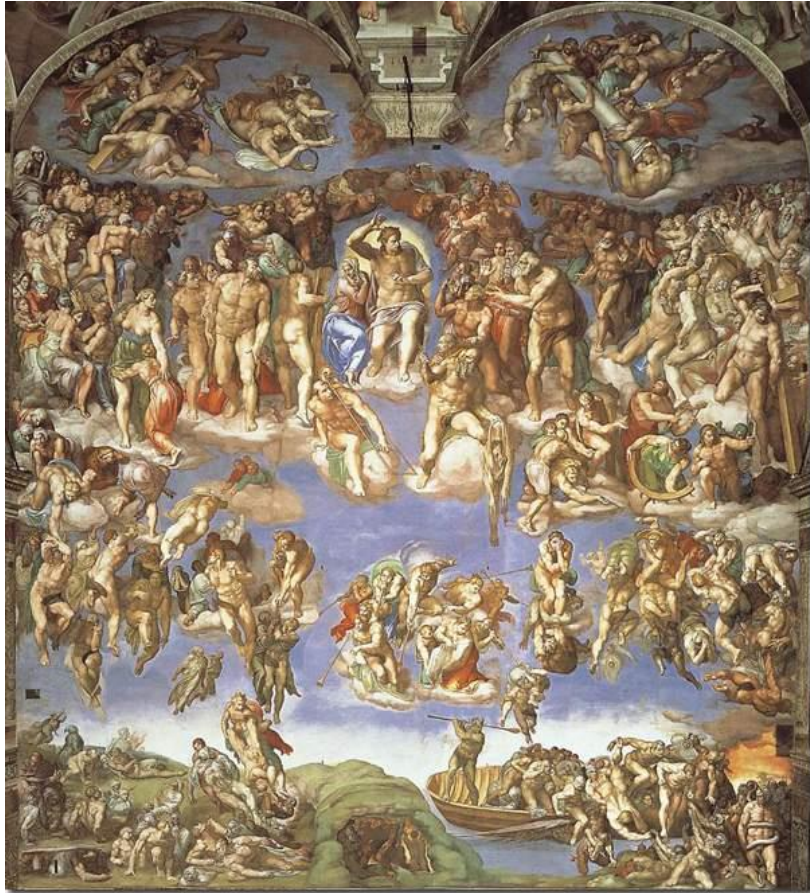
머리말	천상	제1화 (畵) 인자 1:19-20	제2화 (畵) 보좌방 4-5장	제3화 (畵) 큰무리 7장	제4화 (畵) 큰무리 14-15장	제5화 (畵) 중간 계시 10-13장	제6화 (畵) 주의재림 19장	제7화 (畵) 새하늘 과 새땅 21-22 장	맺는말
	지상	일곱 교회 2-3장	일곱인 6장	나팔 재앙 8-9장	대접 재앙 16장	중간 계시 17-18장	천년왕국 20장		

## 계시록의 구조: 반복과 분리

- 환난은 성도의 인내와 연단과 소망성취를 위한 것이고, 재앙은 박해자들로부터 성도를 구출하려고 적대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이다. 예: 출애굽사건
- 계시록의 4개의 환상은 사건의 반복과 천상(구원)과 지상(환난과 재앙)으로 분리(Recapitulation)되는 일곱 장의 그림들로 설명될 수 있다. 예: 다음의 그림들.



최후의 심판(Stefan Lochner, c. 1435,  
Wallraf-Richartz Museum, Cologne 콜른, 독일)  
독자의 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천성으로 들어  
가는 모습이고, 독자의 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시스티나 성당(Sistine chapel)의 제단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 벽화.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가 1536년에 그리기 시작하여 1541년에 완성한 '최후의 심판'이란 제목의 작품이다. \*이 그림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층부의 그리스도를 좌우에서 응위한 인물들은 사도와 순교자들과 성도들이다. 하층부는 죽음의 세계(음부)로서 그리스도의 우측(독자의 좌측)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하는 모습이고, 그 위 중간층은 부활한 성도들이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옮겨지는 모습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좌측(독자의 우측) 하층부는 지옥의 모습으로써 벋섯사공 카론이 혼령들을 실어다가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와 마귀들에게 보내는 모습이고, 그 위 중간층은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이마에 땀이 난 저승사자들이 지옥으로 보내야 할 사람들을 붙잡아 끌러내리는 모습이다.



INDE VENTVRVS EST IVDICARE VIVOS ET MORTVOS.  
*Al. de Vos inuent. Adriaen Collaert, fculp et exc.*

아드리엔 콜레르트(Adriaen collaert, c. 1560-1618)의 '최후의 심판' 판화. 콜레르트는 플랑드르(Flanders)의 디자이너 겸 판화조각사였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동일한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좌우에 응위한 인물들은 사도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하층부는 죽음의 세계(음부)로서 그리스도의 우측(독자의 좌측)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하여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옮겨지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좌측(독자의 우측)은 저승사자들에게 붙잡혀 지옥 불에 던져지는 모습이다. 하단 난외에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INDE VENTVRVS EST IVDICARE VIVOS ET MORTVOS)는 사도신경의 한 소절이 적혀있다.



최후의 심판(Viktor Mikhaylovich Vasnetsov, 1904, 러시아)  
독자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성에 오르는 모습이고, 독자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복보좌 심판(William Blake, 1808)  
 로버트 블레이크의 시 '무덤' (The Grave)에 삽입된 삽화로써  
 독자의 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독자의 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우측(독자의 좌측)에는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을,  
좌측에는 마귀와 해골과 뼈를 비롯한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을 묘사  
하였다. 양쪽 문설주에 새긴 위(천국)를 향하고 있는 인물들과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우측(독자의 좌측)에 조각된 인물들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과 성도들이고, 양쪽 문좌에 새긴 지옥으로 추락하는 인물들과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좌측(독자의 우측)에 조각된 마귀와 해골과  
뼈와 함께 한 인물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단테의  
<신곡>에 따르면, 저주받은 영혼들은 카론의 바닷없는 소가죽 배에  
싣혀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에게 보내지게 되고, 미노스는 그들을 죄값에  
따라 분류하여 9개의 등급으로 나뉜 지옥의 계곡들로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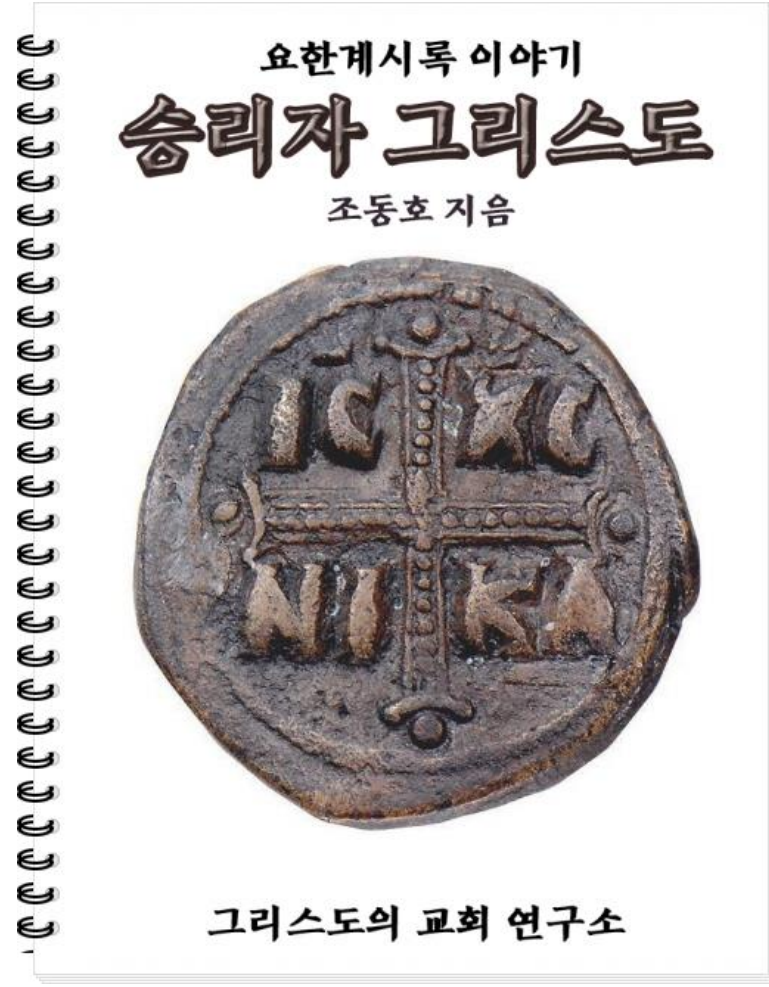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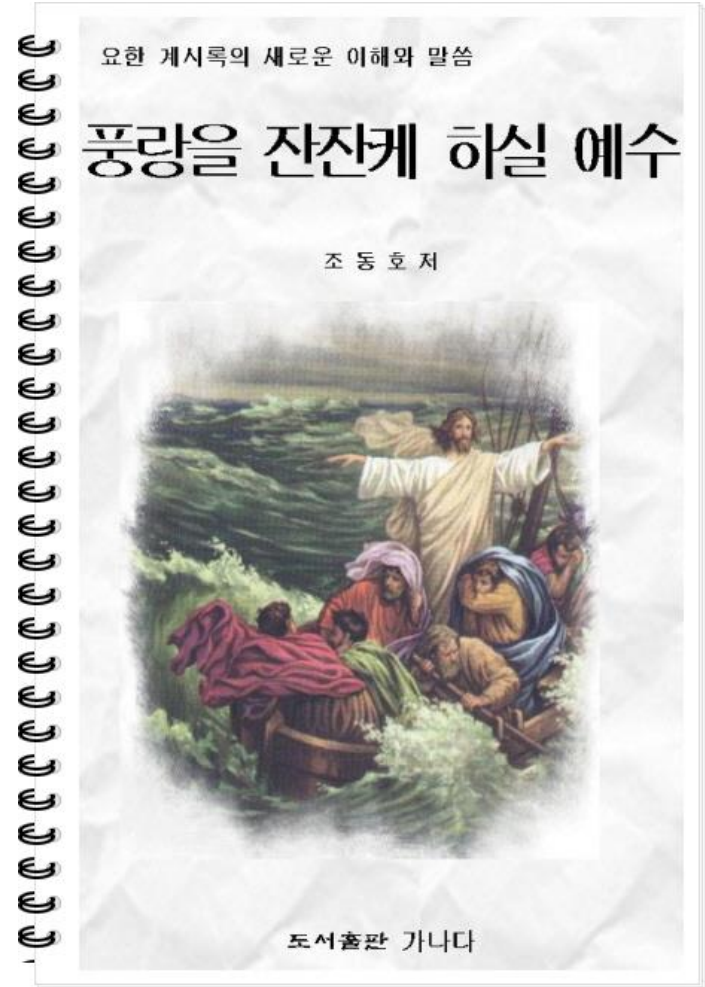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  
 로댕은 오른쪽(독자의 왼쪽) 문쪽에 음모와 탐욕과 배반이 가득한 자들이 가는 제9계곡과 정복(애욕)의 범 죄자들이 가는 제2계곡을 묘사하였다. 상단의 조각상은 제9계곡에서 기아로 고통을 겪는 '우글리노와 그의 자녀들'이고, 하단의 조각상은 제2계곡에서 금지된 사랑에 몰부림치는 시동생 파올로(Paolo)와 형수인 프란체스카(Francesca)이다.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  
 로댕은 양쪽 문 상단에 지옥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을 묘사하였고, 왼쪽(독자의 오른쪽) 문쪽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고통의 세계를 묘사한 '허무한 사랑' (Fugit Amor, 도망친 사랑) 등을 조각하였다.

머리말(1:1-11)		
1	천상(1:19-20)	인자의 환상/ 능력의 주님, 교회의 머리, 성도의 구세주
	지상(2-3장)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 박해와 고난
2	천상(4-5장)	하늘 보좌 방과 전경/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지상(6장)	일곱 인(역사의 악순환), 고해 같은 세상
3	천상(7장)	이스라엘 자손 중 인 맞은 자 십사만 사천명과 구원받은 큰 무리/ 큰 환난에서 구원
	지상(8-9장; 11:15-19)	일곱 나팔 재앙/ 저주와 심판

4	천상(14-15장)	십사만 사천 명과 심판/ 천국과 지옥
	지상(16장)	일곱 대접 재앙/ 극심한 저주와 심판
5	중간계시 (10-13장)	대 환난/ 목자와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삼년 육개월의 박해와 고난
	중간계시 (17-18장)	대 심판/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6	천상(19장-20: 3)	만 왕의 왕 만주의 주 재림과 심판/두 짐승 이 유향 못에 들어가고 사단이 갇힘
	지상(20:4-15)	천년 왕국과 백 보좌 심판/ 사단이 유향 못 에 들어감
7	천상과 지상 (21:1-22:5)	새 하늘과 새 땅/ 천상과 지상의 통합/영원 한 안식
맺는 말(22:6-21)		



[with\\_home > history >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이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 \(kccs.info\)](http://kccs.info/nt27.htm)  
<http://kccs.info/nt27.htm>

제1화  
1-3장  
인자와 일  
곱교회:

구원자와  
성도의 환  
난/고난



폭풍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  
1883년에 출판된 어린이 성경에 실린 삽화



폭풍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  
(William Brassey Hole, 1846-1917)

제2화  
4-6장  
보좌방과  
일곱인:

주관자와  
역사의  
악순환



지구를 감싸 안으신 하나님(Standard Publishing, OH, 1980년대)

제3화  
7-9장  
큰 무리와  
나팔재앙:

구원과  
저주/심판  
33% 강도



계시록 8-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CRANACH, Lucas the Elder의  
공방에서 만든 계시록의 삽화 2장 가운데 하나이다. 일곱 나팔  
재앙을 묘사하였다.

제3화  
7-9장  
큰 무리와  
나팔재앙:

구원과  
저주/심판  
33% 강도



백보좌 심판(William Blake, 1808)

로버트 블레이크의 시 '무덤' (The Grave)에 삽입된 삽화로써  
독자의 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독자의 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제4화  
14-16장  
큰 무리와  
대접재앙:**

**구원과  
저주/심판  
100% 강도**



제4화  
14-16장  
큰 무리와  
대접재앙:

구원과  
저주/심판  
100% 강도



최후의 심판(Viktor Mikhaylovich Vasnetsov, 1904, 러시아)  
독자조각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성에 오르는 모습이고, 독자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모습이다.

제5화  
중간계시  
10장

힘센 천사  
미가엘(?)



계시록 10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퍼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선 힘센 천사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11장 11-14절(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성전 축적, 두 증인, 용이 묘사되었다.

## 제5화 중간계시 11-13장

## 성도의 짧은 환난 3년6개월



계시록 12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발 아래에 달걀,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해를 입은 여인과 일곱 머리 열 벌과 일곱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17장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Anthuenis claei-  
ssins (Flemish, 1536-1613)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큰 바벨론의 큰 음녀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탄 모습이다.

## 제5화 중간계시 17-18장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일  
곱 머리 열 뿔  
짐승=제국과  
황제들)의  
심판과 멸망



계시록 18-1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주의 재림을 묘사하였다.

# 제6화 19-20장

## 주의 재림과 천년 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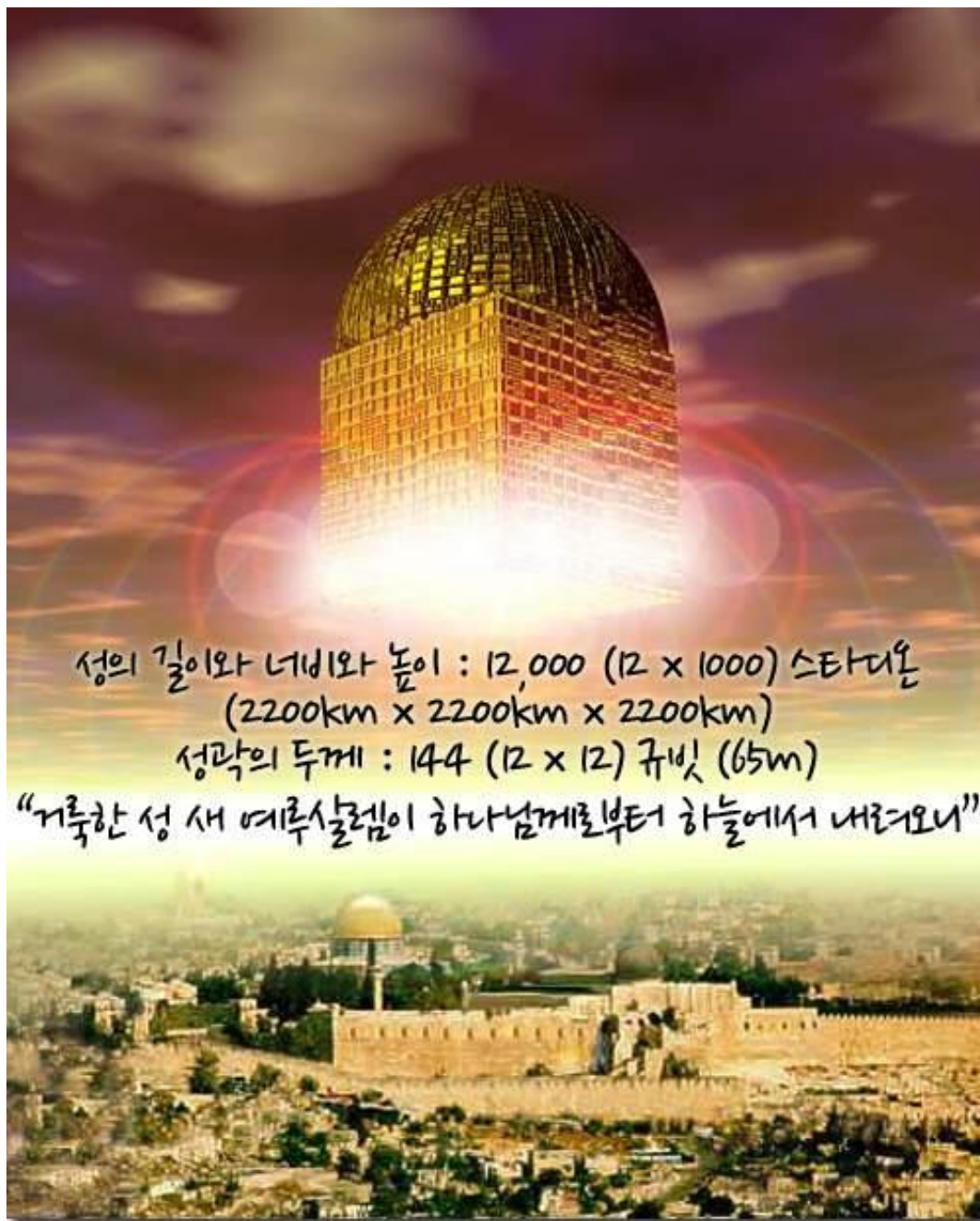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 제7화 21-22장

##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상상도

## 요한계시록의 구조적인 틀: 반복과 분리

- 그리스도인: 하나님(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구원의 대상, 최후 승리(영광, 월계관)
- 박해자, 냉담자: 적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심판과 재앙의 대상, 최후 패배(불 못)

##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 승리자 하나님: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006

## 요한계시록 1장 1절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묵시록의 성격

-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는 말씀은 요한 계시록의 성격을 특징짓는 선언이다.
- 먼저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선언한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묵시록의 성격

- 둘째로 그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한다.
- 셋째로 그 계시를 천사에게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한다.
- 넷째로 그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한 메신저가 천사임을 선언한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다섯째로 그 계시를 기록한 인물이 요한임을 선언한다.
- 이로써 요한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계시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하여 기록으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언하였다.
- 이것은 광야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하였고(참고: 행 7:38,35; 갈 3:19; 히 2:2), 천사로부터 전달받아 기록한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토라(Torah) 또는 계명들(Mitzvot)임을 선언한 것에 비교된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하나님 → 그리스도 → 천사 → 요한  
→ 교회 = 계시록

하나님 → 천사 → 모세 → 이스라엘  
= 토라(Torah)/계명(Mitzvot)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그러나 여기서 ‘계시’란 말은 ‘묵시’란 뜻을 더 강하게 내포한 말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에서 ‘계시’란 말은 헬라어 단어 ‘아포카뤼프시스’(Ἀποκάλυψις)로써 ἀπο( ~로부터 멀리)와 καλυπτω(덮는다. 감춘다)의 합성어이며, ‘베일을 벗긴다,’ ‘숨은 것을 드러낸다,’ ‘비밀이었던 것이 밝혀진다,’ ‘숨겨진 것이 폭로 된다’는 뜻이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아포카립시스’ (Ἀποκάλυψις)는 문자적 의미의 ‘계시’란 뜻보다는 ‘묵시’란 뜻으로 쓰이며, 문학 장르의 하나인 ‘묵시문학’에 주로 쓰인다.
-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묵시문학에 해당된다.

-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계시적 성격이나 예언적 성격이 없지 않다. 그래서 ‘계시록’ 혹은 ‘예언서’ 혹은 ‘묵시록’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묵시록의 성격

- 묵시록은 스토리로 엮어진 긴 글이면서 ‘희망’과 ‘인내’와 최후승리와 최후심판을 다룬다.
- 따라서 묵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과 동터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승리, 즉 장차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구원과 축복들에 대해서 말한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묵시록의 성격

- 유대교적 배경에서 보면, ‘올람 하바’(Olam Ha-Ba)에 대한 ‘하티크바’(Ha-Tikvah) 곧 **‘다가올 세상’에 대한 ‘희망’**에서 찾을 수 있다.
- 묵시록은 영화나 비디오가 없던 먼 옛날에 **극장무대에 올린 드라마**와 같아서 **다가올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고대 에베소의  
항구거리  
(Arcadiane  
St,  
11M x 500M)**

**에베소 극장:  
32,000석  
H30 x W142M**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그리고 각각의 드라마는, 마치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예:

- 백색=선(善), 적색=악(惡)
- 숫자 7 = 온전, 충만; 숫자 6 = 부족, 타락
- 제국들, 제왕들 = 짐승들(수호신들: 라마수, 스프링크스, 그리핀. 비교: 그룹=케루빔)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묵시록의 성격

- 계시록의 상징들과 형상들은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에 나오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유대교 묵시록들**은 고대 바빌론과 페르시아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이스라엘나라의 회복**이란 **희망**에 연결되어 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교회(나라)의 최후 승리라는 희망에 연결되어 있다.**
- 이것이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올람 하 바’ (Olam Ha-Ba)에 대한 ‘하티크바’ (Ha-Tikvah) 곧 ‘다가올 세상’에 대한 아주 오랜 ‘희망’**이다 (오랜 고난, 오랜 외로움, 오랜 출렁임, 오랜 헛수고, 오랜 배고픔, 오랜 질병에서 해방되어 **참 안식을 누림**에 대한 희망).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예언과 묵시의 관계

- **예언**(Prophecy)과 **묵시**(Apocalypse)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 **첫 번째로** 예언자들은 시내산 언약의 내용(Torah, 계명들)을 성찰한 해석자들이었고,
- 묵시록 저자들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성찰한 해석자들이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두 번째로 예언은 단편적인 글인데 반해서 묵시록은 사상체계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춘 글이다.
- 세 번째로 예언은 그 목표가 (유대)민족적인데 반해 묵시록은 개인적이다.
- 신학자 몰트만은 **예언을 민족경륜으로 묵시록을 시대 경륜으로 분류하였다.**
- 따라서 예언은 언제나 현재 상황에서 시대 요청에 부응했고, 묵시록은 역사성을 무시한 채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네 번째로 예언과 묵시록의 형성 시기는 각각 다르다.
- 예언은 주로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 전후 주전 8세기와 바벨론유배전후시대인 주전 7-5세기로 볼 수 있으나 (북 이스라엘 왕국과 남 유다 왕국의 멸망 전후),
- 묵시록은 주전 2세기에서 주후 1세기 말까지로 볼 수 있다(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중간기).
- 다섯 번째로 예언은 본명으로 쓰였고, 대개의 묵시록은 가명으로 쓰였다. 가명을 쓴 이유는 글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거나, 박해 때문이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예언과 묵시의 공통점

- **첫 번째로** 예언과 묵시는 하나님의 뜻을 민중에게 전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예언에서는 민중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묵시에서는 세상에서 좌절한 민중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 **두 번째로** 예언과 묵시는 박해나 배교의 위기에서 나왔다라는 점에서 같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예언과 묵시의 공통점

- 세 번째로 예언과 묵시는 점차적으로 전 세계, 전 역사의 운명을 논한다는 점에서 같다. 회개와 회복을 논한다는 점에서도 같다. 그러나 예언에서는 주로 회개와 사회개조를 부르짖고, 묵시에서는 우주의 개조와 천상의 비밀을 공개한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예언과 묵시의 공통점

- 네 번째로 예언과 묵시는 목적과 시대환경과 방향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 예언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 을 듣는 자들이고, 묵시록 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들이다.
- 다섯 번째로 예언자나 묵시록 저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신의 영감, 곧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경험한 자들**이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묵시와 종말의 차이점

- **종말**은 ‘끝’이라는 말에서 왔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의미한다. 그러나 **묵시**는 종말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적인 현상을 말한다.
- 그러므로 **종말**은 시간의 문제이고, **묵시**는 종말의 시간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문제이다.
- **신약성경에서의 종말론**은 유대교의 미래종말론이나 일부 기독교인들의 시한부종말론과 크게 다르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신약성경 종말론의 특징은 현재종말론이다. **현재종말론이란** 종말이 성령의 오심과 능력으로 '이미' 지상의 교회 안에서 출범했다는 가르침이다. 이를 다른 말로 **'시작된 종말'**이라고 부른다.
- **유대교에는 이 시작된 종말론이 없다.** 신약성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미래종말을 여전히 희망한다는 점에서 묵시문학사상에 한발을 걸쳐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묵시문학사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바울은 로마서에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승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삶속에서 이미 영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종말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현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언할 수 있으며, 환란과 핍박을 막연히 견디거나 종말의 축복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며 바랄 수 있다고 하였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계시와 묵시와의 관계

- ‘계시’(啓示)는 초월자 하나님의 현현(顯現)을 의미한다.
- **현현(顯現)이란 변신(變身, Theophany)과 거의 같은 뜻이다.** 하나님은 다양한 변신으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계시의 모습은 변신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참 모습이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육적으로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모습을 말한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계시와 묵시와의 관계

- 그리스신화를 빌리면 계시가 무엇인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 올림포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는 난봉꾼**으로서 여신들 뿐 아니라, 인간의 딸들까지 넘보곤 했다. **번개였던 제우스가 자신의 본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날 경우, 인간은 새까맣게 타 죽고 만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그래서 백조나 황소나 건장한 미남 청년으로 변신해서 인간 세상에 나타나 알크메네, 세멜레, 에우로페와 같은 인간 여성들을 꼬드겨서 임신을 시키곤 했는데, 그들의 아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알키데스(헤라클레스), 디오니소스, 미노스이다.
- 디오니소스를 임신한 세멜레는 유모로 변신해서 인간 세상에 나타난 헤라에게 속아서 제우스에게 스틱스강에 맹세케 하고 본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청한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죽음의 세계인 음부 한가운데를 흐르는 증오의 강인 스틱스강에 대고 맹세하면, 제우스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어서 제우스는 세멜레 앞에 번개로 나타나게 되고, 세멜레는 디오니소스를 임신한 채로 새까맣게 타 죽고 만다.
- 제우스는 5개월밖에 안된 디오니소스를 세멜레한테서 끄집어내어 자신의 허벅지 속에 숨겨 남은 5개월을 채워 출산 시켰다고 한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계시와 묵시와의 관계

- 그리스신화에서 보듯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형태의 변신한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 첫 번째 계시의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성경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인다.
- 두 번째 계시의 형태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속성들을 드러내셨다. 예수님 안에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발견된다.
- 세 번째 계시의 형태는 인간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깊은 것조차 통달하시는 성령님은 (고전 2:10)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일깨워준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계시와 묵시와의 관계

- 네 번째 계시의 형태는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모습도 계시의 한 형태이다.
- 다섯 번째 계시의 형태는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들이다. 만물을 존재케 하신 창조사건, 출애굽사건과 십자가사건과 같은 구원사건이 계시적 사건들이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이 밖에도 모세시대의 구름기둥, 불기둥, 불붙는 떨기 나무, 모세에게 보인 하나님의 등(출 33:23), 예수님의 부활사건, 능력 행하심이 다 계시적 사건들이다.
- 이런 다섯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의 글이다. 계시록이 하나님의 역사 경륜과 계획을 환상과 말씀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007

## 요한계시록 1장 2-3절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본 대로 들은 대로 전달한 요한

- 계시록 1장 3절은 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 무엇보다도 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촉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본 대로 들은 대로 전달한 요한

- 계시록 1장 2절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 **첫째, 저자 = 요한(사도/장로)**이란 것을 알 수 있고;
- **둘째, 요한은 자기가 본 것 =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자기가 본 것**’이란 말의 몇 가지 중요한 의미.
- 첫째는 그것이 객관적이라는 점이다.
-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견해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증언한 것이라는 점이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둘째는 본대로 증언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본 것,’ ‘본 바,’ ‘본’(seen) 또는 ‘보았는 데’와 같은 단어들 **이 많다.**
-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것,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경험을 섞지 않는 순수함과 겸손함이 필요하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구약성경에서는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로에,’ ‘호제’ 또는 ‘나비’라고 하는데, ‘로에’와 ‘호제’는 ‘보는 자’(seer)란 뜻으로써 선지자/선견자를 의미했다 (삼상 9:6; 삼하 24).
- 선지자나 선견자는 자기 자신의 선견 또는 자기가 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보여주신 것(렘 24:1; 겔 37:1; 암 7:1; 슥 3:1)을 전하였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그리고 예언자시대가 진행되어갈수록 예언자는 ‘로에’(ro'eh)나 ‘호제’(chozeh)보다는 **‘나비’(Nabi)**라고 불렸다.
- **‘나비’는 ‘전하는 자’ 또는 ‘대언자’란 뜻**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전하거나 말한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들려주신 것을 전하였다.**
- 예언을 받는 형식이 환상에서 말씀으로, 눈으로 보는 것에서 귀로 듣는 것으로 바뀌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해석가로서의 요한

- 첫째, 요한은 삶의 해석자였다.
- 요한은 사건사고들을 우연이나 숙명으로 보지 않고, 재수나 운수로 해석치 않고, 믿음의 눈으로 풀이하였다. 발생하는 일들을 인간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에 의한 사건들로 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해석가로서의 요한

- 둘째, 요한은 역사해석자였다.
-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들을 찾아내고 그 뜻을 읽어냈다.
-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일들의 의미를 신앙의 눈으로 읽어내고, 신앙의 귀로 듣고, 신앙의 입술로 고백하는 영성이 있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해석가로서의 요한

- 셋째, 요한은 성경해석자였다.
- 요한은 구약성경에 실린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해냄으로써 박해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당대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짜 놓으신 우주를 향한 경륜과 계획을 밝혀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해석가로서의 요한

- 넷째, 요한은 비전을 품은 지도자였다.
-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구원의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향한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철저하고 끈질기며 변치 않는 믿음을 요구하였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해석가로서의 성경 저자들

- 성경 저자들은 전승의 해석자들, 조상 때부터 전해진 가르침의 해석자들이었다.
- 구약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예언자들은  시내산 언약과 같은 계약전승들을 표준잣대로 삼았고, 급변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야훼의 뜻을 밝히고 응답을 촉구할 목적으로 계약전승들을 해석하였다.
- 이스라엘은 혈통보다는 계약(구약)의 백성이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해석가로서의 성경 저자들

- 바울도 사도전승, 특히 안디옥 교회 전통들을 해석해 냄으로써 이전 시대에 밝혀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 곧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밝혀냈다.
-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선별하고 충실하게 해석한 전도자들이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해석가로서의 성경 저자들

- 이단의 침투와 기독교박해로 인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배교의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또 제도와 질서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주옥 같은 말씀들과 권세 있는 발자취는 신앙인들을 권면하고 의로 교육할 최상의 자료였다.
- 그리스도인들은 혈통보다는 복음(신약)의 백성이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해석가로서의 성경 저자들

-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이 영영 응답하실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실 것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지도자들이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해석가로서의 성경 저자들

- 성경 저자들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었다.
- 예를 들어 **이사야**는 잘려버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환상을 보았고(사 6:13; 11:1,10), **에스겔**은 골짜기에 쌓인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다(겔 37:1-10).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해석가로서의 성경 저자들

- 복음서 저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광풍(마귀, 용/龍)**이 결코 '교회'(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란 이름의 작은 배를 침몰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다(막 4:35-41).

# 바다의 용: 티아마트 (바벨론)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폭풍)의 신이자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두크(Marduk)가 혼돈(흑암)과 바다물의 여신이자 바다의 용인 티아마트(Tiamat)를 버락으로 공격하는 바벨론의 부조(대영 박물관)

바다의  
용:  
용을  
부리는  
포세이돈  
(그리스  
로마)



바다와 폭풍의 신 포세이돈이 바다와 폭풍의 상징인 용을 부리는 동전.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는 폭풍의 신 포세이돈의 저주로 10년간 바다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새긴 마케도니아 왕국의 데메트리우스 1세 폴리오르케테스 왕의 테트라크램(300-295BC)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해석가로서의 요한

-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광풍노도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후 승리의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 15장)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 예수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보았다(계 15:2,3).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해석가로서의 요한

- 요한은 박해세력들이 홍해의 거친 파도 속에(출 15장), 불과 유황과 연기 속에(창 19장), 범람하는 홍수 속에(창 6-8장), 심판의 재앙 속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구약성경의 사건들 속에서 보았다.

## 해석가로서의 그리스도인

- 역사에는 **순수역사(historie)**와 **해석의 역사(geschichte)**가 있다.
- **순수역사**는 사건 그대로의 보도 즉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조사탐구해서 보도한 사실적 기록을 말하고,
- **해석의 역사**는 사건이 주는 교훈과 뜻, 또는 의미와 해석을 가미한 기록을 말한다.

## 해석가로서의 그리스도인

- 연출뉴스나 가짜뉴스가 많은 세상이기는 하지만, **뉴스보도가 순수역사에 해당될 수 있다.**
- 반면에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연구>나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는 **해석의 역사에 해당될 수 있다.**

## 해석가로서의 그리스도인

- 함석헌은 해석의 역사를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골라진 사실들에 대한 뜻풀이라고 했고,
- 그 뜻풀이에 역사는 생명을 갖는다고 했으며,
- 역사가의 능력은 해석하는 힘에 있다고 하였다.

## 해석가로서의 그리스도인

- 따라서 잘된 역사책은 정신을 밝혀주는 글이요,
- 잘하는 역사독법(歷史讀法)도 정신을 읽어내는 해석에 있다고 하면서 “이 해석하는 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역사를 아는데 깊고 얇은 차이가 생긴다.”고 하였다.
-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해석(믿음)의 역사이다.

## 해석가로서의 그리스도인

- 함석헌 선생은 이 해석의 역사를 요리사의 맛난 요리와 화가의 그림에 비교하였고, 이런 식의 역사가를 요리사와 화가에 비교하였다.
- 잘된 역사란 재료를 잘 배합하여 깊은 의미를 담아낸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 해석가로서의 그리스도인

- 해석이 없는 역사기술은 밥그릇에 익히지도 아니한 쌀을 담고, 무 파 배추 등을 조리도 하지 아니한 채 상에 차려 내놓고 맛있게 먹으라고 말하는 무정한 요리사와 같다고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사>에서 말하였다.

## 해석가로서의 그리스도인

- 그리스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성경말씀을 기준(표준, evaluation criteria)과 잣대(canon)로 세상을 바라보고 옳고 그름과 가치를 판단하는 해석가들이다.
-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 주의 만찬 명상문(계 3: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이었던 **블레셋** (Philistines → Palestine/**팔레스타인**)은 철기 도구와 무기를 사용한 **에게** **해역**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 **연안 평야**를 점령한 **해양 민족**이었다.

## 주의 만찬 명상문(계 3:3)

- 왕이 없던 이스라엘은 동맹체제로서 지파의 독립성이 강했다.
- 반면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언약궤와 유일한 통치자이신 야훼를 모시고 있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다(신정통치).
- 그 중앙 성소가 실로에 있었다.



## 주의 만찬 명상문(계 3:3)

-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 그때 언약궤가 블레셋에 넘어갔고
-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 죽었다.



법궤와 속죄소  
출처: Moshe Levine's book,  
"The Tabernacle". Published by  
Soncino Press, Brooklyn, NY.



로마의 문장  
로마군단은 하늘  
과 지상의 왕(독  
수리+사자 수호  
신=**그리핀**)이 수  
호하는 부대이다.  
로마군단의 기수  
는 사자 가죽을  
쓰고 독수리 깃  
대를 들었다.

법궤는 야훼의 보좌(발등상). 이스라엘을 위  
해서 싸우시는 야훼 임재의 상징(문장).



**로마를 헤라클레스와 동일시한 데나리온 (80 BC).**

**전면:** 여신 로마가 **그리핀(독수리+사자)**이 장식된 투구를 쓰고 있다.

**뒷면:** 헤라클레스가 네메아의 사자를 목 졸라 죽이는 모습.

# 콘스탄티누스/비잔틴시대의 그리스도교 문장



콘스탄티누스 대제(AD 272-337)의 라바룸 주화(AD 337) 전면에 월계관을 장식한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CONSTANTINVS MAX AVG)라고 썼다. 뒷면에 뱀을 찍어 누른 라바룸(LABARUM)을 새겼고, 좌우에 '대중의 희망 콘스탄티누스' (SPES PVBLICA CONS)라고 썼다. 라바룸 상단에 '그리스도' (XPISTOS)의 첫 두 글자 키(X)와 로(P)를 겹쳐서 장식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꿈에서 IN HOC SIGNO VINCES(이 표식으로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는 음성을 듣고, 이 라바룸을 312년 10월 28일 밀비우스 다리 전투 때 처음 사용하여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마그네티우스 로마황제의 주화(MAGNENTIVS, AD 350-353) 전면에 동체갑옷을 입은 마그네티우스를 새겼고, 우리 주 마그네티우스 경건하고 대복한 아우구스투스(DN MAGNENTIVS PF AVG)라고 썼으며, 뒷면에 키로(chi-rho)를 새겼고, 그 사이에 알파(A)와 오메가(W)를 둘레에 우리의 고귀하신 아우구스투스와 카이사르의 강건 (SALVS DD NN AVG ET CAES)이라고 썼다.

# 비잔틴시대의 그리스도교 문장



베트라니오 로마황제의 주화(AD 350)  
 전면에 월계관을 쓰고, 동체갑옷을 입은 베트라니오(Vespasian, AD 350)를 새겼고, 뒷면에 우리의 주 베트라니오 경건하고 다복한 아우구스투스(DN VETRANIO PF AVG)라고 썼으며, 뒷면에 손에 군기와 홀을 쥐는 베트라니오에게 여신 승리(Nike)가 월계관을 씌우는 장면을 새겼고, 뒷면에 "이 표식(XP)으로 너는 승리가 될 것이다" (HOC SIGNO VICTOR ERIS)라고 새겼다. 이 글귀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꿈에 하늘에 나타난 크리스토폴라움(XP)을 본 직후 들은 음성이다.



비잔틴시대의 주화(미카엘 4세, AD 1034-41)  
 전면에 왼손으로 복음서를 안고, 오른손으로 강복하시는 예수님을 새겼고, 좌측에 예수(IC)를, 오른쪽에 그리스도(XC)를 새겼으며,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IC XC NIKA)라고 새겼다.

## 주의 만찬 명상문

-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하였지만 이스라엘을 결코 장악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야훼신앙** 때문이었다.
-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위기에 처하면** 놀랍게도 야훼신앙이 활력을 띠었다.
- **야훼는 그 어떤 세력에도 꺾이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가 야훼의 패배는 아니라고 믿었다.

## 주의 만찬 명상문

-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단련시켜 최후 승리를 안겨준다고 믿었다.
- 이스라엘에게 위기는 회개하여 야훼께 대한 충성을 쇄신할 기회였다.

- 이 신앙의 쇄신이 긴 고난의 세월을 걸어온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게 한 힘의 원천이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008

## 요한계시록 1장 3절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황제 메시아 시대

-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카비루스 숭배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황제 숭배가 도입되었고, 사람들은 카비루스가 카이사르의 몸으로 환생했다고 믿기에 이르렀다.
- 이후 황제 숭배는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드로아의 비류티스(Biryttis)에서 주전 350-250년 사이에 발행된 주화.  
전면에 부드러운 토클모자(pileus)를 쓴 카비로스(Kabiros)가 두 개의 별과  
함께 부조되었고, 후면에는 화환 속에 곤봉과 문자 'BIRY'가 부조되었다.



데살로니가의 구리 동전(2세기)  
데살로니가의 보호신인 카비루스가 새겨져 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카비루스 신앙

- 권리박탈자들을 변호하다가 자신의 두 형제에게 살해된 카비루스(Cabirus)에서 유래되었다.
- 하층민들은 카비루스가 생전에 기적을 행하였고, 때때로 은밀히 **환생하여** 사람들을 돕는다고 믿었으며, 장차 **재림하여** 하층민들에게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고, 도시를 지난날의 독립과 영광으로 회복시켜 줄 것으로 믿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카비루스 신앙

- 흥미로운 것은 카비루스종파의 예배가 **카비루스의 순교를 기념하는 피의 제사**였다는 점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쓴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의 피에 참여함”**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계급의 구별을 없었다. 카비루스종파에서는 모든 사회계급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디오니소스 종파

- 3만이 넘는 신들을 믿었던 헬라인들은 참신에 대한 갈망이 컸다. 헬라의 신들은 능력을 행하고 죽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상당수가 인간들보다 훨씬 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었다. 이로 인해서 **헬라인들의 상당수가 이 헛된 신들과 공허한 철학에 환멸을 느꼈고**, 유대교의 윤리도덕적인 유일신에 큰 반응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유력한 헬라인들이 **‘하나님 경외자’**의 신분으로 유대교회당에서 하루 세 번씩 갖는 기도회에 참석하였다. 바울이 전한 기독교 복음이 이들 하나님 경외자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켰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디오니소스 종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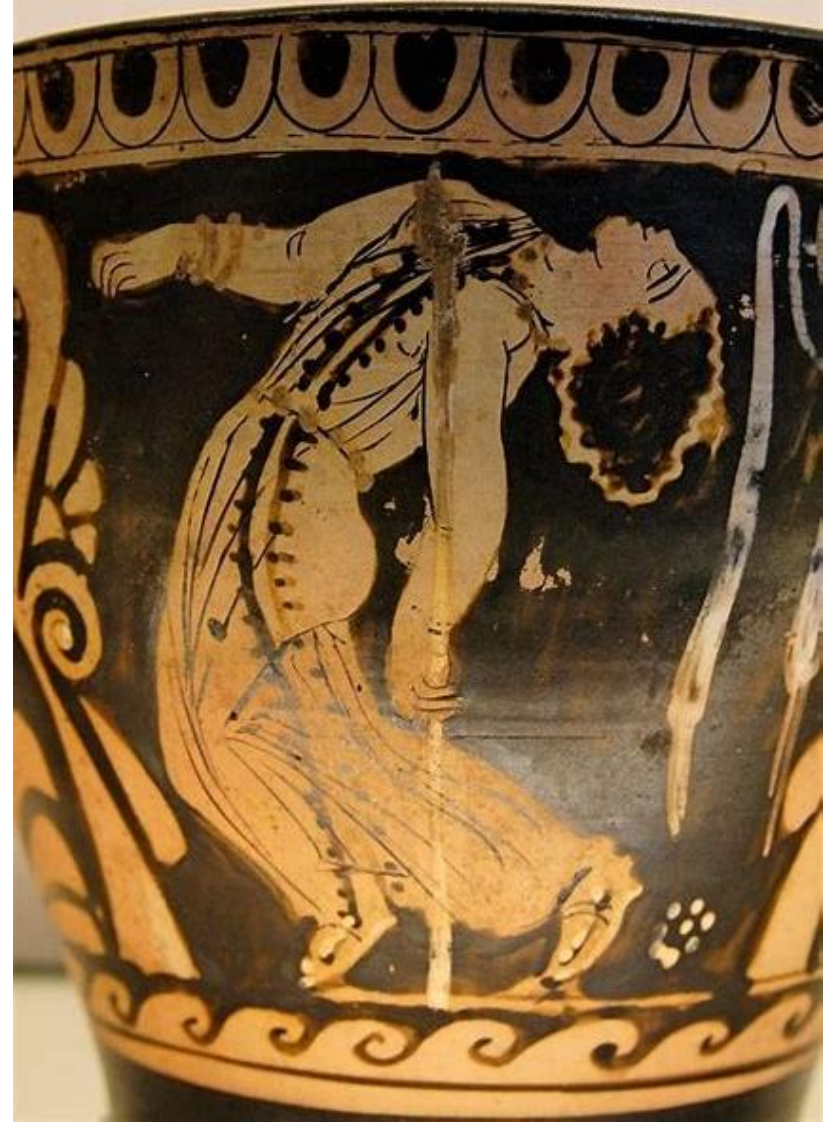
- 디오니소스 예배의 큰 특징은 여성, 곧 여사제(Maenad)들이 주관한다는 점, 숭배자들이 광란상태에서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점, 술 취함과 집단혼음과 광기로 인해서 무질서하다는 점, 날고기를 먹는다는 점이였다. 그들은 술방울과 리본으로 장식한 지팡이를 흔들며 무리 지어 행진하였고, 피리(aulos)와 소고(小鼓) 소리에 맞춰 소고 치고 고함치며 춤(헤드뱅잉)추면서 무아지경에 빠져들었다.



술방울과 리본으로 장식한 디오니소스 지팡이(thyrsos)를  
손에 쥔 여사제가 술에 취해 광한(헤드뱅킹)하는 모습  
(주후 120-140년, 로마시대의 부조: 스페인 마드리드 박물관).  
기도나 예언하는 여성들에게 옷차림을 단정히 할 것과 주의  
만찬을 격식을 갖추어 시행하라는 바울의 권면과 대조를 이룬다



피리소리에 맞춰 소고치며 춤추는 디오니소스 여사제들  
(주전 450년경, 파리 루브르). 이 광란의 축제 때  
억눌려 살던 여성들이 마음의 치유와 해방을 맛보았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디오니소스 종파

- 이 상태에서 그들은 숲속이나 들판으로 나갔고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 동물을 산 채로 찢었으며 그 고기를 뜯어먹고 **피를 마셨다**. 예배 때 여성들과 하류층의 예배자들은 디오니소스가 주는 광기를 통해서 해방감 도취감 황홀감을 맛보았다. 제의 때 참여자들은 술에 만취하여 광란(헤드뱅잉)함으로써 마음속의 응어리를 토해냈는데, 이 디오니소스 제전이 제공한 마음의 치유와 해방감은 본능적 원시적 성적 에너지의 발산과 쾌락에서 온 것이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디오니소스 종파

- 플라톤은 〈파이드로스〉(Phaidros)에서 이런 육체적 광기가 이데아 세계로까지 승화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희망은 바울이 전한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 성취되었다. 바울이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들은 이교들과는 확실히 다른 거룩한 공동체들이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황제숭배 신앙

- 아우구스투스 때 카비루스종파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황제숭배가 도입되었고, 헬라인들은 카비루스가 카이사르의 몸으로 환생했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 황제숭배종파는 로마제국을 통틀어 국교가 되었다. 황제숭배는 로마가 가져다 준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시작되었으나 주전 44년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황제 메시아 시대

- 황제숭배는 로마가 가져다 준 평화(PAX)와 안정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시작되었다.
- 주전 44년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되고 나서 로마의 밤하늘에 한 **혜성**이 나타났는데,
- 로마인들은 이 현상을 시저의 영혼이 사후세계로 옮겨 간 **현시(계시)**라고 믿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황제 메시아 시대

- 2년 후인 주전 42년 제2차 삼두정권(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은 **율리우스 시저를 신격화**하였고, **신전을 건축**하여 그를 기렸다.
- 혜성이 부조된 율리우스 신전(Temple of Divus Julius)은 시저 숭배의 상징물로서 테나리온(은화)에도 장식되었다.



위의 데나리온의 인물은 삼두정치 때의 카이사르 신의 아들(CAESAR DIVI F) 옥타비아누스이고, 율리우스의 동상이 서 있는 4주식 건물은 신성 율리우스(DIVO IVL)의 신전이며, 별은 율리우스의 신성을 현시한 혜성(36BC)이다. 아래의 인물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CAESAR AVGVSTVS)가 된 옥타비아누스이고, 별은 율리우스의 신성(DIVVS IVLIVS)을 현시한 혜성이다(18BC).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이후에 전파된 그리스도교 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디오니소스(바쿠스) 축제, 카비루스 숭배, 황제 숭배, 유대교가 채워주지 못한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었다.
- 그러나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어서 결국 카이사르(황제 메시아)와 그리스도(수난자 메시아) 중의 한 분을 택해야 하는 중대한 시험 대에 오르게 되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황제 메시아 시대

- 아우구스투스(옥타비아누스)이후로는 **황제들의 생전에 그들을 위한 신전들이 건립**되었고,
- 결과적으로 황제숭배는 민중의 충성도를 시험하는 잣대로 돌변하였다.
- 이 사악한 덫에 **우상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걸려들었다.**



**아우구스투스  
(프랑스 비엔)**



**아우구스투스  
(크로아티아 폴라)**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반면에 그리스 로마인들은 그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을 읽을 수 없다.
- 그것은 그들이 다신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그런 그들이 굳이 유일신만을 고집하며 순교를 불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들은 3만이 넘는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황제가 인간이었을지라도, 그들은 황제숭배를 거부할 명분이나 실익을 찾지 못하였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그런 그들이 “신은 한분 뿐이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어떠했을 지를 생각해보면 단박에 짐작할 수 있다.
- 이 주장은 로마제국 전역에 세워진 **각종 신상들과 신전들 및 제단들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 게다가 **황제가 신(神 god) 곧 신성, 신의 아들, 신의 현현(계시)**이라는 주장을 **거부**하는 주장이었다.

-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숭배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황제(아우구스투스)를 섬겨야 하는 로마군대에 입대를 거부하다가 참수당한 사례들이 있었다
- 막시밀리아누스는 295년에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속주도시 테베스테에서 세무공무원이었다. 22세 때 병영세습제로 인해서 신체검사장에 나가 검사관인 군단장겸 총독인 디오에게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키 15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 단신의 막시밀리아누스에게 입대하라는 합격통지를 내렸다. 그러나 막시밀리아누스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입대할 수 없다며 죽음을 무릅쓰고 거부하다가 즉결심판을 받아 참수형에 처해졌다. <참고: 주후 212년 카라칼라 황제의 ‘**안토니누스 칙령**’>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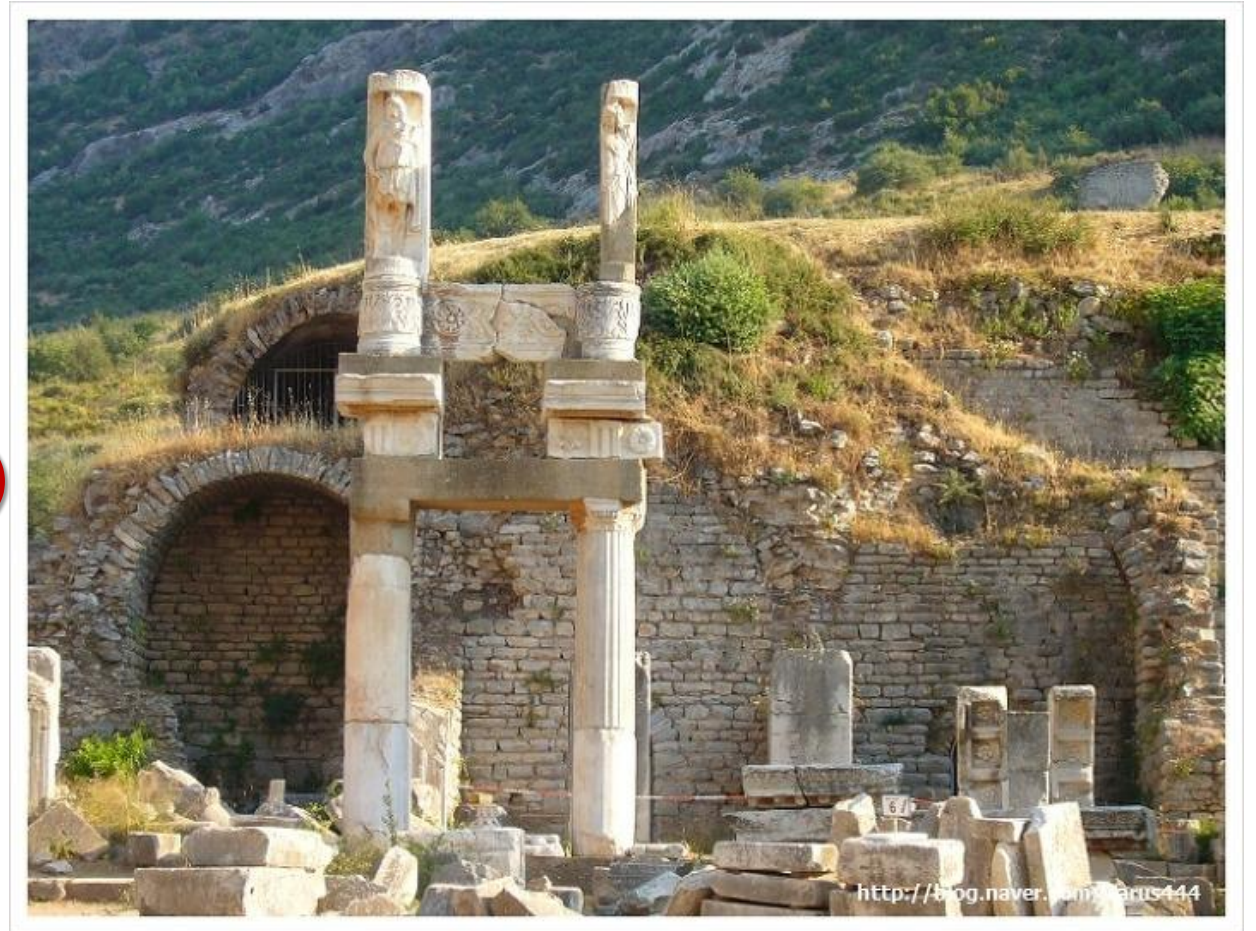
- 당대의 그리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다신교를 믿지 않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비난 하였고 이는 결국 박해로 이어졌다.
-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그리스도교에 박해가 있었던 시기 곧 황제숭배가 강요되던 시기에 기록된 책이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네로** (54-68) 때에 로마에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으나 황제숭배와는 무관하게 **로마시 대화재로 촉발된 것**이었다. AD 64년 7월 19일 밤에 원형경기장 아래 상점에서 발화하여 6일간 로마시를 불태움
- 그래서 가장 포괄적으로 수용되는 계시록 기록연대는 **도미티아누스(박해자 네로의 환생,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의 동생)**가 죽고 난 96년이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도미티아누스 때 처음으로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 (Dominus et Deus Noster)**으로 호칭하게 하였다.
- 도미티아누스 때 박해가 있었고, 동시대에 **에베소에 카이사르 신전**이 세워졌다.



도미티아누스 신전  
(에페수스, 튀르키예)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의 주화(c. 215-164 BC)

전면에 안티오코스 4세의 얼굴을 새겼고, 뒷면에 보좌에 앉은 제우스가 오른손에 여신 승리(Nike)를, 왼손에 삼지창을 쥐는 모습을 새겼으며, 헬라어로 오른쪽에 ΘΕΟΥ ΕΠΙΦΑΝΟΥΣ

ΝΙΚΗΦΟΡΟΥ (신의 현현, 승리를 지닌자), 왼쪽에 ΒΑΣΙΛΕΩΣ ΑΝΤΙΟΧΟΥ (왕 안티오코스)라고 새겼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주화(AD 20-29, 비잔티움)  
전면에 "ΘΕΟΣ ΣΕΒΑΣΤΟΣ" (황제 신),  
후면에 "ΘΕΑ ΣΕΒΑΣΤΑ" (황후 여신)이라고 새겼다.  
전면의 인물은 황제 티베리우스(Tiberius, 재위 AD 14-37년)  
이고, 후면의 인물은 모친 리비아 드루실라(Livia Drusilla)이다.  
리비아는 아우구스투스(38 BC-AD 14)의 아내로 AD 29년에  
사망한 로마의 첫 번째 황후였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주화(tetradrachm, AD 27-28, 알렉산드리아)  
전면에 "[TI]BERIOS KAISAR SEBASTOS"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황제), 후면 아우구스투스 두상 동리에 "ΘΕΟΣ ΣΕΒΑΣΤΟΣ" (신  
황제)라고 새겼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주화(tetradrachm, AD 14-37, 알렉산드리아)  
전면에는 "ΤΙΒΕΡΙΟΣ ΚΑΙΣΑΡ ΣΕΒΑΣΤΟΣ"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황제),  
후면 아우구스투스 두상 둘레기에 "ΘΕΟΣ ΣΕΒΑΣΤΟΣ" (신 황제)라고 새겼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주화(tetradrachm, AD 14-37, 시리아)  
전면에 "TIBERIOΣ ΣΕΒΑΣΤΟΣ ΚΑΙΣΑΡ" (티베리우스 황제 카이사르),  
후면 아우구스투스 두상 돌리에 "ΘΕΟΣ ΣΕΒΑΣΤΟΣ ΚΑΙΣΑΡ" (신 황제  
카이사르)라고 새겼다.



바울시대의 데살로니가 주화(주후 41-54년)  
전면에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세바스투스  
게르마니쿠스" (TI KLAU SEBASTOS GERM),  
후면에 데살로니가의 신 세바스투스 (THESSALONEIWN  
THEOS SEBASTOS)라고 새겼다.



아우렐리아누스(주후 270-276년 재위)

전면에 황제의 얼굴과 둘러싸여 DEO ET DOMINO NATO  
AVRELIANO AVG(타고난 신과 주, 아우렐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고, 뒷면에 월계관을 수여받는 모습을 새겼다.



카루스(Marcus Aurelius carus, AD 282-283)

전면에 무직의 태양신(왼쪽)을 마주보고 신 카루스(오른쪽)를 새겼고,

DEO ET DOMINO CARO INVIC AVG(신과 주, 카루스 무직의 아우구스투스)라고 썼으며, 뒷면 오른손에 평화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왼손에 홀을 들고 서있는 여신 행복을 새겼다. 그리고 그 둘레에

FELICITAS REI PUBLICAE ·X·I·I·(행복, 공화국 원로원, 은 함량

10퍼센트)라고 적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신(神)과 주(主)(Deo et Domino)

- **당대의 황제들이 주화의 문구들로 홍보한 내용:**
- 국가와 시민의 보호자(PR VINDEX),
- 대중의 희망(SPES PVBLICA),
- 영원한 왕(PRINC PERP),
- 왕중의 왕(SHAHANSHAH),
- 공정한 통치자(AEQUITAS AVG),
- 행복(FELICITAS),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신(神)과 주(主)(Deo et Domino)

- **당대의 황제들이 주화의 문구들로 홍보한 내용:**
- 자유(LIBERTAS),
- 풍요와 행운(TYCH),
- 운명(FORTVNAE),
- 평화(PAX, PACI),
- 승리(NIKE)를 가져다 주는 자,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신(神)과 주(主)(Deo et Domino)

- **당대의 황제들이 주화의 문구들로 홍보한 내용:**
- 국가와 백성의 수호신(THEOS, DEUS),
- 신(神)과 주(主)(DEO ET DOMINO),
- 주와 신(DOMINUS ET DEUS),
- 만왕의 왕(BASILEUS BASILEON),
- 만주의 주(KYRIOS KYRION),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신(神)과 주(主)(Deo et Domino)

- **당대의 황제들이 주화의 문구들로 홍보한 내용:**
- 평화의 왕(BASILEUS EIRENES),
- 신의 아들(DIVI FILIUS),
- 신의 현현(THEOU EPIPHANOUS),
- 신성(DIVO, DIVI, DIVVS).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신(神)과 주(主)(Deo et Domino)

- **에피파네스 안디옥코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칼리굴라**는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고 하였다.
- **하드리아누스**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유피테르 신전을 세웠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신(神)과 주(主)(Deo et Domino)

- ‘구주’란 말은 ‘구원자’란 뜻으로써 흔히 신들과 황제들에게 적용됐던 말이었다.
- 이런 준엄한 시기에 감히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에 목숨을 걸며 빼앗긴 나라의 주권과 명예를 되찾아줄 모세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고대하였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신(神)과 주(主)(Deo et Domino)

- 요한과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화의 왕으로 선포하였으며, 이 신성의 권리를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돌리고 황제숭배를 거부하였다.
-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죽음을 무릅쓴 일이었겠는가?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그리스도인들은 성삼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가짜 신 곧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거나 참칭된 우상들이라며 숭배를 거부하였다.
-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었고 또 그 같은 신념(믿음)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다.
- 믿음은 강력하다(Belief is powerful).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009

##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 요한계시록 13장 1-6절

[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 요한계시록 13장 1-6절

[5]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짐승=황제

- 로마시대에 **황제 카이사르**는 신성(神性, Divus)이자, 주(主, Dominus)요, 평화(pax)를 가져오는 자였기 때문에 권세와 명예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萬主)의 주(主)이신 그리스도(Christus)의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만) 일시적인 맞수**였다.
- 요한이 언급한 **적그리스도=로마 황제**였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하나님(777, 기록 기록 기록)
- 용=마귀,사단 대(對) 그리스도(888=예수, 차고 넘침 +1, +A)
- 1짐승(바다)=적그리스도(666, 거짓 거짓 거짓 혹은 부족 부족 부족)="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대(對) 미가엘 천사장='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 2짐승(땅)=거짓 선지자 대(對) 하나님의 종

# 바다의 용: 티아마트 (바벨론)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폭풍)의 신이자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두크(Marduk)가 혼돈(흑암)과 바다의 여신이자 바다의 용인 티아마트(Tiamat)를 버락으로 공격하는 바벨론의 부조(대영 박물관)

바다의  
용:  
용을  
부리는  
포세이돈  
(그리스  
로마)



바다와 폭풍의 신 포세이돈이 바다와 폭풍의 상징인 용을 부리는 동전.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는 폭풍의 신 포세이돈의 저주로 10년간 바다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새긴 마케도니아 왕국의 데메트리우스 1세 폴리오르케테스 왕의 테트라크램(300-295BC)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짐승=황제

- 로마 황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대적하는 모든 왕들의 대표요 상징이자 음녀였다.
- 고대의 황제들은 대개가 신성을 주장하였는데, 성경의 인물들인 이집트의 바로(Pharaoh), 산헤립, 사르곤,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다리오(Darius), 고레스(Cyrus), 알렉산더, 안디옥코스 4세 등이 모두 신성을 주장한 짐승이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짐승=황제

- 이들의 신성은 **매**(호루스), **코브라**(여신 우제트), **독수리**(우제트의 자매신 네크베트), **라마수**(Lamassu) 또는 **스핑크스**, **아몬**(Amon/Ammon/산양) 등의 **짐승**으로 표현되었다.
- ‘**적그리스도(666)와 거짓선지자=짐승**’이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짐승=황제

- 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단 9::27)이나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막 13:14)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짐승으로 신성이 참칭(僭稱)되고 숭배가 강요된 황제를 지칭한 것이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짐승=황제

- 고대 근동의 스피르크스, 창조신 마르두크, 태양신 샤마쉬, 수호신 라마수의 얼굴들은, 황제들의 얼굴들을 묘사한 것이다.
- 황제는 나라의 수호신이였다. 같은 맥락에서 바로는 이집트 최고신의 현신이였을 뿐 아니라 수호신이였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Nebuchadnezzar, 630-562BC).  
 고대 근동의 스팅크스, 창조신 마르두크, 태양신 샤마쉬, 수호신  
 라마수의 얼굴들은, 당대 황제들의 얼굴들을 묘사한 것이다.  
 황제들은 현신이자 나라의 수호신이였다. 같은 맥락에서  
 바르도 이집트 최고신의 현신이였을 뿐 아니라 수호신이였다.



라마수(Lamassu) 석상(넴루드 출토)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주전 721-705) 궁전 코르사바드  
 (Khorsabad)의 수호신, 대영박물관 소장.  
 라마수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약 4천년 전에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집트의 신 아몬(산양) <sup>뿔</sup>이 달린 알렉산더 대왕과 아몬-제우스.  
알렉산더는 아몬 또는 아몬-제우스로 불렸다. 다니엘서 7-8장에 나오는  
<sup>뿔</sup>뿔과 7계시록 13장, 17장의 <sup>뿔</sup>뿔이 신성을 <sup>뿔</sup>참칭하는 제왕들을 상징한다.



게시록 13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를 클로즈업한 것이다.



게시록 12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발 아래에 달을,  
 머리에 열두 뿔의 관을 쓴 해를 입은 여인과 일곱 머리  
 열 뿔과 일곱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을 묘사하였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짐승=황제

-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라(Ra)**를 묘사한 그림들을 보면, **라(Ra)**가 **매의 머리에 코브라에 감긴 태양**을 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라(Ra)**는 밤에는 오시리스로서 지하세계에 머물다가 아침에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최고신으로 여겨졌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짐승=황제

- **바로**는 태양신 **라(Ra)**의 아들이자,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호루스의 환생**이라고 여겨졌으며, **매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 **매, 코브라, 흰 독수리**는 **고대 이집트 왕권의 상징**이었다. **매, 독수리, 코브라, 사자=강(強)함의 상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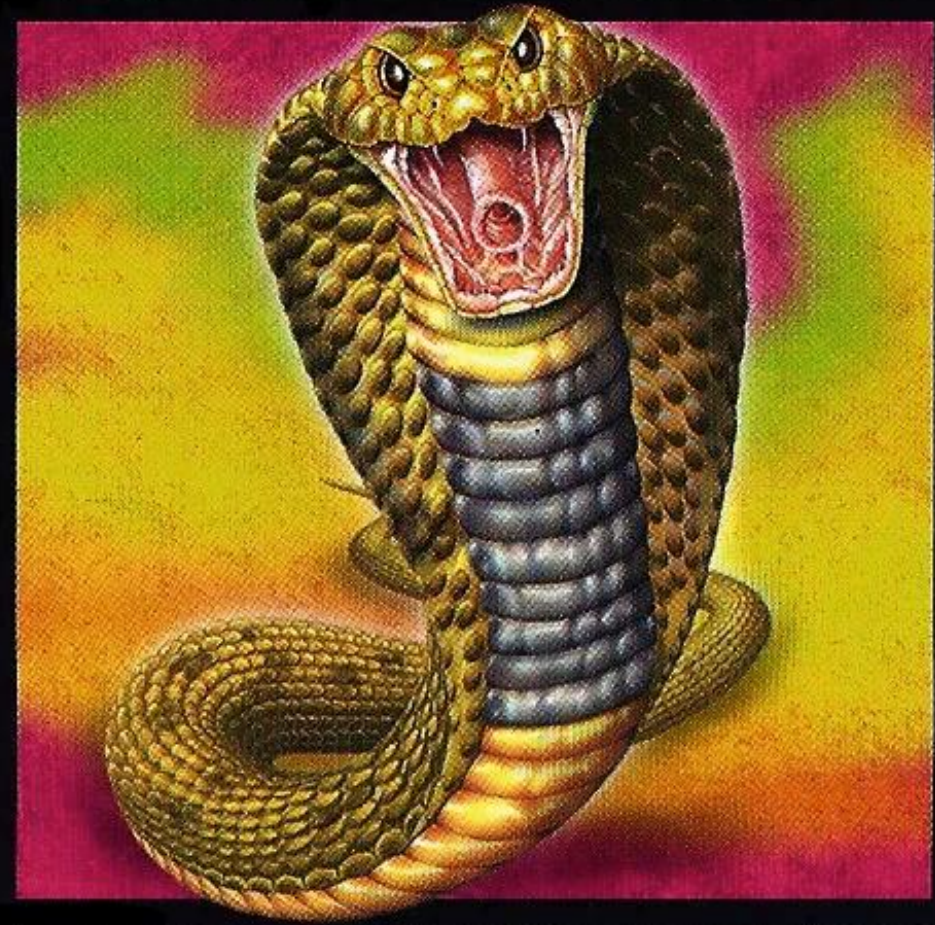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짐승=황제

- 코브라(여신 우제트)의 눈은 호루스의 눈으로 불리며, 신격화된 **바로의 왕권을 보호하는 상징**이었다.
- 코브라의 **오른쪽 눈은 라(태양)를 상징**하였고,
- 코브라의 **왼쪽 눈은 달(토티)을 상징**하였다.



## EGYPTIAN COBRA



This is the world's biggest true cobra, and one of Egypt's most dangerous snakes. Its venom kills prey in seconds, and large enemies can be dead within 15 minutes of being bitten.

**LIFE: 120**

**Say What?**  
This snake is also called the asp.

**TOXIC TERRORS**

**ATTACK: 6 DEFENSE: 7**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짐승=황제

- 투탕카문(Tutankhamun)의 황금마스크를 보면, 수염과 정수리 부분에 코브라 뱀(여신 우제트)과 흰 독수리(우제트의 자매 신 네크베트) 머리가 이집트 왕권의 수호신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상체를 세운 코브라는 우라에우스(uraeus)라 불리며 우제트의 상징이다.



투탕카문(Tutankhamun)의 황금마스크  
수염과 정수리 부분에 코브라 뱀(여신 우제트)과 흰 독수리(우제트의  
자매 네크베트) 머리가 이집트 왕권의 수호신으로 장식되어 있다.  
상체를 세운 코브라는 우라에우스(uraeus)라 불리며, 우제트의 상징  
이다. 이 황금마스크는 상체를 세운 코브라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짐승=황제

- 이 황금마스크는 **상체를 세운 코브라(우라에우스)**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 이로 보건데 **야훼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뱀이 거짓 신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뱀들을 삼켰다는 것은 바로의 신권이 거짓이고, 그의 왕권이 허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짐승=황제

- 또 계시록 15장 2절의 말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은, 홍해상황에서 설명한다면, 이집트의 바로이고, ‘그의 이름의 수’는 666이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출애굽기 14장 5-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는 자들이 '바로(=바다 짐승)와 그의 신하들(=땅 짐승)'이라고 하였고, 그들이 예비한 군대가 '선발된 병거 육백 대'라고 하였다.
- 황제를 짐승으로 묘사한 이유는 **바로**의 경우 매로 상징되는 호루스의 현신으로 묘사되었고, 코브라와 흰머리 독수리가 바로 왕권의 수호신이었으며,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 산양으로 상징되는 아몬의 현신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또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아시리아의 수호신들은 성경 속의 케루빔처럼 **날개를 가진 생물들**이었다.
- 그들 가운데 이집트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수호신 **스핑크스**, 아시리아 및 페르시아의 수호신 **라마수**,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두크**, 아시리아의 수호신 **니스로크**, 로마의 수호신 **그리핀** 등이 있다.
- 사람의 얼굴을 한 수호신 라마수, 마르두크, �핑크스는 현신인 황제들의 두상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족에 속하는 마르두크(Marduk)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폭풍)의 신이다. 또한 창조신이자 네 개의 날개를 가진 바벨론의 수호신이다. 손에 통과 술항을 쥐고 있는 마르두크는 바벨론왕 네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Nebuchadnezzar)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라마수(Lamassu) 석상(넬루드 출토, 대영박물관 소장).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721-705 BC) 궁전 코르사바드(Khorsabad)의 수호신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약 4천년 전에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황소 몸체에 세쌍의 날개와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라마수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독수리 머리와 날개를 가진 아시리아의 니스록(Nisroch) (아슈르나시르팔 2세의 넬루드 궁전 부조, 니스웨) 케루빔과 유사한 수호신이다. 신성한 나무에 물을 뿌리는 모습이다. 산헤립(Sennacherib, 제위 수전 705-681)이 히스기야왕 때 유다를 침공하여 라기스와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니스웨로 돌아가 기도한 신이 바로 니스록이었다.



다리우스 대왕의 수사 궁전의 스피нк스(480 BC, 루브르)  
 사자 몸체에 세쌍의 날개와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스피нк스는 페르시아의 수호신이자 다리우스 대왕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독수리 머리에 사자 몸통을 한 미케네 그리핀(Griffin) 벽조(c.1300 BC)



**로마를 헤라클레스와 동일시한 데나리온 (80 BC).**

**전면:** 여신 로마가 **그리핀(독수리+사자)**이 장식된 투구를 쓰고 있다.

**뒷면:** 헤라클레스가 네메아의 사자를 목 졸라 죽이는 모습.



주전 113-112년의 로마 은화 데나리온  
전면에 그리핀(독수리+사자)이 장식된 투구를 쓴 여신 로마를 새겼으며,  
뒷면에 검투사들의 대결 장면을 새겼다. 그 밑에 쓴 T[itUS]  
DEIDI[US]는 주화 발행자의 이름을 새긴 것이다(티투스 데이디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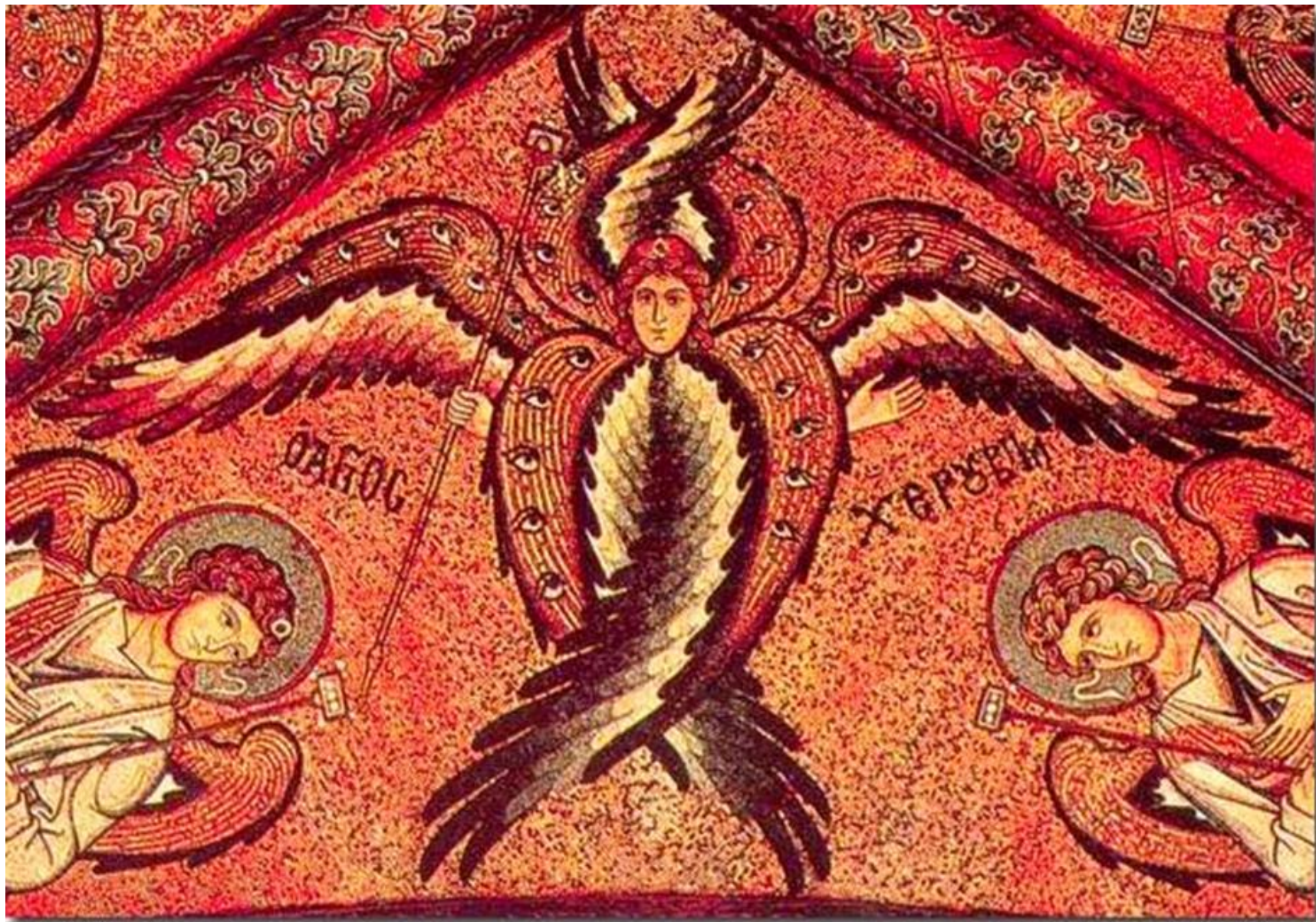


법궤와 속죄소  
출처: Moshe Levine's book,  
"The Tabernacle". Published by  
Soncino Press, Brooklyn, NY.



로마의 문장  
로마군단은 하늘  
과 지상의 왕(독  
수리+사자 수호  
신=**그리핀**)이 수  
호하는 부대이다.  
로마군단의 기수  
는 사자 가죽을  
쓰고 독수리 깃  
대를 들었다.

법궤는 야훼의 보좌(발등상). 이스라엘을 위  
해서 싸우시는 야훼 임재의 상징(문장).



케루빔과 천사들(시칠리아 체팔루 성당, 1200년경)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박해기간=삼년 반

- 일찍이 왕이나 황제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탄압해왔다.
- 이 경우 성경은 환난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뜻으로 3년 6개월(=마흔두 달)을 강조하였다.
-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엘리아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탄압이 3년 6개월에 그쳤고, 셀루키드왕조의 안디옥코스4세의 극심한 탄압도 3년 6개월에 그쳤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박해기간=삼년 반

- 예수님도 공생애기간의 환난을 3년 6개월에 마쳤고, 네로의 기독교 박해도 3년 6개월 남짓 이어졌다.
- 로마제국에서 박해가 시작된 때와 그 기간은 **네로** (Nero 64-68년), **도미티아누스** (Domitianus 95-96년), **트라야누스** (Trajanus 112-117년), **하드리아누스** (Hadrianus 117-138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Marcus Aurelius 177-180년),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박해기간=삼년 반

-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us Severus 202-211년), **막시미누스**(Maximinus 235-238년)로 이어졌으나 전 로마제국에 걸쳐 자행된 대대적인 박해는 아니었다.
- 또 로마제국 차원의 황제 중심의 박해가 시작된 것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202년에 '무적의 태양신'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사형에 처한다는 칙령을 발포하면서부터였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250년부터 309년까지 반세기동안 대 환난이 세 차례나 있었다.
- **데키우스**(Decius 250-251년) 때 1년 6개월 정도,
- **발레리아누스**(Valerianus 257-259년 때 3년 남짓,
-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303-305년) 아우구스투스황제(정제) 때 3년 남짓,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카이사르황제(부제)였던 **갈레리우스(Galerius)**가 305년에 퇴임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뒤를 이어 아우구스투스황제(정제)가 된 때로부터 309년까지 박해를 이어갔다.
- **갈레리우스의 박해**가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으로부터 겪었던 **마지막 대 환난**이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박해기간=삼년 반
- 그러나 그것들도 역시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 250년 1월초에 박해를 시작한 **데키우스**는 이듬해 6월에 공동 황제였던 아들과 함께 **흑해 연안 도브루자(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늪지대**에서 고트족에게 살해되어 시체도 찾지 못하였고,
- 257년에 박해를 시작한 **발레리아누스**는 259년 터키 남동부 **에데사**에서 페르시아의 샤푸르 1세에게 사로잡혀 노예가 되었고, 사후에 시신은 박제되어 신전에 전시되었다.



오스트리아

몰도바

헝가리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도브루자

흑해

이탈리아

불가리아

로마  
Roma

이stanbul  
İstanbul

앙카라  
Ankara

그리스

터키

에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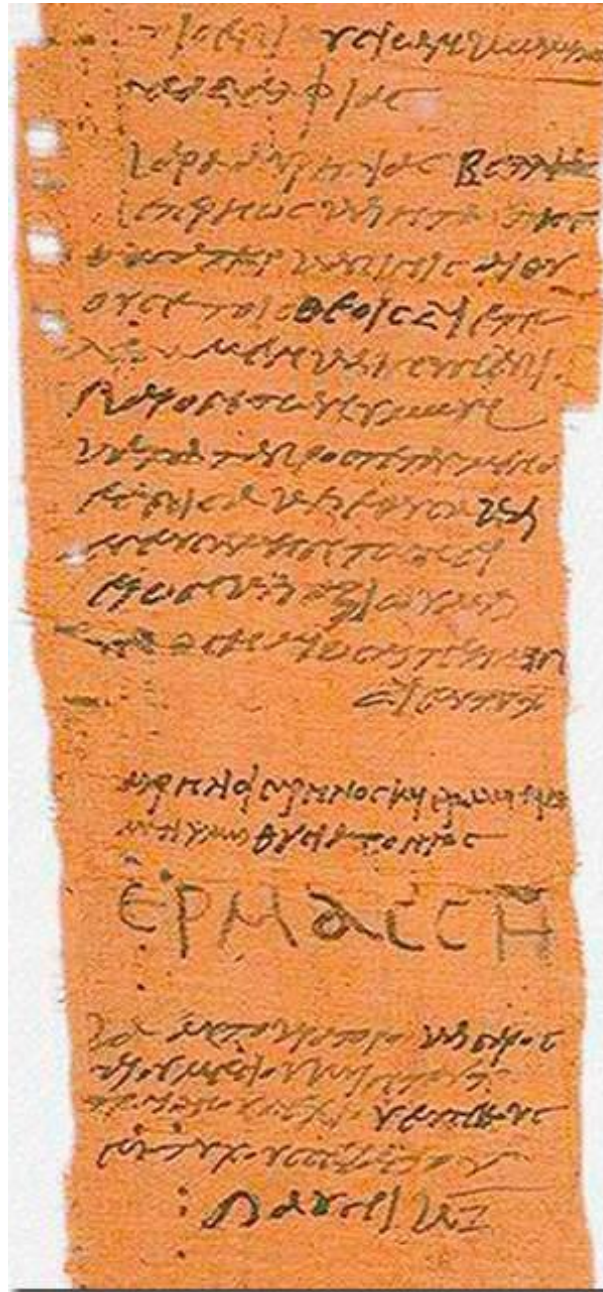
시리아

레바논

튀니지

지중해

데키우스 및  
발레리아누스  
때  
발행되었던  
**리벨루스**  
(우상 신들에게  
분향하였다는  
공증서).



데키우스(Decius)가 발행한  
리벨루스(libellus, 250년)  
[내용]테아델피아 마을의 제사를  
관장하는 자들에게, 페테레스의  
딸 아우렐리아 벨리아스와  
그녀의 딸 카피니스로부터: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들  
에게 제사를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절차를 따라 관제를  
벗고 제사를 드렸으며, 신성한  
예물을 맛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증서에 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명]우리 아우렐리우스 세레누스와  
아우렐리우스 헤르마스는 고대들이  
제사 바치는 것을 보았노라. 헤르  
마스 본인에 의해서 서명하다.  
황제 카이사르 가이우스 메시우스  
퀸투스 트라야누스 데키우스 피우스  
펠릭스 아우구스투스 1년, 아우니 27.

## 그리스도교의 승리

안토니우스 및  
파우스티나 신전  
(AD 141).

\*이 신전은 7세기경에  
**산 로렌초 미란다 성당**  
(San Lorenzo in  
Miranda)으로  
개조되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 박해기간=삼년 반

- **디오클레티아누스**도 303년부터 강력하게 기독교를 탄압하였으나 305년에 아우구스투스황제의 직에서 퇴임하고 말았다.
- 그리고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는 합법종교가 되었다.
- 그로부터 80여년 후인 **392년**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남게 되었다.

##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

● 박해기간=삼년 반

-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를 탄압했던 통치자들은 마지막이 비참하였다.
-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를 탄압했던 자들은 대부분 응분의 대가를 치렀다.
-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승리하였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010

## 요한계시록 1장 4-8절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  
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  
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 요한계시록 1장 4-8절

[6]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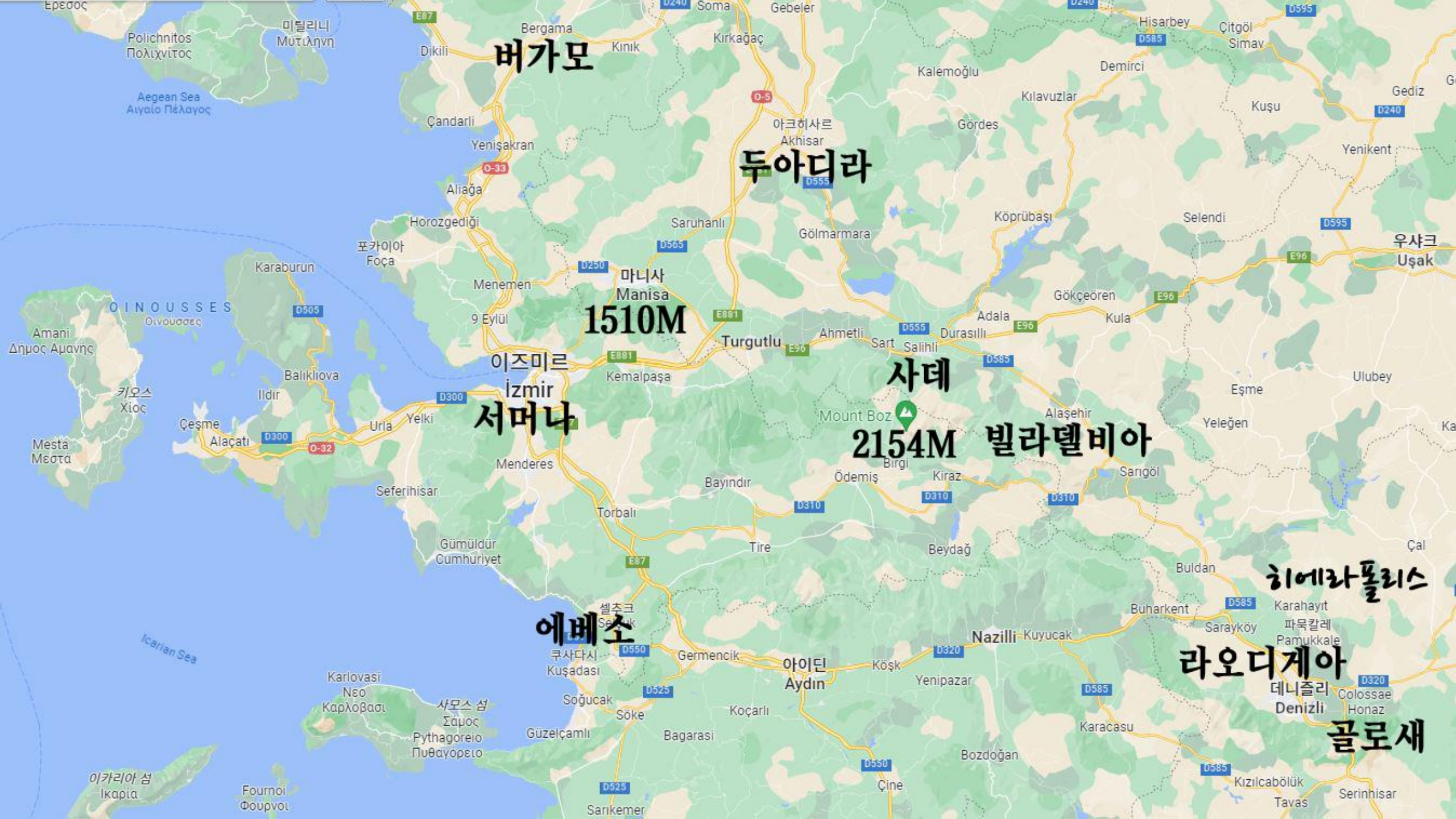
[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 요한계시록 1장 4-8절

[8]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에베소에서 시작하여  
시계방향, 헬라어를 읽고 쓰는 방향**



**버가모**  
Bergama

**두아디라**  
아크히사르  
Akhisar

**마니사**  
Manisa  
1510M

**이즈미르**  
İzmir  
**서머나**

**사데**

**2154M**  
**벨라델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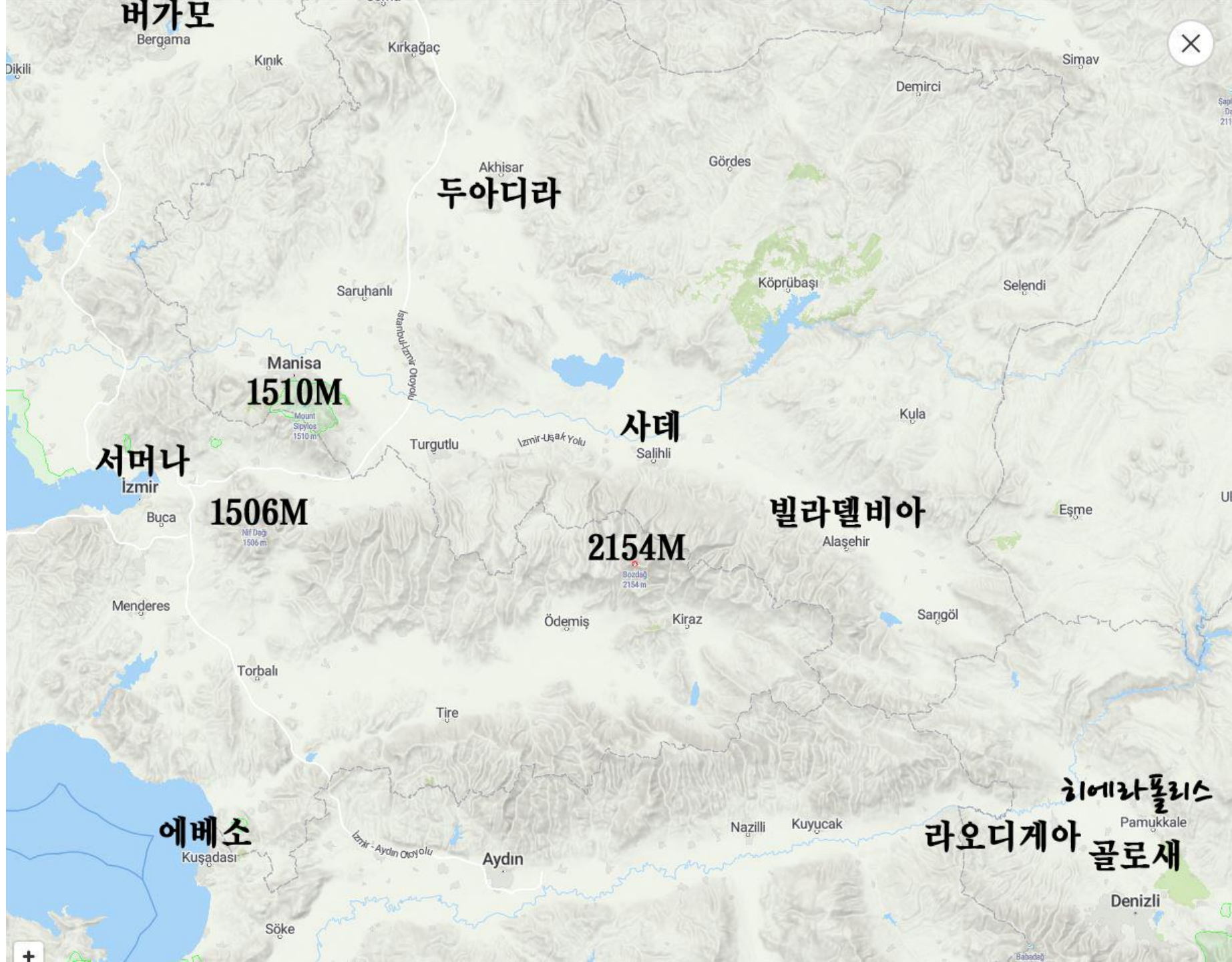
**에베소**  
셀추크  
Selyuk

**아이딘**  
Aydın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콜로새**



# 요한계시록 1장 4-8절

##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 계시록은 일차적으로 튀르키예의 에게해에 인접한 소아시아도의 일곱 도시들에 세워진 교회들에 보내진 **회람서신**이다.
- 초기의 서신들은 두루마리였다.
- 각 교회들은 서신을 받아 예배 때 **낭독**한 후에 원본을 필사하여 **사본을 소장**하였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 **필사본들은 많았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소장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 손으로 필사하는 과정에서 **필사본들 사이에** 아주 사소한 **차이점들**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 필사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처럼 **성경궤에** 보관하였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 계시록은 믿음을 지키려 다가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 그렇다고 계시록이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오히려 **계시록**은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신앙의 원리와 원칙**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 이런 맥락에서 2천 년 전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형이자 모델이다.
-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쓰인 숫자가 '7' 또는 '일곱'이다.
- 2-3장에 언급된 일곱 가지 축복들을 비롯해서 일곱 교회(1:4,11), 일곱 영(1:4), 일곱 금 등잔대(1:12), 일곱 별(1:16), 일곱 인(5:1), 일곱 뿔과 일곱 눈(5:6), 일곱 나팔(8:2), 일곱 우뢰(10:3), 일곱 표적(12:1,3;

## 요한계시록 1장 4-8절

13:13-14; 15:1; 16:14; 19:20), 일곱 왕관(12:3), 일곱 재앙(15:6), 일곱 금 대접(15:7), 일곱 언덕(17:9), 일곱 왕(17:10) 등이 쓰이고 있다.

- 그러면 **왜 하필 일곱(7)**인가?
- 일곱은 완전수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상징이자 완전성의 상징인 '3'과 지상의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4'가 합해진 숫자가 칠이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 따라서 '7'은 '완전' 또는 '모든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 신학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과 구원의 상징이다.
- 그래서 하나님을 '777'로 묘사하는데, 이는 삼성(三聖) 곧 세 번의 거룩을 의미한다.
- 같은 맥락에서 **일곱 교회들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거룩과 완전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복을 내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계시록 1장 4-8절은 무려 15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 첫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4절)입니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영원성이 강조된 말씀이다.
- 예수님이 과거의 인물에 불과하다면,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영으로서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4-8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비잔틴시대의 주화(요한 1세, AD 969-976)  
전면에 복음서를 펴고 계시신 예수님을 새겼고, 좌측에 예수(IC)를,  
오른쪽에 그리스도(XC)를 새겼으며,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IHSUS XPISTUS BASILEY BASILE)이라고 새겼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 요한계시록 1장 4-8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4절)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 여기서 일곱 영은 성령님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 **계시록 3장 1절**은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 **5장 6절**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이 가진 **일곱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 여기서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서 ‘전지’를 상징한다.
- ‘전지’란 것은 모든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 이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고 있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 셋째, 예수님은 **믿을만한 증인**이시다(5절).
- 넷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써 죽은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5절).
- 다섯째, 예수님은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시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다(5절).

## 요한계시록 1장 4-8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 여섯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는 분이시다.
- 일곱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 여덟째,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5절)이시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 **아홉째,** 예수님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지상에 세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시다.
- **열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6절)이시다.
- **열한째,**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 받으실 분**이시다(6절).

## 요한계시록 1장 4-8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 열두째,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 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7절).

요한계시록 1장  
4-8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비잔틴시대의 주화(미카엘 4세, AD 1034-41)  
전면에 왼손으로 복음서를 안고, 오른손으로 강복하시는 예수님을 새겼고,  
좌측에 예수(IC)를, 오른쪽에 그리스도(XC)를 새겼으며,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IC XC NIKA)라고 새겼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 요한계시록 1장 4-8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열 셋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입니다(8절).
- 열 넷째,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8절).

## 요한계시록 1장 4-8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열 다섯째,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상속받게 하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연기와 유황의 불 속에서 천벌을 받게 하실 분입니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이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J장군 예수 그리스도님**은 능히 지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과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성도들을 능히** 그들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강조한 것이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박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님의 승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
- 또 거짓선지자의 이단의 도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님의 구원’,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따라서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칼의 박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또 거짓선지자의 도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박해자들에게 저주와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탄과의 싸움은 처음부터 그 **결말이 예견된 싸움**이다.
-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용)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의 세력을 물리치고 **반드시 이길 운명**이다.

## 요한계시록 1장 4-8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이 필연을 믿었기에 선배 신앙인들은 견디기 어려운 박해와 이단자들의 유혹과 회유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더러운 죽임을 당하였고, 더러운 옥에 갇혔다.
- 그러나 **그들의 삶이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일 것이지만,

## 요한계시록 1장 4-8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 **우리도**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의 월계관을 받아쓰는 그날까지 신실함과 믿음의 끈을 놓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011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 [11]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 [12]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 [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14]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점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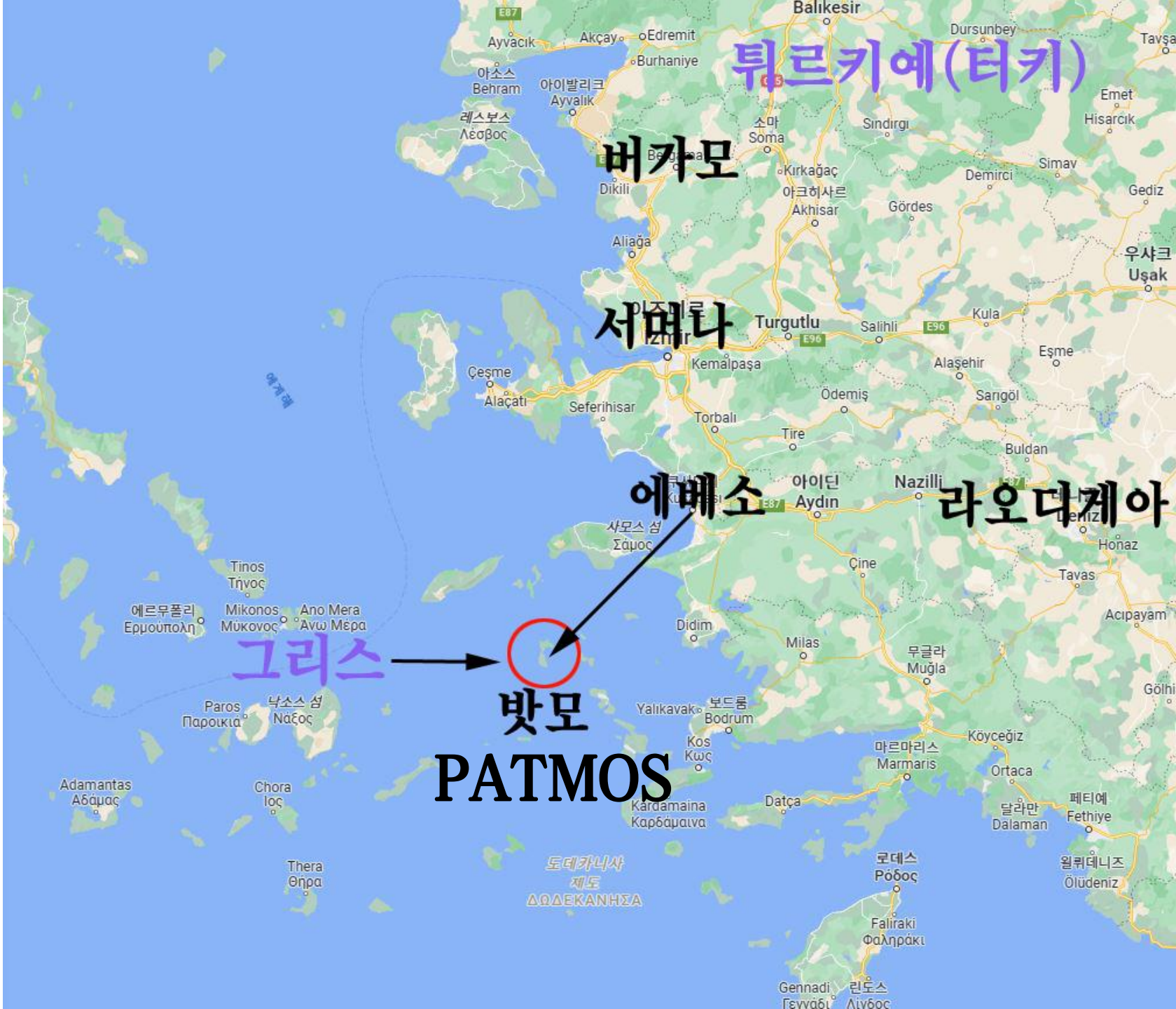
[17]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19]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튀르키예 (터키)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라오디게아

그리스

BATMOS

PATMOS



# 묵시(계시) 1900주년 기념우표 - 그리스 (1995년 발행)

계시록 그리스 우표(1995)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보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게시록 1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를 묘사하였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데나리온(주후 81-84년)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DOMINVS ET DEVS)으로 부르게 하였으며, 죽은 자신의 아들까지 신격화하였다. 전면에 월계관을 쓴 얼굴을 둘러싸고 IMP CAES DOMITIANVS AVG PM(황제 카이사르 도미티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대신관)이라고 썼고, 뒷면에 자신의 죽은 아들로 하늘(“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계시록 1:16 참고)과 땅(지구)에 올라 앉음을 다스리는 자로 새겼다. 그리고 그 둘러싸고 DIVVS CAESAR IMP DOMITIAN IF(신성 카이사르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이라고 새겼다.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 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는 당대에 그리스도교 박해가 있었고, 요한도 그로 인해 밧모섬에 유배당했다는 말씀이다.
- 그런데 4,8절의 ‘장차 다시 오실 분’이 밧모섬에 갇힌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다.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 밧모(Patmos) 섬은 중죄인들이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던 곳이었는데, 요한은 백세 가까운 노인이었기 때문에 주로 기도동굴에서 **소일했다**고 전한다.
- 주후 92년경부터 소아시아에 박해가 있었는데, **요한**은 주후 **95년부터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망할** 때까지 대략 1년 6개월 정도 밧모섬에 머물었다.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 요한은 석방되어 에베소에 돌아와서 같은 해인 주후 96년 105세(?) 때 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소천 하셨다고 전한다.
- 요한이 본 계시를 받아 쓴 인물은 ‘브로고로’(Procorus, 행 6:5)로 알려져 있다.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밧모섬 기도동굴에서 **주일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본 정황을 말한다.**
-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의 내용은 11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이었다.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 요한이 가장 먼저 본 환상은 일곱 금 등잔대와 그 등잔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였다.(12-13절).
- 우리말 성경에서 “일곱 금 촛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Menorah)라 일컫는 일곱 금 등잔대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 당대에는 올리브기름을 담은 등잔에 심지를 쫓아 불을 밝혔기 때문에 성전 또는 회당 성소에 놓였던 일곱 개의 금 등잔을 올려놓은 ‘메노라’ 곧 ‘일곱 줄기 금 등잔대’ 일곱 개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메신저들을 상징하였고, 일곱 줄기 금 등잔대 일곱 개는 일곱 교회들을 상징하였다.



### 성막의 메노라

순금을 두들겨서 만들었고, 아몬드나무에 꽃이 핀 모습을 형상화했다. 상단에 7개의 등잔을 올릴 수 있게 만들었다.



Shutterstock  
7,997 Israel Lamp Images, Stock Photo...



Sci.News  
Archaeologists Unearth 1,700-Year-Old ...



Amazon.com  
Amazon.com: Biblical Replica HER...



The BAS Library  
Lighting the Way Through History · The BA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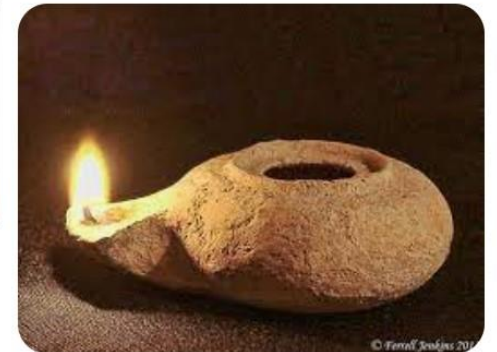
Etsy · 재고 있음  
Oil Candle Pottery gift Set ...



autop.be  
Hebrew Oil Lamp Oil Lam...



Pinterest  
Hebrew oil lamp | Oil la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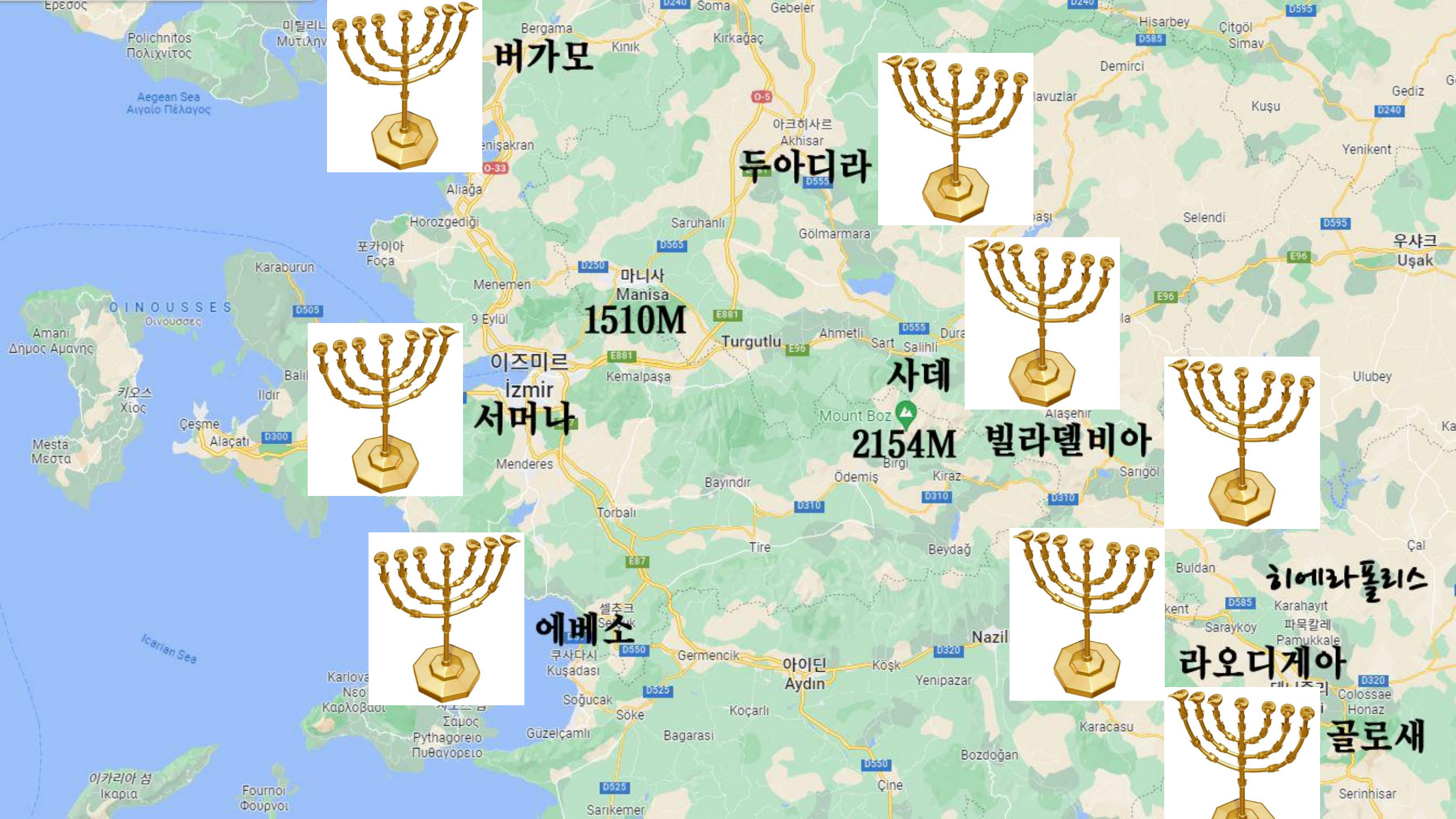


analiticaderetail.com  
átad életerő barát bible oil ...



oercedu.com  
best oil lamp 05560% I





버가모



두아디라



1510M

이즈미르  
서머나



사데

2154M

벨라델비아



에베소



아이딘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등잔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 ‘일곱 줄기 금 등잔대 일곱 개’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
- 첫째는 일곱 줄기 금 등잔대가 완전한 빛의 상징이란 점이다.
- 일곱 줄기 금 등잔대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상징물이다.
- 일곱 줄기 금 등잔대가 일곱 개라면, 총 49개의 금 등잔이 빛을 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다.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등잔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 이는 50를 말하는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는 숫자이다.
- 유대교의 ‘하누카’ (Hanukkah) 등잔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최초(봉사, 샤마쉬)**의 빛, 영원한 빛, 계시의 빛이며,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며,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이 추가로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49+1=50**).



Day 8 . . . . . Day 2



Day 2




Day 1

유대인들은 하누카(channukkah)라 불리는 수전절을 양력 12월에  
달는 키슬레브(Kislev)월 25일부터 8일간 지킨다. 8일간 하누키아  
(channukkiyah)에 촛불을 밝히는데, 초는 중앙의 샤마쉬  
(Shamash)에 먼저 켜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매일 하나씩 추가  
한다. 반면에 초에 불을 밝힐 때에는 샤마쉬 초에 먼저 불을 밝힌  
후 불이 커진 샤마쉬 초를 이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의 초,  
곧 새날의 초부터 어제 그제께 그제저께 초의 순서로 불을 밝힌다.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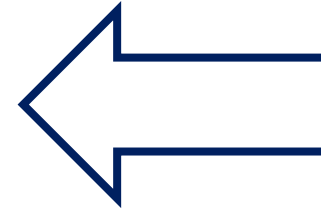
“등잔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  둘째는 이 일곱 줄기 금 등잔대 일곱 개가 교회들의 상징이란 점이다.
- 등잔대의 특징은 **빛**에 있고, 이 빛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며,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며,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이다. 이런 고귀한 사명(mission)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 그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이나 백설 같고, 눈은 불꽃같고, 발은 화덕에 달궈진 놋쇠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입에는 날카로운 로마 점이 있고,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고,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교회들 사이에 서서, 세차게 흔들리며 꺼질 것 같은 교회들의 불꽃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긴장한 모습으로 금방이라도 무슨 행동을 취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인자 같은 이”

폭풍을 잔잔케 하시실 그리스도  
1883년에 출판된 어린이 성경에 실린 삽화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이다(13절).

● 둘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모습은 엘리야나 세레 요한과 같은 **예언자의 모습**이다(14-15절).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 셋째, 오른쪽에 일곱 별이 있고, 일곱 개의 금 등잔대 사이를 거닐며, 입에서 좌우에 날선 로마점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추는 것 같은 모습은 **왕의 모습**이다(16절).
- 이들 모습들은 사도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가 완벽한 그리스도란 점을 밝혀 준 것이다.**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이처럼 완벽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궁극적인 또는 **최후에 값진 승리**를 안겨줄 **승리자**이시다.
-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일 뿐 아니라, 살아 있는 자요, 한 번은 죽었으나 영원무궁 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자**이시다(17-1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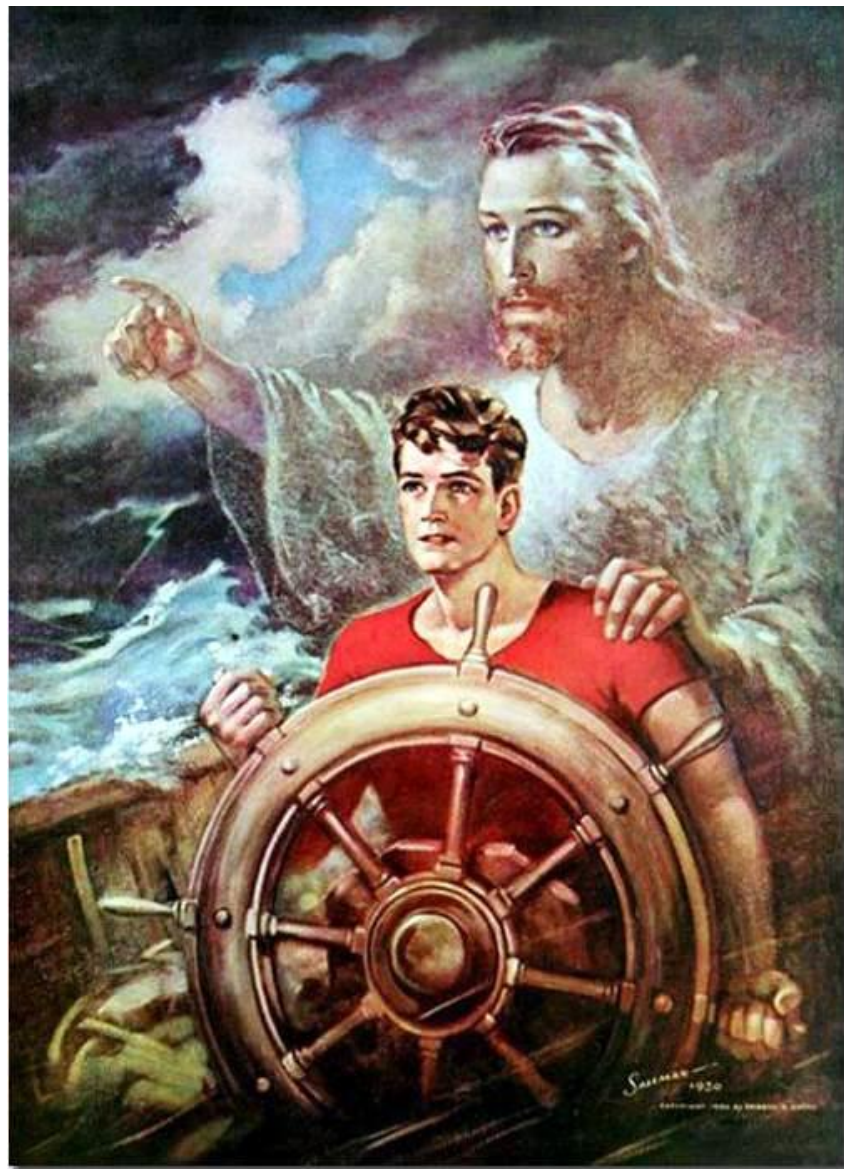


비잔틴시대의 대표적인 크리스트그림: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 요한은 이 분이 박해와 탄압이란 강풍을 만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의 배후에 서서 지키고 계신 것을 보았다.
- 우리도 능력의 주께서 우리의 배후를 지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그분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키잡이(Christ Our Pilot, Warner Sallman, 1950). 워너 설만이 1950년에 그린 작품으로써 크리벨과 베이츠(Kriebel & Bates)가 저작권을 갖고 보급하고 있는 성화이다. 필자는 1960년대 초중고 시절에 이 성화를 보며 자랐고, 예수님이 내 삶의 키잡이이심을 믿었다.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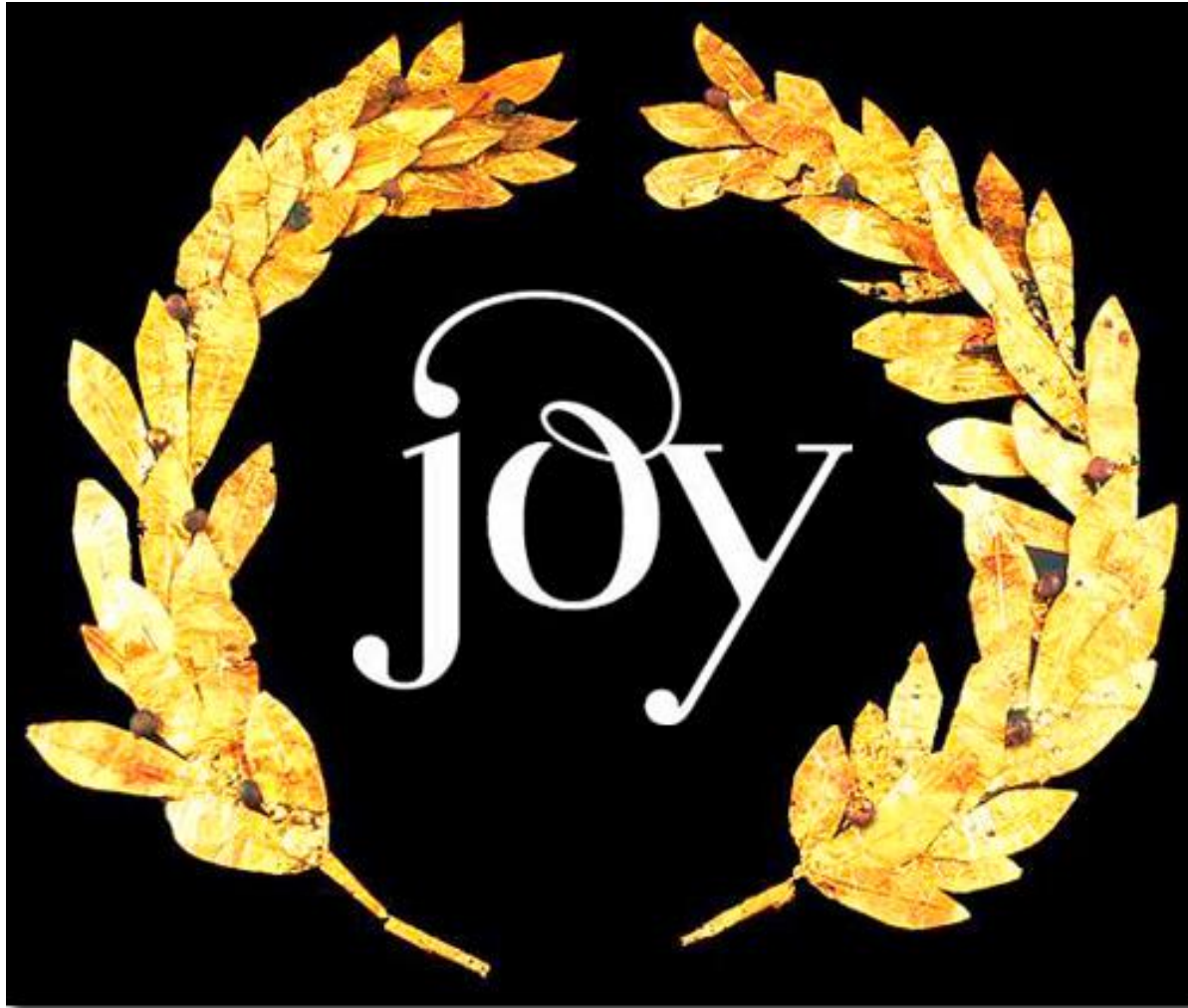
- 때로는 달리던 길을 멈춰 서서 숨을 고른 후에 지나온 길을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달플 때일수록, 강풍이 몰아칠 때일수록 더욱 **그분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요 복 받는 길이다.

## 요한계시록 1장 9-20절

- 예수님은 오른 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살아 있는 자라.”**



‘카이레테 니코멘’

**CHAIRETE  
NIKOMEN.**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빌 4:1)  
금관(4-3BC, 라이스 엠겔호른 박물관, 독일 만하임)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012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 선 점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3]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  
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비리핀

데살로니아

보니아

트로아

에게해

에베소

클로사

미르네도

고린도

아테네



에베소스의 아테미스(Artemis) 신전을 그린 헝가리 우표(1980년)





에베소의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상들, 머리에 성곽을 이고 있고,  
가슴에 24개의 젖가슴 혹은 24개의 황소 고환을 매달고 있다.



에베소의 금화 (155-140 BC)

전면에는 에베소의 여신 아테미스(Artemis)의 두상을,  
뒷면에는 아테미스 신상을, 좌우에 E - Φ(에베소)라고 새겼다.



고대도시 에베소의 상가 도로  
이 길을 포장한 돌 밑으로 하수를 배출하는 도랑이 설비되어 있었다.



고대도시 에베소의 켈수스 도서관(celsus Library, AD 117)  
262-8년 사이 지진과 고트족의 약탈로 파손되어 폐허로 남았다가  
1978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 요한계시록 2-3장의 공통 특징

- 첫째는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간략한 인자의 특징이 소개된다는 점이고,
- 둘째는 각 교회는 행위에 따라서 칭찬과 권면과 책망을 받는다는 점이며,
- 셋째는 매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강한 충고를 받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 넷째는 각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실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에베소 교회

- 계시록 2장 1-7절은 소아시아 최대 도시 에베소에 소재한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생사여탈권을 쥐신 분으로서 오른 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에베소 교회

- 유대교와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사이에 **혼인(사랑)서약**으로 관계가 맺어진 데 있다. 만일 사랑이 식는다면, 이 혼인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선민사이에 맺은 혼인(사랑)서약은 남녀사이의 애정 문제와는 크게 다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사랑이 있고 없고는 애정문제가 아니라, **생사(生死) 문제**이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에베소 교회

- 주님께서는 권태기에 빠진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2:5)는 권면을 강한 어조로 주고 있고,
- 끝까지 그 사랑을 유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겠다(2:7)고 약속하셨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에베소 교회

- 에베소 교회는 행위의 수고가 있었고, 고난을 잘 참고 잘 견뎠으며,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용납하지 아니 하고 배척하였다.
- 또 니콜라당의 행위(교권주의 혹은 영지주의?)를 미워하였다.
- 그러나 첫 사랑을 버린 일은 생사가 걸린 반드시 회개해야만 되는 일이었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에베소 교회

- 음식준비에 분주했던 언니 마르다보다 주님 곁에 앉아  
서 말씀을 들었던 동생 마리아가 오히려 칭찬을 받았  
던 것에서 보듯이(눅 10:38-42),
- 행위의 수고와 인내도 소중하고 칭찬받을만하지만,
- 첫 사랑을 간직하는 일이 더 소중하고 모든 일에 우선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부부가 아무리 서로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최선을 다해 가정을 돌본다 해도, 피차 사랑이 식어버려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의무로 사는 부부이지 행복한 부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도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성도의 본분을 다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Turkey's For Life

시즈나(Smyrna/Izmir)의 아고라(광장, 시장, Agora) 유적



스미르나(Smyrna/Izmir)의 아고라(광장, 시장, Agora) 유적  
아고라의 지하층으로서 물이 흐르고 있으며, 주전 4세기경에 건설되었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서머나 교회

-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책망이 없고, 칭찬과 격려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2:10)고 당부하셨다.
- 여기서 **‘충성’**은 **‘신실’**을 말하고, 신실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또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행한 믿음의 서약=신앙고백을 지키라.’**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서머나 교회

- 그래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2:11)고 하셨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주님의 특징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2:8)으로 서머나 교회에 소개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서머나 교회

- 이 당시 소아시아에는 유대인들이 최소 한 세기 전부터(64 BC) 거주하고 있었다.
- 도시마다 유대교 회당들이 있었고, 유대교에 대한 헬라인들의 인기도 높은 편이었다.
-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의 아류로 취급되는 신흥종교였다.

##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를 폄박한 이유

- **첫째**,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슈아'가 '오실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상숭배한다는 판단;
- **둘째**,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교 회당에 출입했던 다수의 헬라인들을 탈취했다는 판단,
- **셋째**,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토라와 규례를 폄훼한다고 판단.
-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39대의 곤장을 다섯 번 이상 맞았고, 투석형도 받았으며, 자주 투옥되었다.



**버가모의 고대 도시**



**버가모의 트라야누스 황제 신전**



고대 베가몬의 아크로폴리스(acropolis)에 남아 있는 극장



유명했던 고대 비가모의 치유신전(Asclepeion)으로 가는 길  
고대 그리스에는 치유신전이 300곳이 넘게 있었다고 한다. 트릭케  
(Trikke), 고린도 인근의 에피다우로스(Epidaurus), KOS 섬, 아테네  
및 비가모가 가장 유명하였다. 이들 치유신전에 하루만 머물러도 온갖  
병이 낫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원근각지에서 병자들이 몰려들었다.  
치유신전들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졌던 오늘날의 휴양  
리조트와 같은 곳으로써 휴식, 명상, 운동, 목욕, 독서, 산책, 연극관람  
등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버가모 교회

-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경고는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진 주님의 입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좇는 이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버가모 교회

- 버가모는 사탄이 살고 있고, 그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다.
-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곳**이라고도 했다.
- 강진 후에 더 강한 여진을 맞듯이, 그야말로 위기에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었다.
-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놓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버가모 교회

-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을무를 놓게 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
-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로 그들을 치겠다고 하셨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버가모 교회

-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감춰둔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고 하셨다.
- 여기서 **흰 돌**은 경주에서의 승리자와 재판에서 무죄를 선언 받은 자들에게 주던 돌로 알려져 있다.
- 고대의 법정에서는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해서 유무죄를 결정**했다고 전한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버가모 교회

- 흰 돌은 무죄를, 검정 돌은 유죄를 의미하였다.
- 노예가 해방될 때 곧 해방노예에게 흰 돌을 주었는데, 때때로 새로운 이름이 그 돌 위에 새겨졌다고 한다. 대개는 **주인의 성**을 물려받고 아버지(후견인)로 섬겼다.
- 또 **흰 돌**은 싸움에서 15번 이상 승리한 검투사에게도 주어졌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버가모 교회

- 이렇듯 흰 돌은 자유와 명예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 ‘흰 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을 이기고 해방된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새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를 얻게 된 것을 상징한다.
- 또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은 에봇(긴 조끼) 위에 패용하는 판결 흉패 주머니에 흰 돌과 검은 돌 두 개를 넣고 다녔는데, 이를 ‘우림’과 ‘뉘뉘’이라고 불렀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버가모 교회

- ‘우림’(Urim)은 빛(lights)을 뜻하는 흰 돌이고, ‘둠땀’(Thummim)은 완전함(Perfections)을 뜻하는 검은 돌이었다(출 28장).
- 대제사장은 판결할 때 흉패 주머니에서 돌을 한 개만 꺼냈다.
- 그 돌이 흰 돌이면 긍정(yes)이고, 검은 돌이면 부정(No)이었다.

## 요한계시록 2장 1-17절

-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판결 흉패를 가지고 물었을 때, '우림' 곧 빛이 나오면 '덤뭍' 곧 완전함을 의미했다.
- 이것은 '우림'이 '덤뭍'이요, 빛이 완전함이라는 뜻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 돌을 받는 자는 구원의 완전함에 이르는 자란 뜻이다.
- '흰 돌' = 예스(yes), 무죄, 자유, 해방, 명예.
- '그리스도인이 됨'은 모든 일에 긍정을 뜻한다.

## “회개하라”란 말은

-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뜻.
-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돌려놓으실 수 있는 근거.
-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을 주시는 분, 운명(삶)을 바꿔 주시는 분,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 마음을 고치시는 분, 삶을 고치시는 분, 눈물을 씻어 주시는 분,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시는 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되는 근거.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013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 되,

[19]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24]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우림(Urim)과 돌림(Thummim)

우림(Urim)은 빛을 뜻하는 흰 돌이고, 돌림(Thummim)은 완전함을 뜻하는 검은 돌이었다(출 28장).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가뉘는 물로 때, 때용한 판결정판 때 주머니에서 꺼낸 한 개의 돌이 우림 곧 빛이면, 돌림 곧 완전함이었다. 이것은 우림이 돌림 곧 빛이 완전함이었다는 의미였다.



두아드라의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



두아디라의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 니골라당

- 계시록에서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두 번 사용되었다.
-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배척**하였다.
-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니콜라당: 교권주의?

**‘니콜라오스’ (Nicolas=Nikólaos)의 어원**

**‘니코’ (nike, 승리자) + ‘라오스’ (laos, 백성) =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정복자’**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 니콜라당: 예비온 영지주의?

- 일부 2-3세기 교부들(이래내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히폴리투스)는 예루살렘교회에서 뽑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Nicolas from Antioch, 행 6:5)를 니콜라당으로 알려진 영지주의 이단의 창시자로 보았다.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 니콜라당: 에비온 영지주의

- **히폴리투스:** 니콜라오스가 “건전한 교리를 버리고, **삶과 음식 모두에 무관심할 것**을 습관적으로 가르쳤다.”
- **클레멘트:** 니콜라오스가 **금욕주의자**가 되었고, 추종자들이 그의 가르침들을 **방탕주의** 곧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변질시켰다.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 영지주의의 특징

- **금욕주의** - 육체와 율법(구약)을 악하게 봄. 악한 육신을 억제하기 위해 금욕주의를 주장.
- **방탕주의** -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부추김.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니골라당 = 바알종교, 우상숭배

-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발람의 교훈**을 좇는 무리도 있었다.
-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생활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위하여 여리고성 맞는 편 요단강 건너편 모압평지에 진을 쳤다(**민수기 25장**).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니골라당 = 바알종교, 우상숭배

- 이 때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 바알신전이 있는 **브올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다.
- **싯딤**이란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과 알고 지내면서 **바알브올**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염병을 퍼트려 **2만 4천명**이 죽는 엄한 벌을 내리셨다.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니골라당 = 바알종교, 우상숭배

- 열병이 번진 **싯딤은 사막문화권이 끝나고 농경문화권이 시작되는 관문과 같은 곳이다.**
- 예로부터 항구도시에는 **홍등가가 발달했다.**
-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던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농경문화권의 첫 관문인 이곳 싯딤에서 **바알종교의식**을 접하게 되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무렵의 바알 신상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알렙(황소)과 라메드(지팡이)로 이뤄졌고, '엘'은 바알의 아버지 신 곧 'father-bull'이다. 시내산에서 '야훼'와 언약관계를 맺은 히브리인 유목민들이 가나안 농경 문화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나안의 신, '엘'을 '야훼'와 일치 또는 동등하게 '엘-야훼'로 숭배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페르시아의 키루스(Cyrus, 고레스) 황제 때 수메르의 신 '넵'과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합쳐져 '넵-마르둑'으로 숭배된 것과 같고, 헬라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때 이집트의 신 '아몬(암몬)'과 헬라의 신 '제우스'가 합쳐져 '아몬(암몬)-제우스'로 숭배된 것과 동일하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야훼 하나  
님, 보좌는 법궤를 말한다.

- 법궤는 하나님께서 딛고 서신 발판  
이자 속죄소였다.
-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의 언약궤”(삼상 4:4),
-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삼하  
6:2, 대상 13:6),
-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시  
80:1),



법궤와 속죄소  
출처: Moshe Levine's book,  
"The Tabernacle". Published by  
Soncino Press, Brooklyn, NY.

-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시 99:1),
-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사 37:16),
-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대상 28:2),
-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시 132:7, 99:5).
- “증거궤 위 속죄소”(출 25:22, 출 30:6, 레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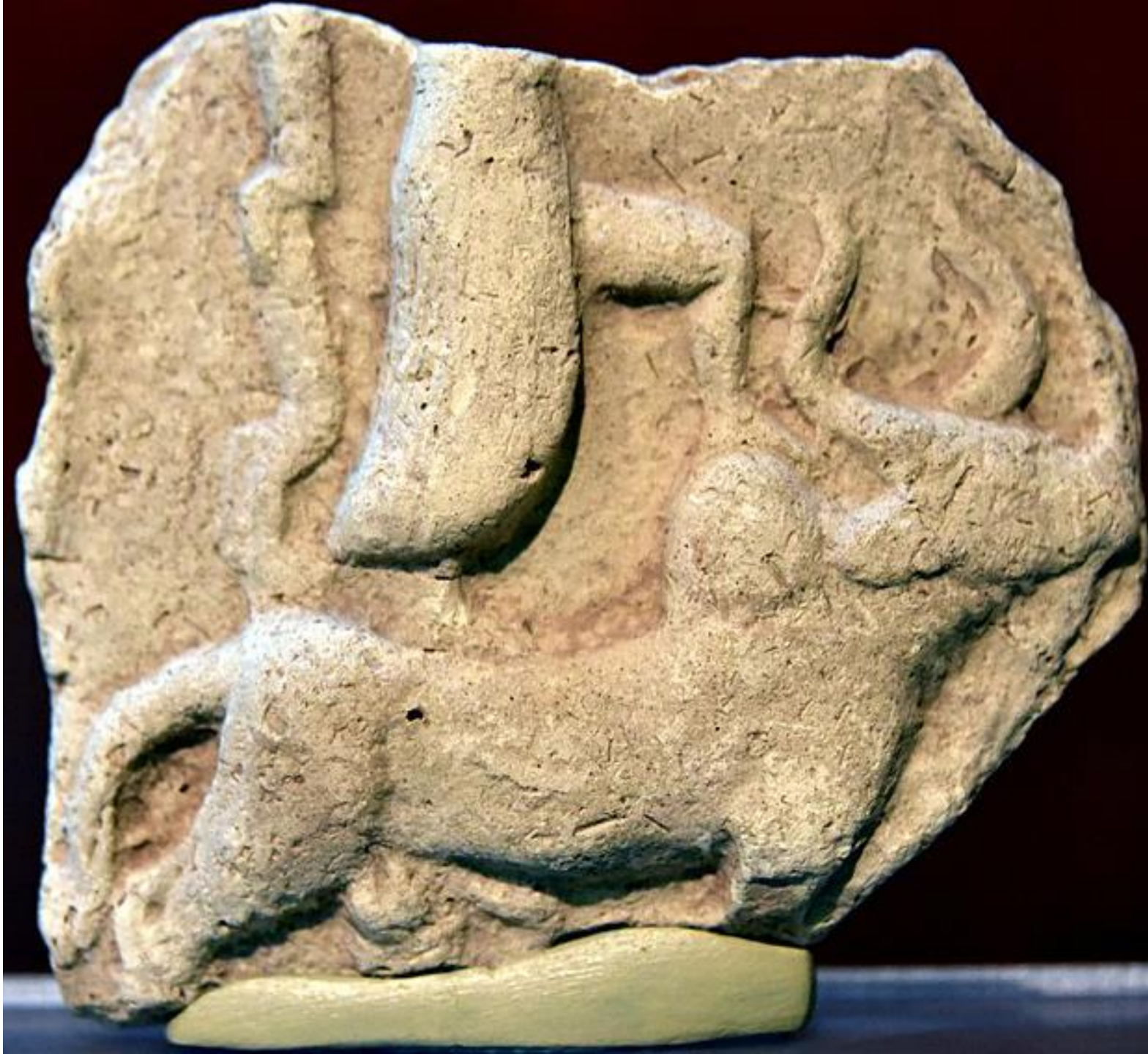
황소(발등상) 등에 올라  
선 **바알(Baal)**

혹은

**아다드(Adad/Hdad)**가  
번개를 휘두르는 모습  
〈시리아 북부 아르슬란  
타쉬(Arslan Tash)의  
아시리아 비석(8 BC,  
루브르 박물관).

**바알/아다드=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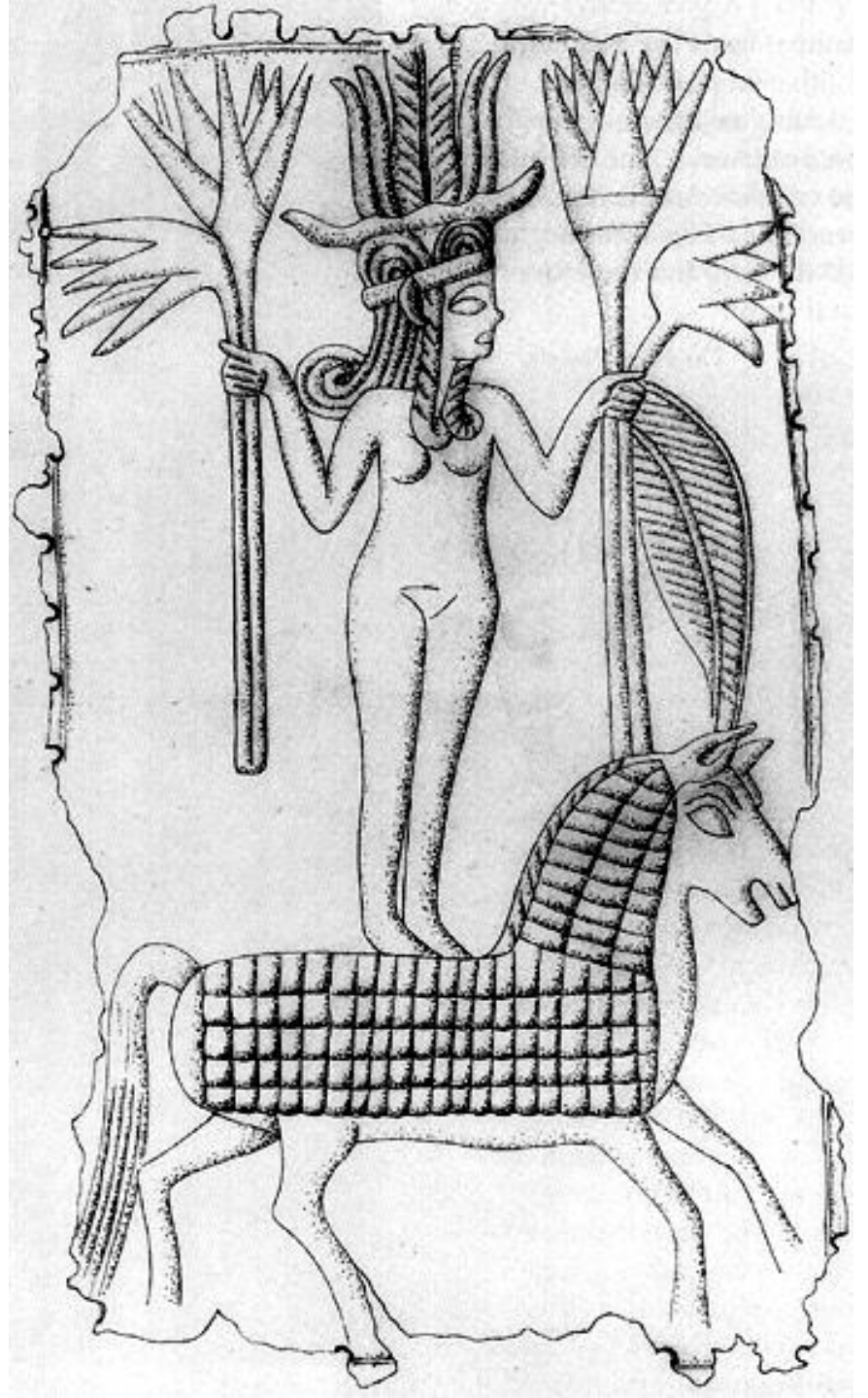


황소(발등상) 등  
에 올라선 **바알**  
혹은 **아다드(하**  
**다드)**를 묘사한  
테라코타. (주전  
18-16세기, 이라  
크 술레이마니아  
(Sulaymaniyah)  
박물관



- 황소(발등상) 등에 올라선 신상은 **황제**였을 것이다.
- 황제는 **제국의 번영과 안녕을 보장하는 수호신**이었다.

라기스에서  
발견된  
금박에 새겨진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



짐승들(발등상) 등에 올라선 메소포타미아의 신 아누(Anu)와 그의 왕실 가족을 묘사한 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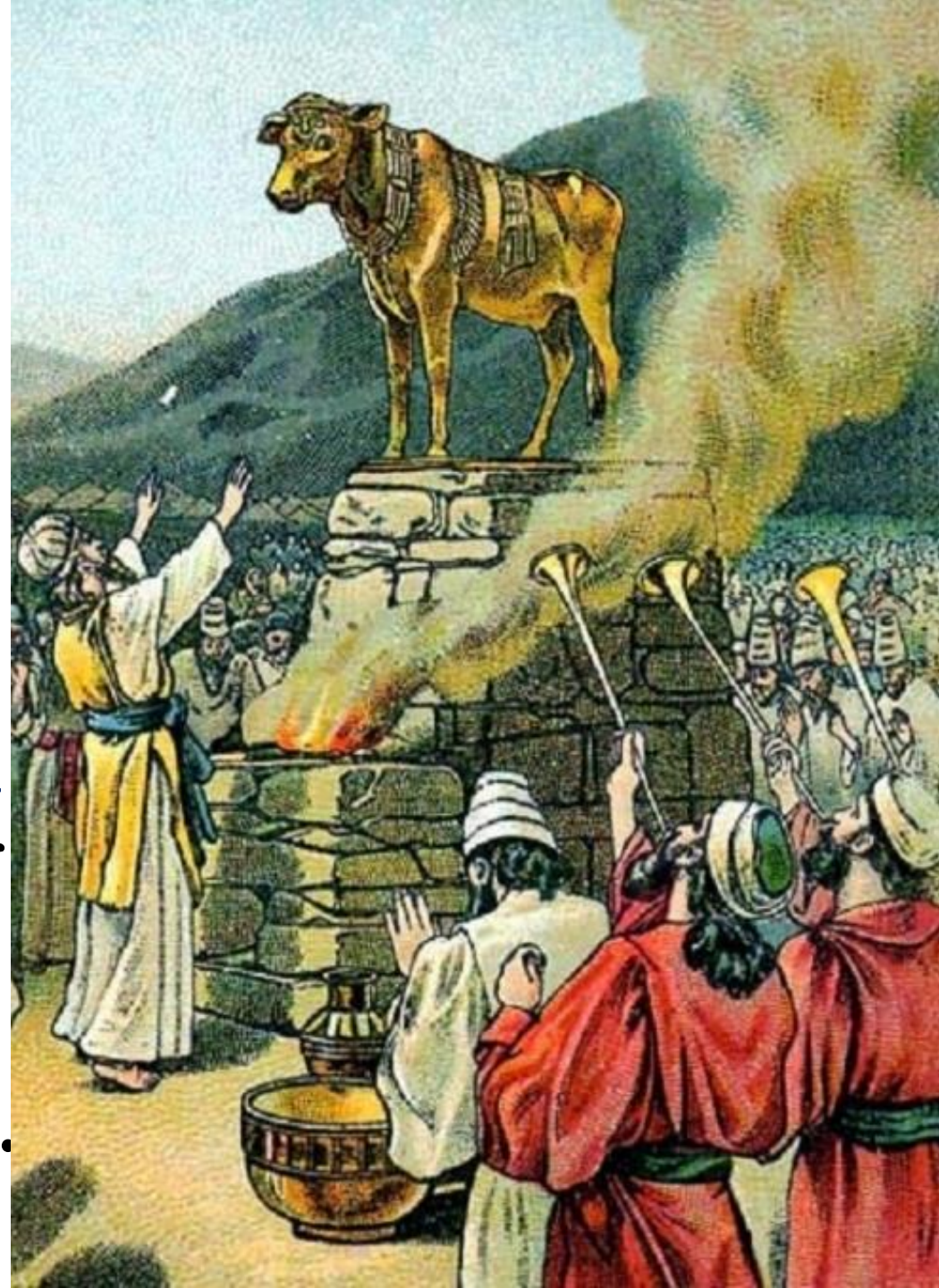




고대근동에서 황소는 신들의 발등상이었다.

황소 등에 선 **바알** 혹은 **아(하)다드**는 제국의 수호신 황제(왕)였을 것이다.

아론과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등 위에 우상이 없는 것은 금송아지가 우상제조가 금지된 야훼의 발등상이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시 1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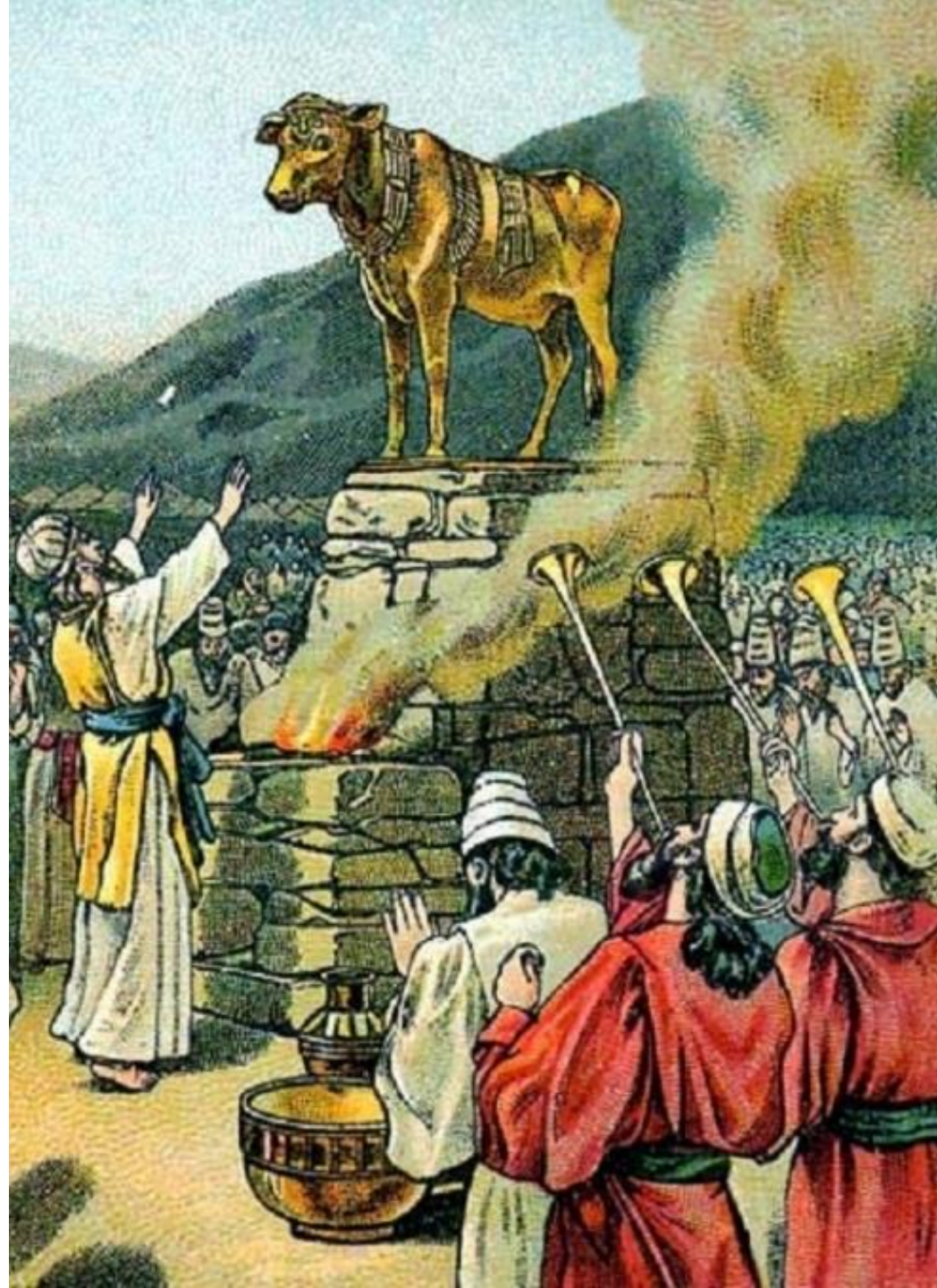


법궤와 속죄소

출처: Moshe Levine's book, "The Tabernacle". Published by Soncino Press, Brooklyn, NY.

← 법궤  
발등상(보좌)과  
금송아지 →  
발등상(보좌)의  
차이

← 언약(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황금(퉁요)의 →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이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 바알종교의식

- 고대근동 사람들은 **엘과 아세라**의 아들과 딸인 **바알** (남신 하늘)과 **아스다롯**(여신 땅)이 성관계를 해야 비가 내려 농사가 된다고 믿었다. 바알의 정액이 비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 **바알종교의식**은 남녀 사제들과 예배자들 사이의 성관계로 이어졌는데, **인간들의 성교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여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 유대교신앙=야훼계명 실천종교

-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모습도 없고,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었다.
- 유대교는 율법실천종교이기 때문에 신화, 여신, 여성사제(성창)가 없었다.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 바알종교의식의 유혹

- 싯딤에서 바알종교의식을 접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 가나안정착후 **이스라엘의 흥망이 걸린 문제**가 바알종교의식의 유혹이었다.
- **발람의 유혹**에 빠진 일부 이스라엘사람들이 싯딤에서 **치명적 성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것이 **2만 4천명을 죽게 한 염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현대판 바알종교=현대판 니골라당

- 현대인들의 이상='MONEY'와 'SEX'. 돈과 성을 섬기는 현대문화는 현대판 바알종교. 현대인들은 돈과 성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
- 니골라당=방탕문화.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며 몸을 함부로 굴리는 현대문화는 현대판 니골라당.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현대판 바알종교, 현대판 니골라당 = money god, sex god 숭배, 공리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진화론, 무신론

- money신(神), sex신(神)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향락 문화를 섬기는 **발람의 교훈을 좇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 **현대판 바알종교와 현대판 니골라당은 공리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진화론, 무신론이다.**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현대판 바알종교, 현대판 니콜라당 = money god, sex god 숭배, 공리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진화론, 무신론

- 神은 없다. 내가 나의 神이다. 나는 나의 결정권자이다. 고로 나는 내가 하고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자기 결정권', 공리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진화론, 무신론의 뿌리이다.
-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라.”는 강한 충고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 두아디라 교회

- 두아디라 교회에 메시지를 보낸 주님은 그 눈이 이글 거리는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놋쇠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었다.
- 손에 **철 몽둥이**를 쥐고 질그릇들을 후려칠 것 같은 **심판하실 주님**의 모습이다. (비교: 헤라클레스의 몽둥이, 궁예의 법봉과 철퇴)

- 철 몽둥이가 아무리 무섭고 파괴력이 강하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 계시록이 주는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한 가지는 ‘이세벨에게 내렸던 저주와 재앙처럼 철 몽둥이로 상징된 심판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새벽 별 같은 구원과 위로와 영생은 끝까지 참고 이긴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대상이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014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광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9]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들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데(Sardis)의 아데미(Artemis) 신전과 비잔틴교회 유적  
헬라시대에 건축된 신전으로서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교회로 사용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기둥 앞쪽 석조건축물이 교회 복속 유적이다.



사데(Sardis) 유대교 회당 유적.  
600년 이상 사용된 큰 규모의 회당으로써 바닥이 모자이크로 장식되었다.



사디(Sardis)의 테르메(thermae, 2세기 말, 3세기 초)  
테르메(thermae)는 고대 로마의 공공욕탕이자 사교장이었다.  
이발과 치른 목욕의 마사지, 공부도 볼 수 있는 부대시설에서 이뤄졌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사데 교회

- 예수님께서서 사데 교회에 주신 말씀은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굳게 지키라,” “회개하라”로 요약될 수 있다.
-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는 말씀은 사데 교회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이고,
-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굳게 지키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처방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사데 교회

-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태, 말씀을 받고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잠자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태, 의식하지 못한 사이 병이 깊어진 상태가 사데교회의 현주소였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사데교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데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 그들이 받을 보상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며,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사데 교회

-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건 충성스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나 친구처럼 아끼신다는 뜻이다.
- 성결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만큼 주님과 가까운 관계란 뜻이다.
- 주님께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 주실 만큼 친밀한 사이라는 뜻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그래서 자기가 입은 야훼신앙의 옷, 자기가 입은 그리스도 예수신앙의 옷, 자기가 입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이다.
- 주님이 가지신 일곱 영과 일곱 별은 **성령님과 전령 천사**들을 말한다.
- 주님은 이들이 전한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고 명령하셨다.
- 그 말씀이 바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는 명령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빌라델비아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주님께 받은 **책망이 없다**는 점이다.
- 그들은 **비록 힘이 적으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고,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 그들은 **작지만 순수한 신앙공동체**였던 것 같다.



6세기경에 건축된 '사도 요한 기념교회' 터(빌라델비아).  
아치를 받치던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기둥이 유물로 남아 있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빌라델비아 교회

- 주님은 그들에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켜 오히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님이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시며, 보호하겠다고 하셨다.
-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와 같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빌라델비아 교회
- 주님은 ‘유대교 회당을 사탄의 모임’이라고 폄<sub>훼</sub>하셨습니다.
-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대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우상과 교만에 빠져서 기독교를 이단시하고, 폄박하였기 때문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빌라델비아 교회

- 그렇더라도,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써 두겠다.”고 하셨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빌라델비아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되었다.
- 다윗은 왕국 곧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다가올 세상, 장차 올 세상을 상징한다.
- 따라서 ‘**다윗의 열쇠**’는 **왕국의 열쇠**를 말한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빌라델비아 교회
- ‘성전’과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 등이 **장차 올 세상** 곧 유대인들이 꿈에도 희망하는 ‘올람하바,’ 다윗 왕국의 회복 곧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와 연관된 말씀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왕국의 회복을 고대하기 때문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빌라델비아 교회

- 그러나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왕국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 나라가 그리스도교라는 것, 그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이름이 바로 그들 위에 써 둔 '새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Christian Church'라 부른다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교훈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빌라델비아 교회

- 계시록 2-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 가운데 하나가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는 명령이다.
- 고금을 막론하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하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마가복음 8장 14-21절을 보면, 제자들이 먹을 사람은 많은데, 빵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걱정하다가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잘못 알아듣고, 오해한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귀 있는 자는”

- 예수님의 이 탄식이 바로 사데 교회에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다.
- **마가복음 7장 32-35절**에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에바다’란 아랍어를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이적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예수님께서서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꽂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곧 ‘열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장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은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다.”이다. **‘열리고,’ ‘풀리고,’ ‘말이 분명했다’**이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이 분명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귀 있는 자는”

-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문제점은 귀가 닫혀 있었다는데 있다.
- 굳게 닫힌 그의 어두운 귀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 시대가 닫히게 되고 분열왕국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 르호보암은 세금을 낮추고 부역을 감하여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달라는 백성의 청(촛불시위?)을 거절했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귀 있는 자는”

- 르호보암은 귀가 닫혀 있어서 백성들 사이에서 떠도는 루머와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 루머와 신음소리는 민심이요, 민심은 천심이며, 천심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 결과가**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쪼개 놓은 것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탈출에 성공하여 가나안 땅에 그토록 소원했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의 대 구원사건이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던 80세 노인(모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13절

- 반면에 **바로**는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
-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다.
-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앞에 선 것과 반대로 바로는 귀를 닫았다.**
- **그 결과가** 이집트 전역에 미친 열 가지 재앙이었다.

## 모세=야훼의 대언자, 바로=호루스(태양신)의 현현

-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십니다.
  - 그 무엇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 그 무엇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 
- 예수의 이름은 강력합니다.
  - 그 이름에 맞설 자가 없습니다.
  - 그 이름에 비길 자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015

## 요한계시록 3장 14-18절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 요한계시록 3장 14-18절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대 라오디케이아의 광장(시장, Agora)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발굴된 복원된 모자이크(데니즐리, 터키)  
유각 속에 세 개의 하트는 '삼위일체'를 상징한 것일 수 있다.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 “귀 있는 자는”

- **엘리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아합과 이세벨**은 가문이 멸문 당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유다 왕,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 **예레미야는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었다.**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 “귀 있는 자는”

- 예레미야는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쇠퇴를 읽고 있었다.**
- **여호야김** 때인 주전 609-598년에는 유다왕국의 멸망이 코앞에 닥쳤다는 징조들이 많았다.
-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나보폴라살의 아들)은 갈그미스에서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연합군을 전멸시켰고, 이집트는 유대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걸었으며, 아시리아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1차 갈그미스 - 므깃도 전투



605 BC 느브갓네살

609 BC

바벨론의 승리

갈그미스

우르(?)

앗수르 우발랏 2세

니느웨

바벨론

나보플라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수산

우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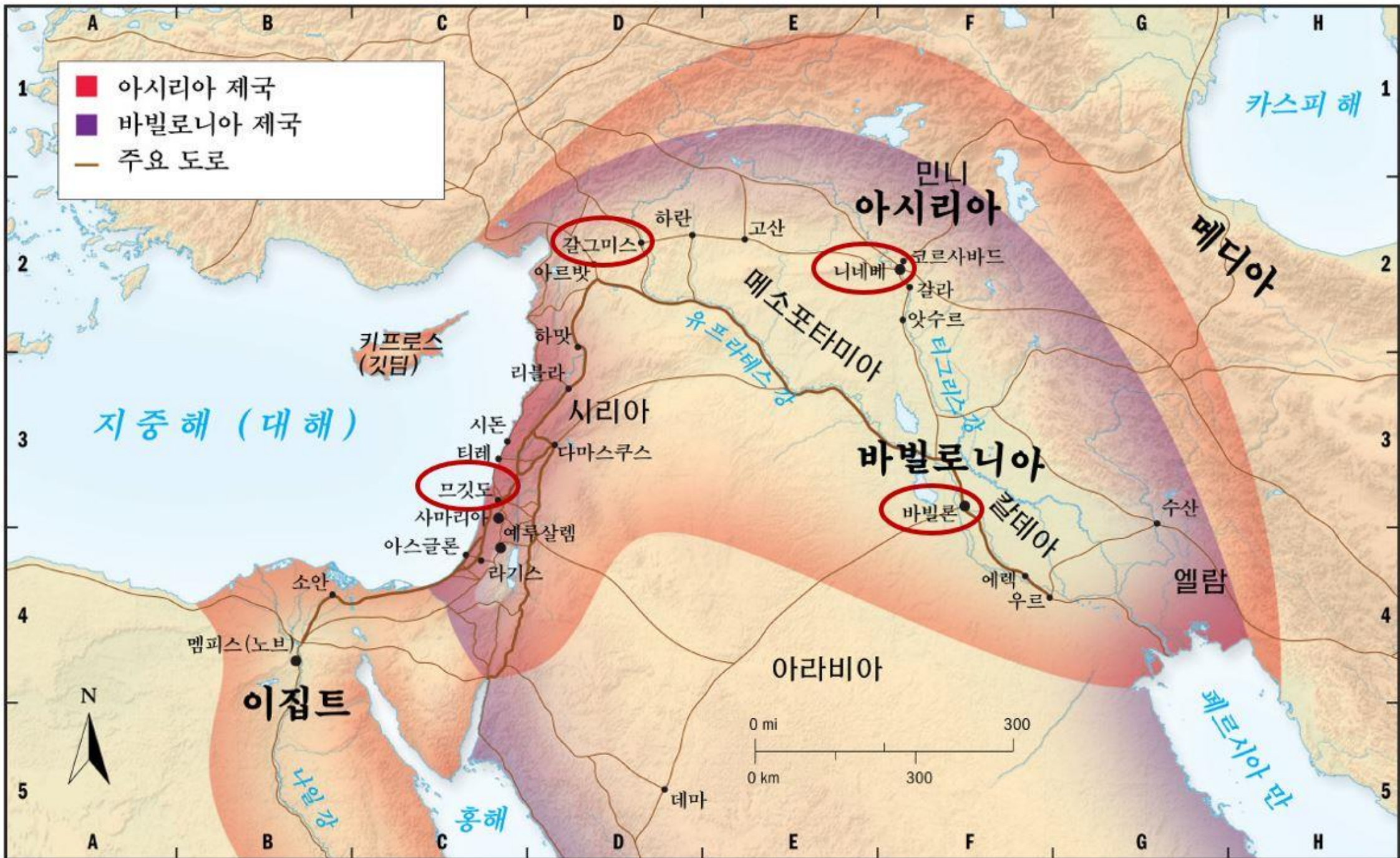
므깃도

유다

요시아 왕의 전사

예루살렘

에굽의 군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 “귀 있는 자는”

- 여호야김은 605 BC에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이 임명한 왕이었지만, 바벨론의 멍에를 벗으려고 애를 썼다.
- 이 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이집트에 의지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민족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맞기도 했다.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 예레미야는 **다윗언약과 성전과 왕권이** 유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여호와와의 성전’** **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민족주의자들과 정치지도자들에게** 성전을 마술적으로 믿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권고**했다.
- 그러나 들을 귀가 없었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주전 598년에**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다가 **바벨론의 공격 직전에 사망**했다.

- 결국 유다왕국은 다음 해인 **597년에** 바벨론 군에 능욕을 당했고, 왕위에 오른 지 3달 밖에 되지 못한 18살의 **여호야긴**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주전 605년에 이어 **두 번째 유배**였다.
-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요시아(주전 609년 므깃도에서 전사)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잡혀간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왕으로 임명했다.
- **시드기야** 역시 친 이집트파와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 **하나나**는 포로가 된 사람들이 신속하게 돌아오고, 성전 보물들도 곧 되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을 부정했고, **유다가 회복되려면 적어도 7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에 반기를 들지 말고 복종하도록 권했다.
- 예레미야가 **민족주의자들**에게 흑심한 핍박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 닫힌 눈과 막힌 귀를 가진 **민족주의자들에게 예레미야는 매국노**였기 때문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 예레미야는 토굴과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했다.
-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충고를 거부하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집트 편에 서서 **주전 589년에**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다.
-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반역 소식을 듣고 즉시 군대를 예루살렘에 파견했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다. (이후의 유대는 AD 70년까지 제국들의 **속주였다.**)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 **바벨론 군사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했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 소경을 만든 다음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 이로써 **제3차에 걸쳐 바벨론의 침략과 유배가 완결되고** 유다왕국은 철저히 멸망하였다. 그러나 예레미야만큼은 끝내 살아남았다.
- 복음서와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여러 차례 나온다.

- 듣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며 재앙을 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다(롬 10:17). 귀를 열어 듣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다. 듣는 것은 리더십의 필수 중의 필수.
-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읽는 것은 개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 사람이 귀를 열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사람 개인이 사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게 된다.
-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갖거나 못 갖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 라오디게아 교회

- 라오디게아는 튀르키예 소아시아도 브루기아 지방의 주요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다.
- 해발 300미터 높이의 언덕 위에 세워졌으며, 20여리 떨어진 계곡 건너편 더 높은 지역에는 유명한 온천 도시 히에라폴리스(파묵칼레)가 위치하고 있었다.
- 라오디게아는 수로를 통해서 온천수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오는 동안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었다.



에게해

에가르

투아디라

시르나

사티

비라델리아

Paul spent 3 years here

에베소

120 Miles (190 km) Colossae to Ephesus

에베소  
에서  
콜로사까지  
193km

히에라폴리스

라온디게아

There's no record Paul ever came here.

콜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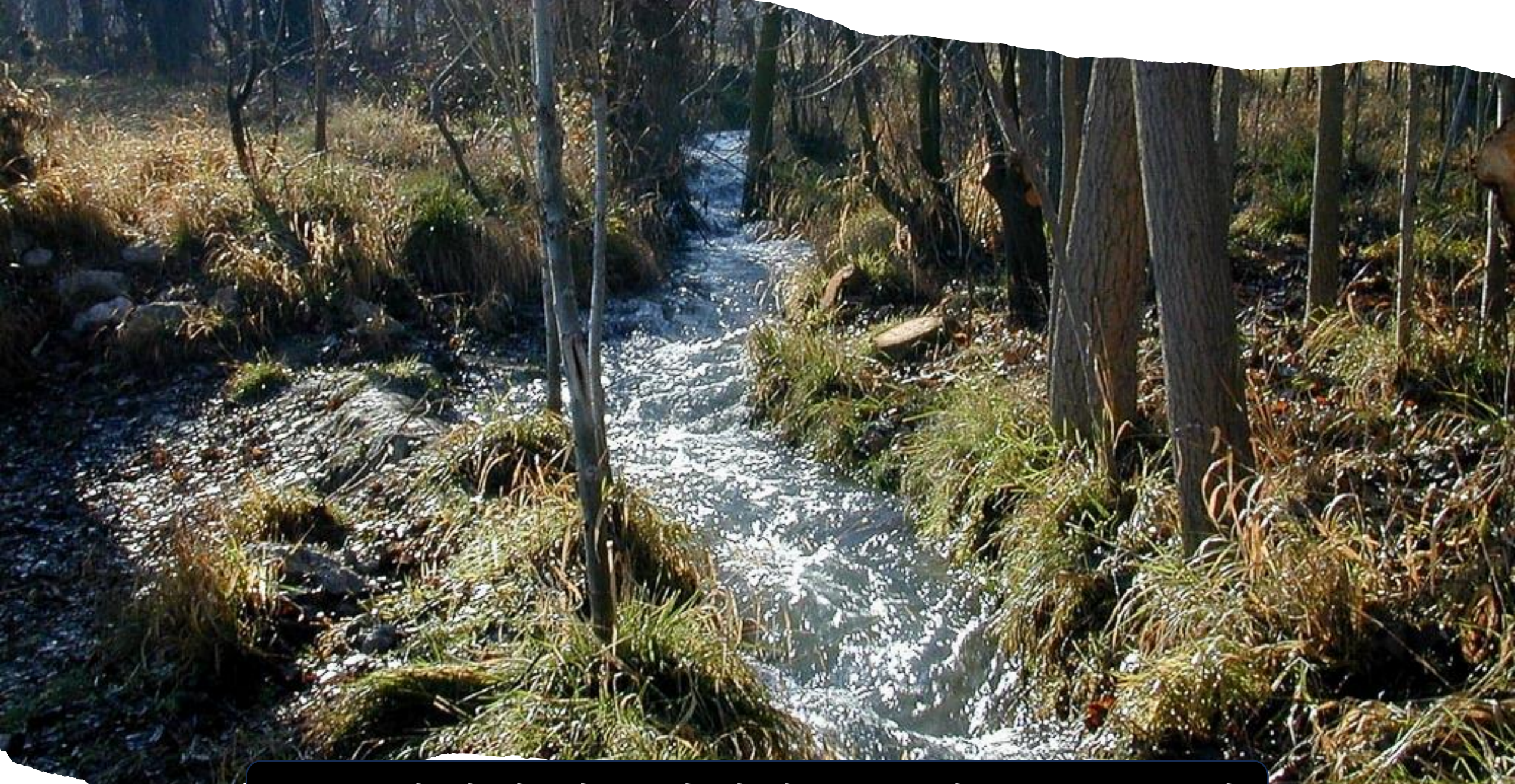


**라오디게아로 온천수를 끌어오던 통로와 수도관**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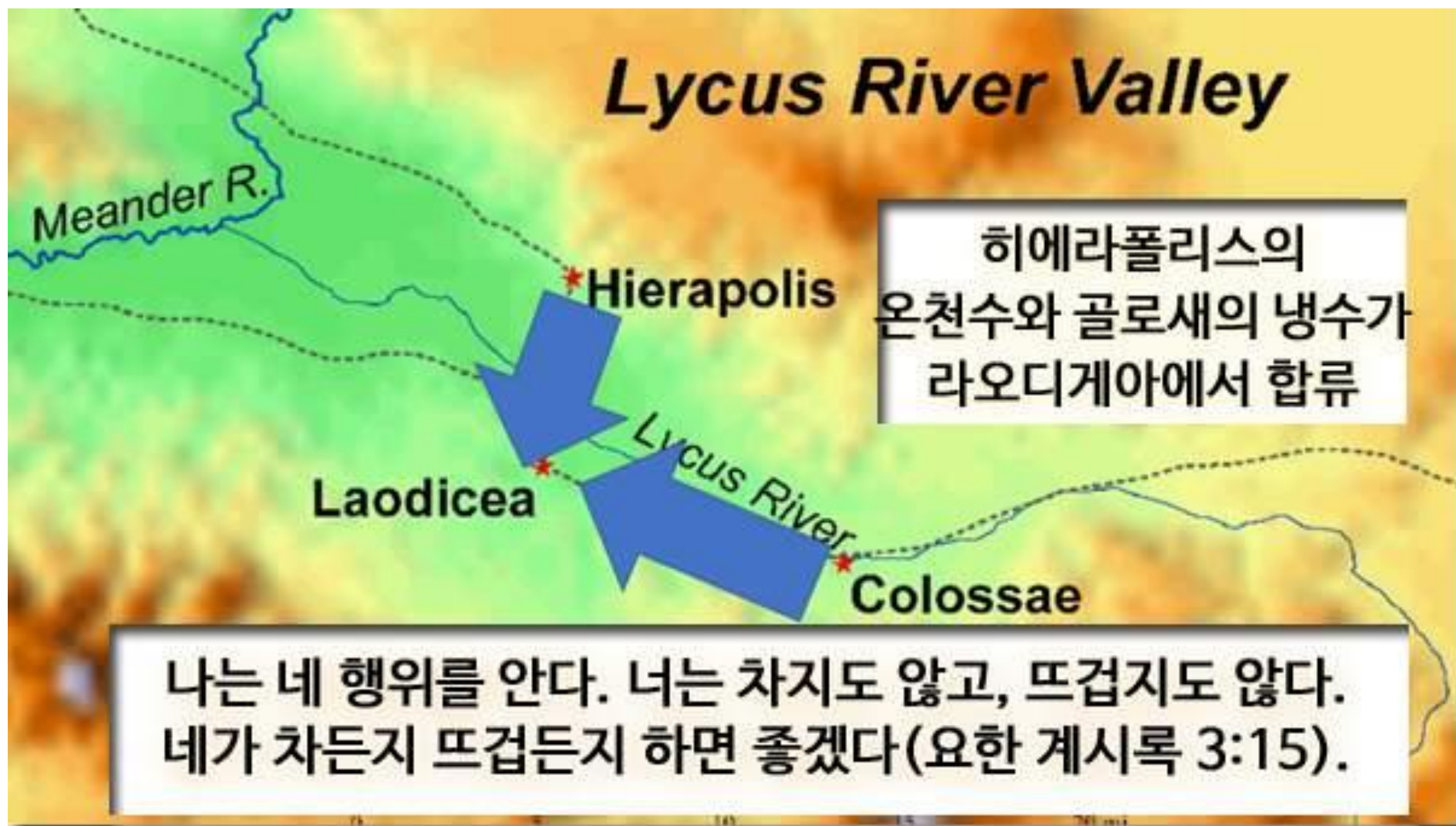
## 라오디게아 교회

- 또 라오디게아는 50여리 떨어진 산지 골로새로부터 냉수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이 물 역시 외부기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 미지근하게 되었다.
-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물은 모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되었던 것이다.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 물줄기**

# Lycus River Valley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와 골로새의 냉수가  
라오디게아에서 합류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요한 계시록 3:15).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 라오디게아 교회

- 주님은 이곳 성도들의 **미지근한 믿음을 책망**하셨다.
- 미지근한 믿음은 열정이 식은 믿음을 뜻한다.
- 주님은 열정이 식은 믿음의 가치를 아주 낮게 보셨다.
-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부유하고 싶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고 하셨다.
- 이 말씀은 헌신이 없는 믿음, 구경꾼의 믿음, 아웃사이더의 믿음생활을 책망하신 것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 라오디게아 교회

- 라오디게아는 온천물이 주는 치료효과를 누렸을 뿐 아니라, 꺾병을 치료하는 특효약과 ‘콜로니온’(Colonion)이라 불리는 안약의 산지로도 이름이 나 있었다.
- 또 목화와 목축으로 옷감이 생산되던 산업과 금융의 중심지였고, 사치품도 많았다고 한다.
- 인근 콜로새에서 생산된 양모는 ‘콜로시누스’(Colossinus)로 불렸다.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 라오디게아 교회

- 그리고 주님께서서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교제를 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싶다. **식탁교제(주의 만찬)**와 연관된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본문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식탁교제를 언약체결과 연결 지어 생각했다.
- 주님과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 언약관계에 있거나 그 공동체의 회원(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 또 주님의 가족이거나 친구이어야 한다.
-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공동체의 회원들이자 가족이고 친구들이다.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전혀 받지 못했다.
- 번영을 누렸던 **라오디게아**인들이 **영적으로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예수님께서서 율법에 통달하였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이라고 하신 것과 같다.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 모든 것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갖지 못한 자**들이고,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무식한 자들**이라는 이 현실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그들은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했다.**
- **물질적인 풍요가 곧 바로 영적인 풍요로 이어진다고 착각했다.**
- **물질적인 부요가 영적인 경건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 오늘날에도 물질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성공이 곧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 따라서 주님은 **성공이 곧 축복이라고 믿는 성공지상주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있다.
-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만하고 입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 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매우 가난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았고, 하나님을 오해했으며, 잘못 믿고 있었다.
- 만약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 주님의 권면대로,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해야 한다.**

- 부자가 되기 원한다면, 주님께 순도 높은 **금**을 사서 소유하고,
-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싶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긴 **흰 옷**을 사서 입고,
- 눈이 밝아지고 싶다면, 주님이 열어 주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한다.

-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 God Is Good and Faithful and Never Fails!
-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공동체**의 **회원들**이자 **가족**이고 **친구들**이다.
-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신다.
- We've Known God as a Father and as a Friend.

## 요한계시록 2-3장의 요약

- “처음행위를 가지라”(2:5).
- “죽도록 충성하라”(2:10).
- “회개하라”(2:16).
- “굳게 잡으라”(2:25).
-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3:3).
-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3:11).
- “네가 열심을 내라”(3:19).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서 먹게 하리라”(2:7).
-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2:11).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2:17).
-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2:26-28).

- “이기는 자는 ...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3:5).
-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3:12).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3:21).